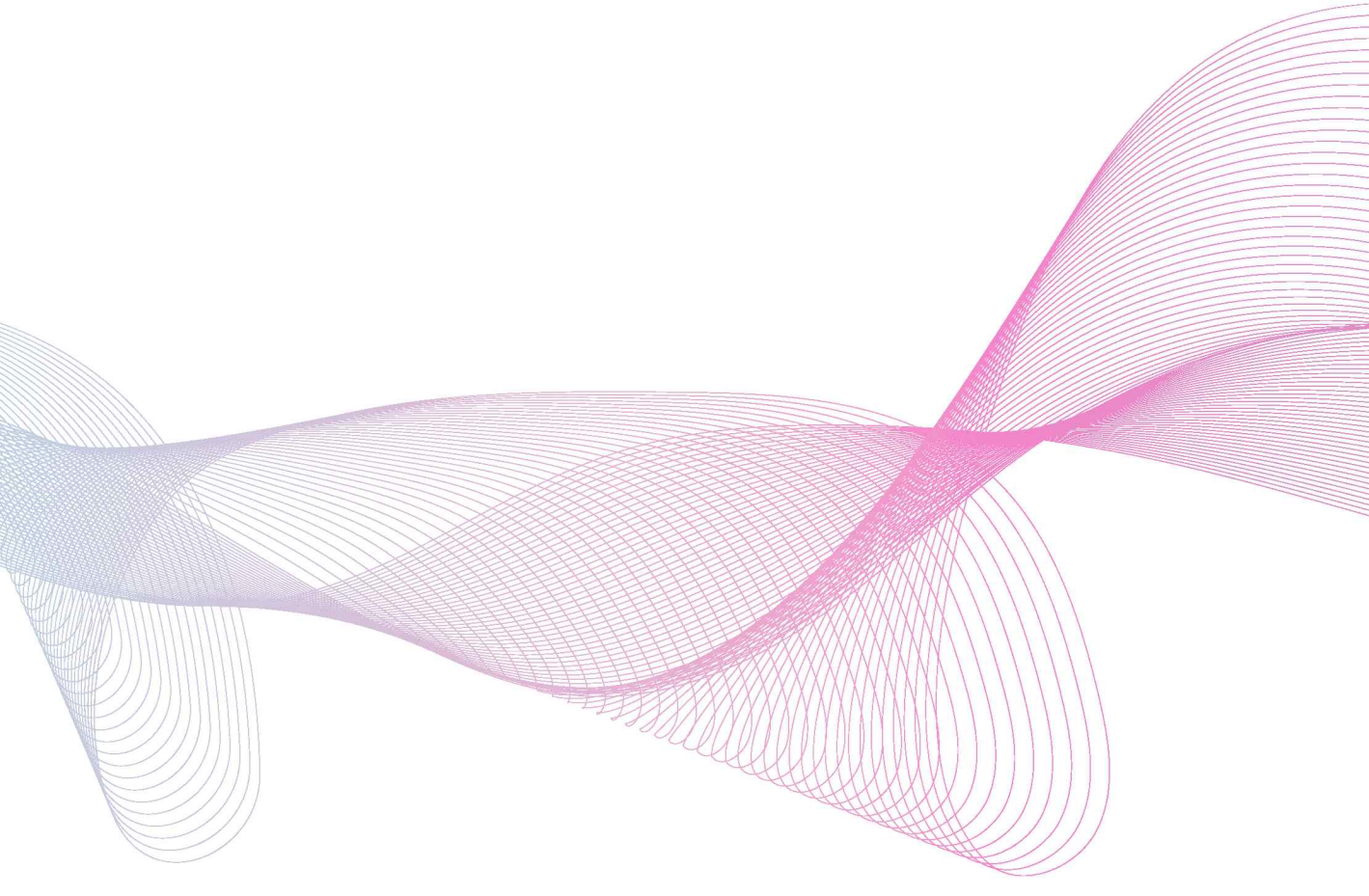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백서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백서

| 발행처 |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 발행인 | 류재민
| 편 집 |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 편집인 | 박건영
| 발행일 | 2022. 7. 30.

CONTENTS

*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화보 06

발간사 23

1 민선 8기 비전

제 1장 시대적 소명 27

제 2장 군민의 요구 28

제 3장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29

2 영암군수직 혁신준비위원회 활동과 정책 제언

제1장 인수위원회 구성과 분과별 활동 내역 35

제 2장 정책 제언 40

3 주요 정책 분석

제 1장 총괄 103

제 2장 혁신영암 20대 공약 111

제 3장 주요 정책 112

4 영암군수 취임행사

제 1장 개요 247

제 2장 추진과정 248

제 3장 취임행사 250

제 4장 취임사 252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병암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백서

당 선 증
더불어민주당
우 승 희
귀하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한
영암군수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
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3일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민선8기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민선8기 혁신영암 준비위원 임명장 수여식
2022년 6월 8일 14:00
준비위원회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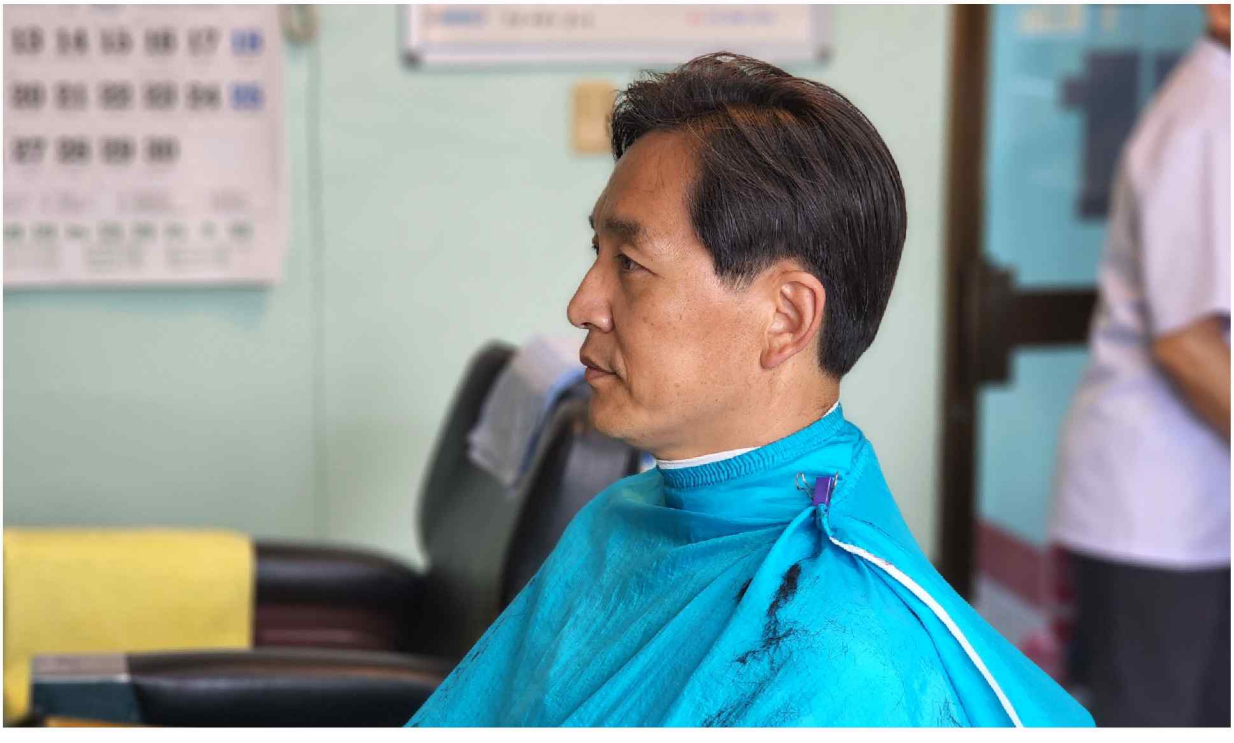
10M

민선8기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식
2022년 6월 1 14:00 준비위원회 사무실

A-300 Ser.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GSI 대표이사 서보집

제 72주년 6·25 기념식



인수위원장
류재민

부위원장
박태홍

간사
박건영

인수위원
강유신

인수위원
김대현

인수위원
김민수

인수위원
김탁

인수위원
박대현

인수위원
박지수

인수위원
신은주

인수위원
이재우

인수위원
이혜숙

인수위원
이희승

인수위원
조민성

인수위원
최용선

발 / 간 / 사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 영암 군정의 출발은 혁신영암을 위한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혁신영암준비위원회의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였다.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진단과 분석, 현재의 조직, 기능, 예산 상황 등을 파악하였고,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업무보고에 따른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사업이나 정책과 현장의 괴리 여부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평가를 진행하여 효과와 효율성,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 투자 대비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기 진행 중인 사업들의 지속 여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 문제점이 노출된 사업에 대한 폐기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조력하였다. 또한,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영암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당선인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를 확정하였다.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하여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하여 공약 실천의 우선순위를 제안하고, 군민의 공감도가 미미하거나 현행법 또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 여부에 대해 깊게 살펴보았다. 당선인 공약 실천을 위한 시기, 예산, 제도적 검토 등을 통해 공약의 실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군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군 홈페이지에 혁신영암준비위원회 창을 마련하여 “준비위원회에 바란다”와 “혁신영암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혁신영암을 위한 준비과정에 활발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제한된 기간 동안의 활동이라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들의 열정과 노력, 지원팀으로 참여해주신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영암 건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당선인께 무한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며 혁신영암을 위한 준비과정에 참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준비위원회에 동참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 모두 민선 8기 성공을 기원하는 축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위원장 류 재 민

1

민선 8기 비전

Ⅰ. 시대적 소명

Ⅱ. 군민의 요구

Ⅲ.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백서

제1장 시대적 소명

영암의 인구유출 및 지방소멸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 눈앞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리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를 비롯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및 양극화, 계층 간 갈등 발생 등 급속한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대전환기 앞에서 지속가능한 영암을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혁신해야 한다. 낡은 과거를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길,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도, 행정도, 군민의 생활도 완전히 새로운 '혁신영암의 길'로 가야 한다. 젊은 생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영암을 혁신해야 한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소멸이라는 대전환기 앞에 서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상기후 등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암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다 현실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영암의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알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또한, 우리 지역을 비롯한 농촌에는 체계적인 계획이나 정책 없이 공장, 창고, 재생에너지시설 등이 혼재·난립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각종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빈집이나 노후주택이 늘고 방치되면서 정주 환경이 악화되어 다시 인구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민총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를 살리고, 중요한 사안을 군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람중심의 지역 발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방자치 30년을 넘어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기존 방식과 정책에 머물지 않고 젊은 생각과 혁신적인 방식으로 영암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제2장 군민의 요구

영암군민은 현명하고 위대하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젊은 군수를 선택하여 쇠락하고 지체되는 영암을 변화 시키고 영암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은 상상이상으로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우리 영암 그리고 군민들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언제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던 군민들을 위한 생각은 늘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민들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군민이 주인인 영암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영암군민들이 쇠퇴하는 영암을 두고 보게만 할 수 없다. 군민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다. 영암군민이 잘사는 영암을 만들어야 한다. 영암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라는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

낡고 관행적인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젊은 생각으로 영암의 혁신을 이루길 바라는 영암군민들은 더 젊고 더 큰 영암을 요구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영암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과 문화, 의료 등 젊은 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일자리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관행농법으로는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기 어렵다. 청년들이 자신 있게 농업을 선택하여 2세 농으로 성장하도록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지지해 줘야 한다.

또한, 제조업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기존 업종뿐만 아니라 대전환시대가 요구하는 업종을 다양화하여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음식업이나 서비스업 분야도 젊은 마인드와 청년들의 활동공간이 필요하다. 지역의 쇠락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영암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기존 상가의 운영방식도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영암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전국으로 확산되고, 오늘 영암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우리 영암은 전남 서남권의 산업 전초기지로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확충,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해 발상을 전환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제3장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행정이 주민을 이끌며 권위주의 시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다. 지체되고 쇠락하는 영암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군정은 대혁신으로 변화해야 한다. 대표일꾼 우승희는 영암군민들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영암군을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풀뿌리 시민주권도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승희 군정의 목표인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이루기 위한 비전은 아래와 같다.

1. 청년 친화 미래 선도경제

지방소멸의 해결책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찾아오는 영암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영암은 저출산과 고령화 및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주변 도시로 떠나고 있다. 또한, 청년이 주도하는 영암을 만들기에는 아직 영암의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영암을 청년들이 돌아오는 영암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달라져야 하고, 현재 청년들이 처해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청년들이 주도하는 영암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 갈 순 없지만, 군민 모두가 인식을 하고 나아간다면 점점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 것이고, 그 결과 청년들이 찾아오는 영암이 될 것이다.

2. 남도 역사문화 생태관광 거점

우리 영암군의 월출산은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연휴양림조차 없고,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월출산을 비롯한 영암의 유무형의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코로나 19 이후 관광은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둘레길 걷기' 등과 같은 도보여행과 글램핑, 차박 등 관광의 변화에도 맞춰가야 할 것이다.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춰 전통적인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식의 생태관광 거점 영암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3.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였지만, 우리 지역과는 멀고 먼 이야기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영암군도 예외는 아니며,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노인, 영유아, 근로자 등 어려운 군민들을 찾아내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보로부터 소외 받지 않아야 하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우승희 군정은 군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한 촘촘한 돌봄체계와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군민께 힘이 되는 생활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다가오는 미래는 차별과 소외 없이 모든 군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로 일등 영암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 일번지

우리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국가와 지역단위 단절식량과 먹거리 등 지역별 농업생산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 영암군뿐만이 아닌 농생명산업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지역은 없을 것이다. 일하는 노동의 강도에 비해

낮은 대가와 농민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민들과 소통하고, 그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사업 등을 지원하여 불확실한 농촌이, 지속가능한 농촌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청년들에게도 희망을 가져다 주는 영암군이 되어야 한다.

5. 군민이 존중하는 주권 행정

우리가 직면해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여전히 군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체감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사업자를 위한 사업과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행정의 계획수립과 추진절차 등에 대하여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군민들의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한다. 우승희 군정에서는 군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영암'을 통해 군민들의 말이 정책이 되고, 군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을 직접 해결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이런 정책과 제도들을 잘 운용하여 군민이 주인인 영암군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영암군수직 혁신준비위원회 활동과 정책 제언

Ⅰ. 인수위원회 구성과 분과별 활동내역

Ⅱ. 정책 제언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백서

제1장 인수위원회 구성과 분과별 활동내역

민선 8기 혁신영암 준비위원회는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암의 현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군정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전문성 위주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설치되었다.

민선 8기 혁신영암 준비위원회는 6월 8일 영암종합운동장에서 우승희 영암군수 당선인과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행사를 가졌으며, 현판식 행사 후 당선인은 류재민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분과별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성공적인 준비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사 25인을 자문위원으로 인선하였으며, 이 외에도 온라인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영암군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영암군민 누구나 직접 준비위원회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민선 8기 군정 과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민선 8기 혁신영암준비위원회는 미래경제분과, 창의문화관광분과, 기획재정복지분과, 행복도시분과 등 총 4개 분과, 15인으로 구성되어 3주간 활동하였다.

1. 미래경제분과

미래경제분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영암 건설을 위한 시작이라는 인식에 출발하였다. 미래경제분과는 류재민(전 동강대 총장) 위원장, 김 탁(전남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전무) 위원, 최용선(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위원, 박지수(전 시종농민회장) 위원, 이재우(전남대 강사)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미래경제 분야의 군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투자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분과별 담당 부서 실무 협의 및 주요 시설 현장 방문(LS풍력발전소, 신활력플러스사업 현장, 청년창업몰, 대불주거단지 지중화사업, 영암통합RPC), 주요 이슈별 또는 이해집단과 간담회, 준비위원과 담당 공무원들 간의 수시 토론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업무보고 시 소형항공기 클러스터구축 사업, 대불산단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경축순환농업 추진,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사업, 산림사업 등과 관련하여 43건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언을 하였으며, 청년정책 통합운영 방안, 대불산단 산업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 탄소중립 정책, 농축산물 유통 및 가공 지원 사업 등 전반에 관해 관련 실과소 업무담당자들과 7회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민선 8기 정책 공약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신활력플러스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농식품 선순환 플랫폼구축 및 소비자연계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등 영암군 6차 미래산업에 대해 현장 토론하고 영암 브랜드 쌀 품질향상을 위해 영암통합RPC 방문하여 현재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경제 투자 분야에 있어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부정적 여론, 에너지 대전환시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 중소기업의 고용위기 현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잦은 폐업과 경쟁력 저하, 소규모·오프라인·입점·가맹점 사업자의 대응력 저하, 청년 일자리, 프랜차이즈 제도 개선 방안 등 지역경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농림축산분야에 대해 농축업인의 소득 안정화 방안,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청년 농 육성, 농축산물 고급 브랜드화 및 마케팅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환,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자료 검토 등 문제점 및 대안을 협의하였다.

현안사업과 관련한 사안으로 훈련용 항공기 개발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영암군과 세한대를 포함한 5개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설투자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항공산업 확대에 따른 인력의 필요성으로 인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학에서는 교육 시설의 확보로 학생 충원에는 유리하나 영암군이 기대하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해당 기관의 실질적인 투자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경운대 유치에서 경험했듯이 교직원도 인근 도심에서 출퇴근하여 영암의 직접적인 인구 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던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의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지자체의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창의문화관광분과

창의문화관광분과는 당선인이 강조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과 홍보마케팅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창의문화관광분과는 박태홍(전 영암군청 기획감사실장) 위원, 이희승(호남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위원, 강유신(전 전남도의회 교육위 의정 지원)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창의문화관광분과에서는 3개 담당 실과소(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업무보고를 통해 자료요청 22건, 제안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건의 24건을 제시하였다. 각 위원들은 SNS서포터즈 운영진 모집, 구성 현황자료, 관내 골프장 지역주민 할인 현황 관련자료 등 22건에 대해 자료 요청하였으며 도선국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로 도선국사 예술제에 대한 행사 확대 및 필요성, 명사 탐방로 개설 후 국보 마애여래좌상 참배공간 확충, 문화재단의 시설관리가 아닌 콘텐츠 개발, 예술사업, 인력양성 등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제안 등 총 24건에 대해 건의하였다. 또한,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현장 4개소를 방문한 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안하고자 분과별 회의를 5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별 활동 보고회를 통하여 4건(영암읍 월출산스테이션F 조성사업,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 트로트 아카데미,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의 현안사업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의견 및 제안하였으며,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지역축제에 대하여도 문화재단의 실질적인 기능 확대 및 지역축제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분과 활동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팀장 중심으로 실무 간담회를 통해 업무추진시 실무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문화관광분야 19건, 홍보체육분야 3건의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하여도 실무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다.

창의문화관광분과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월출산 달빛축제 개최, 영암관광문화재단 설립, 한석봉, 천자문, 왕인, 도선 등 콘텐츠화, 문화예술회관 건립(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영보정 • 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평화의 고장 영암(구림, 기독교 성지 등) 마케팅, 양달사 등 의병 역사 발굴 및 지역 관광 자원화, 월출산 암자 및 석불 관광 자

원화, 대동공장 부지 관광 자원화 추진, 마한축제 통합, 생태관광체험 문화브랜드 육성, 영암읍성 복원, 군민의 강 조성,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삼호읍 작은도서관 개관, 나불도 활성화, 삼호읍 문화예술테마파크(영화촬영장) 유치, 구림관광문화특구 조성, 마한역사문화관광 활성화(시종면), 스포츠가치센터 유치(영암읍),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영암읍), 은적산 산악자전거코스 설치(서호면) 등 총 22건으로 임기 내 완료, 임기 내 착수, 임기 내 기반조성, 추진 불가능 사업, 다른 공약과 통합 추진 등으로 구분하여 공약사항 추진 가능 사항 등을 실무진과 협의하고 제언하는 등 깊이 있는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4개 사업(영암읍 월출산스테이션 F 조성사업,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 트로트 아카데미,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현장을 분과 위원들이 직접 방문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검토 분석을 통해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3. 기획재정복지분과

기획재정복지분과에서는 당선인의 “청년이 없다면 영암도 없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업무보고, 현장 방문, 실무부서와의 수시회의, 활동 보고회 등을 진행하였다. 기획재정복지분과는 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위원, 조민성(국가균형발전위 전문위원) 위원, 박건영(사회복지학 박사) 위원, 이혜숙(전 영암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현재 영암군이 당면해있는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대응으로 조직 진단 및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영암군이 수립한 청년지원 기본계획이 청년 실태분석을 기초로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시행, 일자리 안심 공제 시행, 청년주택 및 마을 조성 등 청년들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이고 강도 높게 정책으로 시행하여 영암의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으로 마련하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실무부서와의 수시회의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필

요한 가용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업무보고회에서는 지역소멸의 극복을 위한 영암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스위스 브베, 네덜란드, 바헤닝언, 스웨덴 말뫼 등 영암이 참고할 만한 창조력 있는 혁신 세계도시를 소개하였으며, 영암의 혁신 시작으로 달맞이꽃, 남생이를 활용한 브랜드 론칭과 주민투표를 정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풀뿌리 시민주권도시 영암을 제안하였다. 면밀한 재정진단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잉여금을 줄이고, 시책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여유 재원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해 공약 이행과 영암 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 행복도시분과

행복도시분과에서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 주민의 일상이 행복한 영암”이라는 비전 아래 우승희 당선인의 혁신영암 건설을 위한 핵심사업인 공약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된 활동 목표로 삼았다.

행복도시분과는 신은주(두다연구소 대표), 박대현(세한대 교수), 김보현(전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위원으로 구성하였고 분과의 담당부서는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이다.

행복도시분과는 먼저 당선인이 발표한 153개의 공약을 해당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이행계획 수립 상황을 파악하고 부서별 현행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이때, 청년정책에 대한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업무가 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영암 공공도서관 신축이설 부지의 경우 접근성과 공간혁신 디자인을 고려해 부지를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6월 21일에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신촌저수지, 대불주거단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현대삼호공영주차장 중단 부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대상 부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 상황과 문제점·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최종 업무보고회 발표에서는 역사·문화·관광, 산업·경제, 생활·복지 분야

의 영암형 핵심사업 모델을 제시하였고, 특히 광역협력을 통해 전남 서남권 관광 개발이라는 비수도권 초광역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핵심사업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영암의 조직이 혁신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행정·전문가·민간과의 협업과 협치의 일상화를 위해 서비스디자인(리빙랩) 과정을 도입하도록 요청하였다.

제2장 정책제언

1. 미래경제분과 | 탄소중립 이행을 중심으로

Ⅰ. 탄소중립 흐름

'1.5℃ 특별보고서'를 계기로 기후위기 인식이 고조되며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노력이 되었다. UN IPCC 6차 보고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면, 21세기 말 지구 기온상승을 1.5℃ 이하 묶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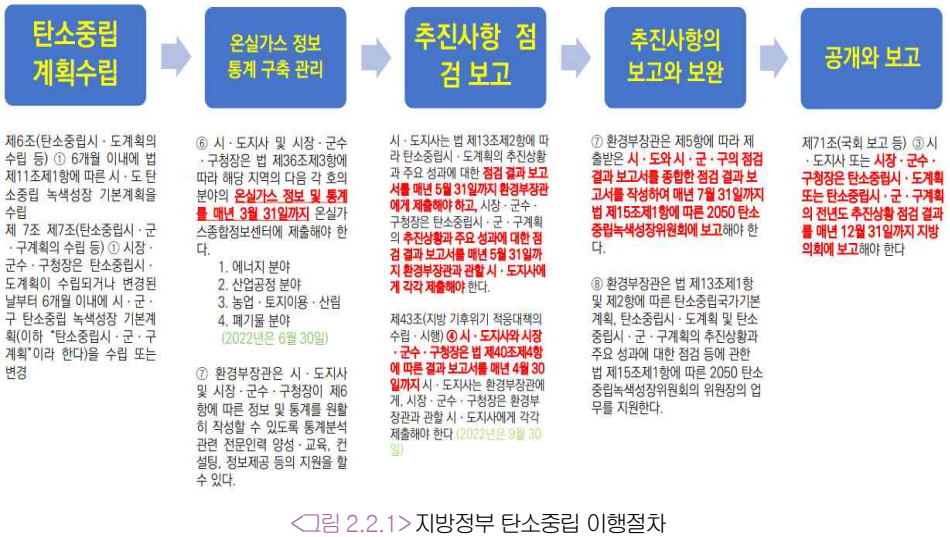
EU와 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 등 탄소중립 규제는 새로운 脫 탄소 경제 질서로의 재편을 촉진 중이다.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의 RE100 선언, ESG 투자 확대 등 민간의 탄소중립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다. 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였다. 2030년 NDC를 20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기존 △26.3%(△191.5백만톤) 감축에서 △40%(291백만톤)로 감축량을 상향하였으며, 이에 앞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법 제8조 제1항)을 명시하였다.

II. 탄소중립과 지방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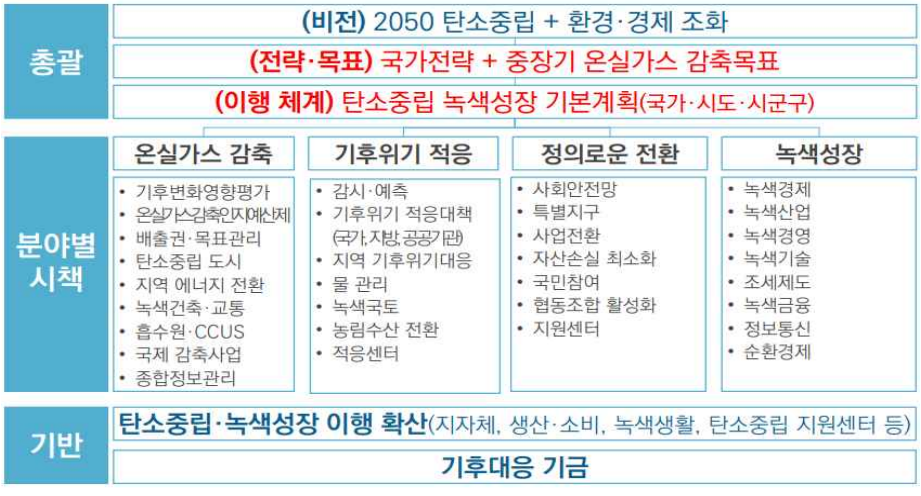
윤석렬 정부도 탄소중립에 대해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해 2030 NDC 계획 준수를 약속(윤석열 정부의 86번째 과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하였다. 글로벌 탈탄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녹색산업·기술을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추진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탄소 중립 이행방안 조정과 관련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CD)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 수단을 마련하여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23. 3월)

다만,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2022년 3분기⇒2023년 3월)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평가도 늦어질 계획이다.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 계획을 수립한다. 시·도,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로 제출하고, 환경부는 종합하여 탄소중립위원회에 보고하고 기본계획 최초 수립 시는 1년 이내이다. (법 부칙 제3조)



<그림 2.2.1> 지방정부 탄소중립 이행절차

앞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의 정책 방향과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해짐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이행계획 수립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2.2.2> 탄소중립 분야별 시책

반면, 탄소중립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기초지자체는 열악한 현실이다. 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의지·자원이 부족하고 정부사업 매칭이 부담스럽고 재난지원금 지출예산 등의 예산 장벽, 거버넌스 역량 부족,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부족 등 기초지자체가 현재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다양하고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부족, 지자체 각종 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개발사업 포함,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 부족, 중앙정부 예산 지원, 공모사업에 의존, 재생 에너지 목표 부족,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부족, 지역 일자리 확대와의 연계성 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III. 영암군 현실

탄소중립 인프라와 관련하여 영암군 탄소 중립기본계획이 미수립되었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도 미제정된 상태다. 전국 45개 지자체가 참여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도 미참여한 상황이다. (전남의 경우, 순천시와 담양군 참여) 다행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영암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과제'의 입찰이 진행('22. 5) 중이다.

추진조직 면에서 보면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전담조직이 없고, 환경보전과(기후변화 대응관리), 투자경제과(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종합민원과(신재생에너지 인허가)에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통합적 관리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현재 영암군 내 사업개시(상업운전)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1,347건으로 총 발전용량은 444MW 규모이다.

<표 2.2.1> 영암군 내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사업개시(상업운전) 현황('22. 6월 기준)

(단위 : kW, 건수)

계		1,000kW 미만		1,000kW ~ 3,000kW		3,000kW 이상	
건수	용량	건수	용량	건수	용량	건수	용량
1,347	444,445	1,326	289,797	11	24,043	10	163,400

출처 : 영암군 제출 자료

이 가운데 영암군에서 2014년부터 2022년 6월 현재까지 발전허가 건수는 2,436건이나, 발전소 사업개시(개발행위 준공 완료) 1,366건, 발전소 사업 미개시 1,070건이다. (개발행위 접수 16건, 개발행위 미접수 또는 준공 후 사업 미개시 1,054건) 이는 영암군에서 제출한 기초자료 사이에 숫자 오기 혹은 데이터 오류로 추정된다. 발전허가는 났으나 발전이 미개시된 1,070건 가운데 2년 이상 장기간 보류된 건수도 679건에 달한다. (평균 51개월 이상)

<표 2.2.2> 개발행위 허가 이후 사업개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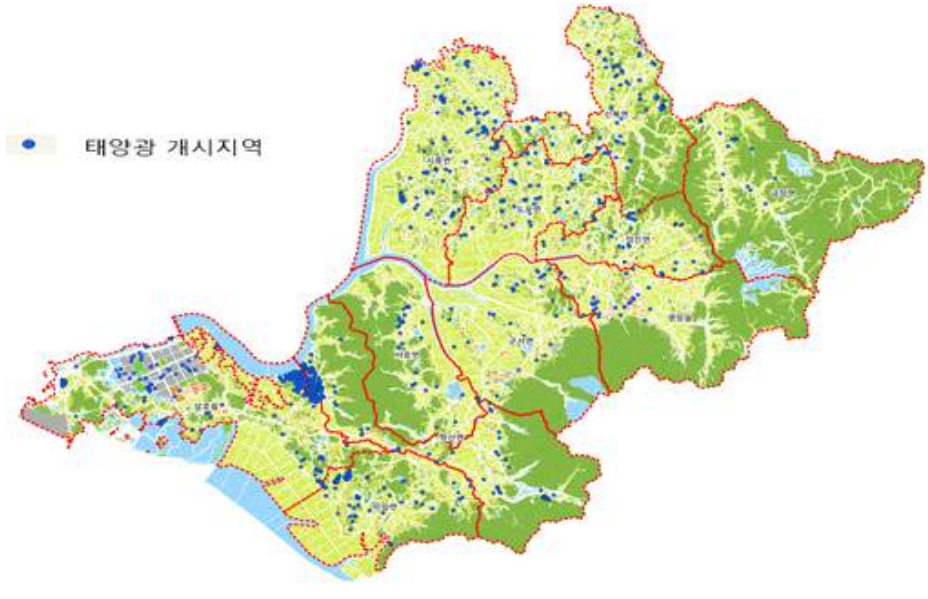
읍면	건수	발전용량 (kW)	발전사업 허가연도			
			2014 이전	2014-2016	2017-2019	2020-
계	1,366	262,411	29	429	707	201
영암읍	25	2,783	1	7	11	6
삼호읍	336	75,180	-	114	147	75
덕진면	50	10,362	9	4	26	11
금정면	27	2,570	-	3	24	-
신북면	156	27,404	3	60	86	7
시종면	222	49,682	2	26	181	13
도포면	73	20,899	7	21	35	10
군서면	40	4,845	1	6	14	19
서호면	31	4,458	2	11	6	12
학산면	120	20,064	4	43	67	6
미암면	286	44,165	-	134	110	42

<표 2.2.3>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아 개시되지 못한 건수

읍면	건수	발전용량 (kW)	발전사업 허가연도			
			2014 이전	2014-2016	2017-2019	2020-
계	1,070	248,900	5	17	634	414
영암읍	21	5,385	-	-	3	18
삼호읍	212	63,420	1	-	73	138
덕진면	47	8,035	-	1	25	21
금정면	42	9,984	-	-	40	2
신북면	170	39,553	1	-	124	45

읍면	건수	발전용량 (kW)	발전사업 허가연도			
			2014 이전	2014-2016	2017-2019	2020-
시종면	201	39,536	2	1	153	45
도포면	107	20,919	1	2	73	31
군서면	81	12,351	-	3	32	46
서호면	25	8,290	-	-	14	11
학산면	79	17,767	-	2	43	34
미암면	85	23,660	-	8	54	23

출처 : 영암군 제출 자료 재분석



<그림 2.2.3> 태양광 개시지역 ARcGIS 지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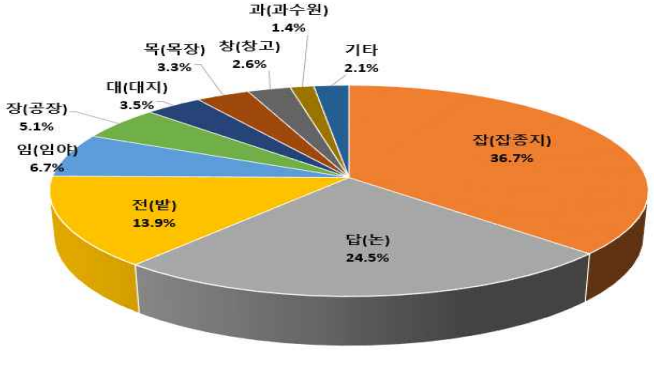
출처 : 영암군 제출 자료 재분석 뒤, ARC GIS로 지도화

<그림 2.2.4> 태양광 개시지역 ARcGIS 지도화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태양광 개시지역 및 미개시지역이 시종, 삼호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전허가 건수 2,436건 가운데 잡종지가 36.7%, 답 24.5%, 전 13.9%, 임야 6.7%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4> 전기사업 발전허가 토지의 지목별 비율



출처 : 영암군 제출 자료 재분석

영암에서도 사업자 위주의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무리한 진행으로 곳곳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 예로 주민 20여 명, 영암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반발해 개발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8년 2월에 영암군이 패소한 사례도 있다. 영암군에서 설비용량 999.6kW, 99, 9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에게 개발행위 허가하였는데 재판부는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 합리적 판단 없이 처분하는 등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민의 손을 들어 주었다.

태양광 갈등과 관련 각 주체별 입장차도 상이하다. 지역주민·농민은 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업자들이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다며, 먼저 동의 얻어야 한다. 태양광은 농지를 잠식, 경관을 파괴하고 이득은 외지인 또는 대기업이 다 가지고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동의를 누구에게 어디까지 얻어야 하는 거냐, 입지규제가 너무 심해서 태양광사업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과도하다. 결국, 보상금이라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태양광 민원 너무 많고 괴롭다.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인원은 부족하다. 지자체장도 태양광 하면 부정적이다. 이격거리 규제 두는 것은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다는 측면과 태양광 말도 꺼내지 마라며 불편한 속내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3020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필요하므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계획입지, 주민참여 이익공유 방식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농식품 산업도 기후 및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고투입 농법, 가축분뇨 문제, 농업분야 에너지 소비 확대 등은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료사용량은 ’10년에 232kg/ha에서 ’19년 262kg/ha로 증가하였다. (질소 수지 OECD 평균의 3.4배, 인은 8.6배)

특히, 영암군은 가축사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가축분뇨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육)우 60,250두, 젖소 3,300두, 돼지 76,700두 등을 사육 중이다.

Ⅳ. 민선 8기 영암군 탄소중립 추진 방향 제언

현재 전 세계 배출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발생한다. 에너지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7%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NDC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영암군의 경우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심 이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평가되며 영암군 탄소중립 업무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 과제를 제시한다.

① (탄소중립 핵심 의제화) 탄소중립 전담조직 지정 및 연계성 강화, 타 지자체와 연대 강화

영암군 의회와 협력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과 연계한 탄소중립 목표를 조례로 제정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핵심 의제화한다. 흩어져 있는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전담체계 구성하고 거버넌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축, 자치단체 내 전담체계(탄소중립이행책임관, 전담조직) 강화, 중간지원 조직(탄소중립 지원센터)을 설립한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지자체장이 설립 또는 지정하며, 지역기본계획·적응대책 수립 및 통계산정 지원,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 개발, 주민 이익공유 사업주도, 주민교육·캠페인 등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가 등 6~8명 내외로 구성한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등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전 세계 지방정부와 국제적 협력 및 정보를 공유한다.

②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배출량 인벤토리(Inventory) 구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발생량 및 부분별 현황 데이터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탄소배출량 인벤토리 및 공

공데이터 기반 플랫폼구축도 필요하다. 배출원과 배출패턴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 수집관리 기준 마련하고 지자체별 Raw Data의 관리기준과 다른 단위에 대한 호환 및 관리를 위한 통합기준과 보정계수 개발이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은 정확한 탄소배출량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지자체 탄소중립계획 수립, 총량관리와 저감계획, 매해 이행점검, 성과평가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확대) 신재생에너지 공공주도 개발 확대 →유휴·공공용지 활용 증대

정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 수요 중심,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지자체 중심의 자발적 확산이 목표이다.

<표 2.2.5> 기존계획 대비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

기존 계획(1~4차)		제5차 계획(2020~2034)
신재생에너지 양적 확대에 중점, 계통 안정성 등 감안 부족	⇒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공급·의무화 측면에 중점 (RPS, FIT 등)	⇒	수요·자발적 확산 보완 (RE100, 자가용 촉진 등)
신에너지(수소분야)에 대한 고려 미흡	⇒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포함

+ (추가) 탄소중립 시대의 도전과제
❶ 획기적 잠재량 확충·개발방식 혁신 ❷ 기술한계 돌파 ❸ 전력계통 대전환 ❹ 그린수소 확대 및 에너지시스템 통합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도로·하천·공유수면·공원 등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유휴 부지를 발굴해 적정규모 이상 태양광 확대를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 종합운동장·체육관, 행정복지센터,

놀이터, 공원, 공영주차장, 마을회관, 배수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공공부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해야 한다.

영암군민 참여 '협동조합 햇빛발전소' 등 이익공유형 모델(공약)을 접목한 예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2.5> 협동조합형, 시민참여 펀드형 모델 예시

마을주민 주도로 지붕, 공용부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 후 이익 공유 추진을 장려한다. 마을단위 'RE100' 에너지자립 및 전환마을(공약)을 추진한다.

대불산단을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 특구로 육성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공약)를 실현한다. 정부는 전력 다소비 사업자에 대해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 부과토록 추진할 예정('23년)이다. 대규모 택지·도시개발 사업자, 전력 다소비 업자 입지 시 태양광·연료전지 등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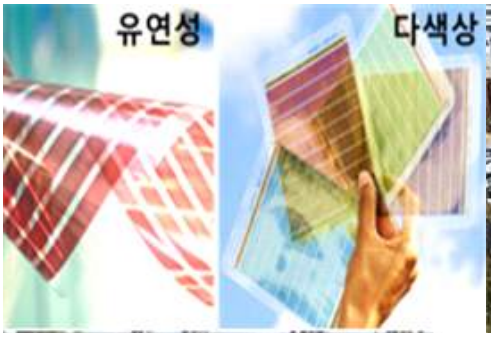
④ (도시계획·재생사업과 연계) 탄소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확산 추진

소규모 공공장소에 솔라트리, 솔라벤치, 태양광 버스스테이션 등을 설치해 생활 속 체감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컬러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을 추진한다.

솔라트리/벤치

태양광 버스스테이션

컬러 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그림 2.2.6>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모델예시

영암군 주도 신규 공공건축(공공도서관 등) 건립 시 RE100을 추진(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하고 타운하우스 등 신규 주택단지 건립 시, RE100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및 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부터 1,000㎡ 이상 건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0년에는 500㎡ 이상 민간 건물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확대될 예정이다.

⑤ (중간지원조직 설립) 탄소중립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증대를 위한 영암에너지센터 설립(공약)

현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확산· 심화되는 지역 에너지 갈등의 해결· 예방·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각종 에너지분야 지원금의 효율적 활용 전략 마련, 에너지분야 지역 지원사업의 위탁·관리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기획, 에너지 분야 교육·홍보 및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12개 지자체가 지역에너지 센터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확산을 위해 '21년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22년에도 지원 대상을 총 5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6>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 주요 내역

구 분	2021년	2022년
예 산	25억원(에특회계)	50억원(기후위기대응기금)
지원대상	20개 기초지자체	50개 기초지자체
지원조건	지자체당 국비 1억원 / 국비·지방비 1:1 매칭 (인건비 사용 제외)	
주요기능	‣ (정책·사업 기획)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지역 에너지사업 기획 등 ‣ (사업 운영)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 사업집행·모니터링, 지역에너지 통계 관리 등 ‣ (주민참여·소통) 주민 교육 및 홍보, 갈등 해결·예방·관리 등	

⑥ (RE100 시설농업 추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시설농업은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설원예 농가의 에너지 사용 현황 DB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도 적용한다. 시설원예 가온면적의 81.6%에서 석유류를 사용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가온방식('19)은 석유류 81.6%, 전기 9.0%, 재생에너지 5.2%(목재펠릿 3.7%, 지열 1.5%)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순환모델과 연계한 온실단지 입지선정 등 최적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RE100 등 재생에너지원 활용과 연계하여 전기난방시설 보급해야 한다.

⑦ (바이오메스 사업 추진)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추진

기존 퇴·액비화 시설의 바이오가스 연계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을 추진(농림부, 환경부 공모사업과 연계)한다. 에너지화 시설과 지역주민 및 농업시설(스마트팜 등)과의 접목을 통해 상생모델을 접목(지역 농협과 연계)만들어야 한다.

1. 미래경제분과 |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Ⅰ.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농업소득 증대

2021년 기준 농업부문 매출은 7,500억원으로 추정된다. "더! 크게, 더! 젊게"라는 캐치 프레이즈처럼 민선 8기에서 영암농업의 총매출 1조원을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정주여건 기반조성 통한 인구 유입이 절실하다. 소규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적재적소의 농업정책,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농업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①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70억원(국비 49, 군비 21)으로 진행된다. 농특산물품질기반 관리조성(작목별 생산자 조직화, 공유 선별 물류시스템), 농식품 선순환 플랫폼 구축(공유 가공센터, 공유 로컬푸드 판매장, 공유

스튜디오, 커뮤니티센터), 소비처 연계형 유통 활성화(대량 소비처 연계형 상품 개발, 비대면 유통 사업 지원, 온택트 마케팅 지원), 농촌관광 콘텐츠 강화(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농촌관광 DIY 패키지 사업), 신활력 추진 혁신체계 구축(신활력플러스추진단 운영, 신활력거버넌스 구축, 액션그룹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등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다.

영암군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방향은 공유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여 기존 로컬푸드 매장의 운영성과를 검토하고 장보기 성격의 로컬푸드 소비문화를 반영하여 전문 로컬푸드 판매장의 이익창출 가능성을 검토한다. 가공·유통거점 역할을 통해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농의 소규모 생산판매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농가의 자가선별을 인한 농산물 품질관리 미흡 부분의 개선효과를 도출한다. 민선 8기 공약과 연계 추진하여 소농·고령을 위한 기찬장터를 부활하고 로컬푸드 유통망을 확대, 농업유통활동가를 육성한다. 결론적으로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로 소농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판매 시스템 구축으로 청년인구를 유입, 민선 8기 공약을 이행한다.

② 적재적소의 농업정책 추진

<표 2.2.7> 수도작 및 원예특작 예산

구분	수도작 예산 A	원예특작 예산 B	원예특작 예산비율(%) B/A*100
2022년도	49,763백만원	3,310백만원	6.7
2021년도	57,640백만원	4,163백만원	7.2

수도작 예산지원 개선과 영암쌀 유통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금성 지원으로 농가 체감도가 낮고 만족도 또한 미흡하다. 또한, 농협 RPC 통합 및 시설현대화가 필요하다. 비료 등 현물성 농자재 지원 확대, 농협 RPC 통합 운영하여(4개→8개 농협), RPC 시설 규모 확대 및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군비 지원사업의 만족도 제고 및 토양개선, 고품질 영암쌀 유통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원예특작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예산의 수도작 편중, 시설 위주의

원예특작 예산을 지원하고 원예특작물 연작피해 예방 및 토양개량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품질 원예특작물 생산 지원으로 소득창출 및 청년농을 유입시켜야 한다.

청년농(창업농, 2세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농 유입 후 정착을 위한 전반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청년농 교육 및 기술보급, 컨설팅, 정착지원, 소득창출의 단계적 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청년농 육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

③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강화

해남 배추는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절임배추 및 김치 홍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해남미소' 농산물 쇼핑몰을 활성화하고 있다. 고창 황토수박도 고당도·명품수박 브랜드화하여 수박축제를 개최하는 등 '높을고을'이라는 통합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영암군의 농축산물을 전국적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유통·판매 마케팅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찬들 영암몰 마케팅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SNS 할인안내 등 소비자 사후관리를 개선하고 군에서 상품의 포장 및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인증농가에 디자인개발지원금 지원으로 농가가 참여하고, 쇼핑몰의 활성화로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통합브랜드 및 상품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통합하고 지역명을 사용하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 통합브랜드의 상품 포장디지인을 개발하고 유통·물류비용(택배비, 박스 등)의 지원을 확대, 통합브랜드 사용으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Ⅱ. 축산농업과 경종농업 상생전략 수립

① 유기질 퇴비 순환구조 마련

친환경농업 유기질 축산 퇴비 사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기농-친환경 단지

의 지력 향상 우선 사업을 전개한다면 영암군 달맞이 쌀의 고품질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현 유기질 퇴비 사업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축산 퇴비를 유기질 비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소규모 지역단위 가공장 설립하고 영암군 중앙단위로 무항생제 인증 농가 퇴비를 친환경 단지에 살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유기질 퇴비를 전천후 살포 가능한 펠렛(펠렛화: 부피 감소, 살포 용이, 보관 용이 등) 성형공장 설립이(하수종말처리장 인근)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퇴비 자연순환사업에 대한 친환경농업과와 축산과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TF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조사료 생산 및 유통의 투명성 제고

군비가 투입된 양질의 조사료의 관내 활용도 증가방안을 제시한다. 동·하계 생산량은 82,608톤(2021년)으로 이 정도 생산량은 영암지역 대가축(소) 번식우 43,313두가 264일 섭취할 수 있는 물량이다. 위 양질의 조사료는 고수분이라는 특성상 랩 개봉 후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 양질의 조사료 공급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해야 하나 조사료 가공장비의 부족으로 관외 반출의 빌미가 되고 있다.(관내 생산량의 50~70%는 관외로 반출로 추정)

군비가 투입된 양질의 조사료 관내 활용도 증가방안 두 번째는 관내 소비량 증가방안 및 생산량 정량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 및 시간제 인력 활용방안이다. 동·하계 조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익년에 급여하고자 하는 물량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고 자가 생산량 잉여시 생산량을 공유, 신청 축산농가에 근거리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③ 우사 신축규제 완화 조례 개정

축사 허가조건에 대해 영암군과 나주시를 비교해 보면 영암군 조례 제20조의 5(축사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나주시는 별표 1의 4 6. '축사 허가기준 가에서

우량농지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영암군 축사 허가조건 조례는 축산업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과도한 제한 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④ 축산시장 규모에 맞는 예산 증액

영암군의 농업 업종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21년도 기준 축산업이 3,904억원으로 52%, 경종농업이 3,492억원으로 46.5%, 임산업이 110억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액의 경우 2022년 1차 추경을 기준으로 축산과에 244억원으로 19.2%, 친환경농업과에 829억원으로 65.2%, 산림해양과에 198억원으로 15.6%로 배정되어 있다.

III. "지속 가능한 농업생명산업 일번지"

영암군 농업의 지속가능 산업으로 육성 유지하기 위하여, 청년의 정주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청년 농업인의 수익 보존 및 창출을 위한 행정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행정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산림해양과)에서는 농업부분 상생 공약에 맞춰 상호간에 업무공유 및 필요에 따라 업무분장, TF팀까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은 축산업에서 전담하고, 이를 활용한 경종농업 및 산림농업에서는 생산물 품질향상을 꾀 할 필요가 있다. 위 모든 경제행위의 기본적 기술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조건일 것이다.

2. 창의문화관광분과

Ⅰ. 남도역사관광 생태관광 거점, 다시 찾는 영암관광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의 4대 사업 중 경쟁력 분석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과,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을 통해 노후화 시설 개보수 및 주 타겟 고려한 수요

자 맞춤 시설 설치, 전문가(전문기관) 위탁 및 지속가능한 운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사업과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의 이해관계자와 논의 후 의견수렴 문제,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 확대 및 업무 개편에 대해 검토하였고 지역축제 운영에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II. 현안사업 검토

①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

전국 관광명소 곳곳에 모노레일 붐이 일고 있다. 몇 해 전까지 출렁다리와 짚라인, 케이블카, 모노레일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던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저렴한 모노레일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모노레일 설치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치 비용 및 환경 생태계 훼손의 우려로 주민이 반기를 든 지역도 나타나는 만큼 이해관계자 집단인 지역주민,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수익성 및 관리) 측면에서 운영 주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노레일 설치비용의 경우 케이블카에 비해 60%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레일에 전기선을 깔아 동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며, 최근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 모노레일과 수소 동력도 가능하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관점에서 '보편적 관광권을 제공하자'는 무장애 관광으로 인식이 변화하면서 모노레일 설치가 붐을 이루고, 모노레일을 비롯한 짚라인,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시각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 차별화되지 않은 관광시설은 단기간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선택과 집중,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열기구 삭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 1번 출발점은 정상까지 길이를 연장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운영방식에 있어 직영, 민간 위탁, 공단 설립 등 다각적 차원에서 장·단점 비교, 분석 후 검토가 필요하다.

②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

기찬랜드 개장 15년이 경과함에 따라 야외공연장 노후화와 경쟁력 확보(미관 등)를 위한 미관 조성 논의가 필요하다. 기찬랜드의 주 고객인 가족 단위 방문객임을 고려할 때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아이 동반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 증대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시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야외공연장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으며 조명시설 설치를 통해 주·야간 다양한 문화행사의 추진이 가능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기찬랜드 내 노후화된 가로등을 교체하여 야간방문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한 관광지로써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새로운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해 차량 통행 구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가족동반 방문객들의 체류시간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무더위를 대비하여 그늘막, 휴게시설이 보완되어야 한다.

③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2019년 개관된 트로트 센터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트로트 가수를 양성하고 K-트로트의 명품화와 세계화를 위한 핵심거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어 본 시설 활용도와 트로트 센터와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트로트 센터를 지어놓은 지 수년 동안 제대로 활용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건축물)만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것은 운영에 있어 추가적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시설인 트로트 센터나 트로트 아카데미 모두 하드웨어 구축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즉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음악의 영역을 트로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④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씨름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 갈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민속씨름단 훈련장 신축문제는 인수과정과 운영현황 등이 우선적으로 파악되고 대처해야 한다.

씨름훈련장과 생활문화센터 내 배치될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후된 영암군 민속씨름단 훈련장 신축을 통하여 쾌적한 씨름 훈련장소를 제공은 물론 선수들 경기력 향상 도모와 전지 훈련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기능도 추가되어야 한다.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들이 희망하는 공간 활용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과 아이들의 정서함양 및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간배치가 해변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명칭 또한 “삼호 어울림 다목적(문화체육)센터”로 변경을 권고 한다.

⑤ 영암관광문화재단

영암문화재단은 군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비롯해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본래 취지인 문화예술분야 진흥의 기능을 못 하고 있어 재정비 또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월출산 달빛축제 개최와 한석봉, 천자문, 왕인박사, 도선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과 문화의 콘텐츠화 등 영암 관광의 주요 상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부재한 실정이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 시설 유지·관리의 기능에 치우쳐 있는 기존 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왕인, 도선국가, 한석봉, 천자문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콘텐츠화 및 지역 문화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격상, 업무에 관한확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 문화관광전담조직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배분, 기획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적인 조직문화와 혁신적인 근무 여건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⑥ 지역축제 운영

영암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검토하고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둔 축제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민 관점에서 잦은 축제 개최는 식상하고 주민동원, 재정 출연 등의 부담이 있다. 지역축제 구조조정 시 지역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극복하는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의 경우,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암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황분석이 필요하다. 축제는 주로 관이 담당하고 추진함으로 인해 축제 분야의 전문성이 적은 공무원이 맡게 될 경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차별화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은 양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축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은 예상되며 통폐합 시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향토축제 추진위와 마한축제 추진위의 위원구성 중복성, 추진위 구성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⑦ 기타 제안사항

영암군씨름단은 인수 시기부터 계속된 이견으로 존치 여부와 관련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준비위원회 기간동안 살펴본 결과 단원의 등급산정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어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준이다. 연봉 산정기준표도 2016년 말의 것으로 올해의 계약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향후 주민 여론과 향우 등의 여론을 감안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객관적 판단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까지 씨름단을 유지하되 운영방법에 대한 방안도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

III. 현안사업 세부검토 및 제언

① 월출산 스테이션 F 조성사업

영암 랜드마크인 '월출산'에 집적화된 관광시설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지역 성장 동력 발굴 및 영암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월출산 국립공원을 활용한 레저관광클러스터 구축 및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짚라인의 경우, 1998년 충남 천안시 소재 삼성 에스원 연수원에 최초의 하강레포츠 2설 라인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인 곳은 14개소 정도로 파악되었다. 설치비용 평균 30억~40억 원 정도로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케이블카에 비해 저렴하며, 환경훼손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많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월출산 스테이션 F 효율적 운영에 관한 논의 필요하다.

<표 2.2.8> 주요 지자체 모노레일 운영현황

지자체	운영 현황			
	개통시기	사업비	길이	특징
보은군	2021년	88억원	0.86km	속리산, 구병산, 말티재 조망
통영시	2019년	117억원	2km	통영 앞바다 조망
해남군	2005년	30억원	0.39km	한반도 최남단에서 바라보는 바다전망
정선군	2009년	20억원	0.2km	도심지 모노레일

보은군

통영시

해남군

정선군

<그림 2.2.7> 주요 지자체 짚라인 운영현황

<표 2.2.9> 주요 지자체 모노레일 운영현황

지자체	운영 현황			
	개통시기	사업비	길이	특징
하동군	2017년	33억원	3코스 3.12km	아시아 최장길이
용인시	2014년	10억원	6코스 1.23km	용인자연휴양림, 단거리를 이어가며 탑승
인제군	2010년	9억원	3코스 1.74km	초급, 중급, 상급코스 조성
가평군	2018년	18억	8코스 2.41km	칼봉산자연휴양림 내 조성

하동군 용인시

인제군 가평군

<그림 2.2.8> 주요 지자체 짚라인 운영현황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으로 변화하면서 짚라인, 모노레일 등의 설치를 통해 모험형 관광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려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광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코스 개발이 필요하며, 단순 시설 설치로 접근 시 호기심에 오는 관광객 유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조성 시 생태환경 훼손 및 탄소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환경단체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버관광과 모든 계층의 관광환경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 '무장애(Barrier free)'관광에 관한 논의가 일반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상황을 고려하여 열기구 설치 삭제를 검토하고 짚라인, 모노레일, 트리탑데크 설치에 집중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 위탁운영, 공단 설립 등 3가지 방식이 지닌 장·단점을 검토

후 영암군의 현실을 고려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직영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가 되어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맡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음 반면,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라 전문성 담보하기 어렵고, 시설 운영의 핵심인 현장 인력이 군 단위 지자체의 특성상 공무직이나 계약직 직원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할 시 열악한 근로 여건과 처우로 인한 이직 또는 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 위탁운영의 경우 사업의 주체적 지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하되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일괄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구성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가짐으로 운영 경비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경쟁에 따른 부당 결탁의 문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특성상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지방공단 설립 운영의 경우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지방공단)에 의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직영과 민간 위탁의 장단점을 적절히 균형 있게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초기 설립 등에 있어 재정 부담의 리스크가 있다.

<표 2.2.10> 운영방식 장·단점 분석

운영방식	장점	단점
직영 운영	‣ 별도의 법 개정 필요 없음 ‣ 비용 부분에서의 경쟁력 확보	‣ 공무원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확보 어려움 ‣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으로 인한 잦은 업무 공백 및 이직 발생
민간 위탁운영	‣ 인력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 경비 절감 효과 기대 ‣ 업무 연속성 확보 가능	‣ 부정 결탁 가능성 ‣ 저렴한 공공서비스 제공 한계
지방공단 설립 운영	‣ 직영과 민간 위탁운영의 장점 반영 가능	‣ 설립 등 재정 부담 리스트 존재

② 기찬랜드 빛찬광장 조성

기찬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광장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성수기의 경우 현재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체류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야외공연장 시설 개보수 진행 시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미관상 주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환경 디자인이 경쟁력인 만큼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보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야외공연장 덮개 시설의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아 폐기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날씨 변화로부터 그늘막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검토된다.

현재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규모, 놀이 시설종류 면에서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③ 영암 트로트 아카데미 조성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라는 기존 자원을 기반으로 트로트의 핵심적 문화 콘텐츠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거점을 구축한다.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와 병행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트로트 인재 양성과 트로트의 지역이라는 지역브랜딩을 통해 관광을 차별화한다. 트로트에 한계를 두지 말고 음악과 소리, 퓨전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영암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트로트 센터와 트로트 아카데미(교육 및 기숙사동) 건립이 모두 하드웨어 구축사업에 예산 대부분이 투자되어 소프트웨어(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 유명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발과 운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산업생태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

교육동과 기숙사동 건립을 바탕으로 트로트 가수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며 민간 위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기획사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생태계 공급과 인센티브가 논의되어야 한다.(교육과 산업을 육성시킬 생태계 조성)

음악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마케팅 전략을 과제로 선정하여 다각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양한 음악을 지역만의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영암군이 문화와 음악 도시로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축제를 신규 개발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되어 전남지역 관광 허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목포시의 경우 관광객 증가 추세에 있다. 목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영암으로까지 동선이 연결되도록 홍보가 필요하며 음악에 관한 관심이 세대를 초월하여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음악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④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

영암군 민속씨름단 훈련장 신축을 통하여 쾌적한 운동환경과 훈련장소를 제공하여 선수들 경기력 향상 도모한다. 지역밀착형 복합시설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훈련장 시설 신축을 위해 씨름단 인수과정과 운영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0년 전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씨름단 소속 선수들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로 이어지도록 한 결과를 분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씨름훈련장과 생활문화센터 내 배치될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현재 씨름훈련장과 생활문화센터는 동일 공간 내 두 개의 건물로 구성될 계획이므로 연계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필요하고, “어울림 다목적 센터”로 명칭 변경을 건의한다. 북카페, 학습마루공간 구성은 주 이용층인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희망 수요가 높은 공간으로 하고, 지역주민과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 문화센터를 해변쪽

으로 변경하여 배치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등 다방면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지역민들을 위한 복합시설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2022년 예산 씨름단 운영예산이 2,153백만원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예산이 과다투자 된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

⑤ 영암관광문화재단 설립

영암의 문화와 관광 콘텐츠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영암문화관광 육성 및 주도해야 한다.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시설물 관리 업무를 이원화하여 재단의 주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관광 및 축제를 통한 관광마케팅이 지역 브랜딩에 긍정적 역할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지역관광 진흥과 콘텐츠 개발, DMO역할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문화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 정책 시행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를 구성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관광환경 변화, 관광영역의 확대와 융·복합화, 관광 현장 중심의 정책추진 요구 증대,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다양성 증대 등으로 인해 정책추진체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강진문화관광재단, 함평축제관광재단처럼 관광과 문화를 포괄하는 다양한 명칭으로 관광재단이 설립되어 관광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와 진흥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역 간 경쟁에서 관광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기적인 추진 체계와 제도, 조직, 인력개발 등 노력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 지역관광 진흥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관광 전담조직 설립이 매우 활발하다. 시설 유지·관리의 기능에 치우쳐 있는 기존 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관광 및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개발, 자료수집, 관광마케팅 사업 종합기획, 지역관광 진흥사업과 영암 맞춤형 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과 교류 등 폭넓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표 2.2.11>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현황

지역	명칭	주요업무
전라남도	전남문화재단 (2009.05.)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활동 지원 ‣ 문화향유사업 •문화재 조사·연구
전라남도	전남관광재단 (2021.06.)	‣ 국내외관광객 유치홍보활동 등 관광마케팅 ‣ 관광 신산업 창업지원 등 기업육성 ‣ 관광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영암군	영암문화재단 (2011.06.)	‣ 영암군 문화시설 및 위탁시설 관리·운영 ‣ 문화예술 진흥사업
목포시	목포문화재단 (2006.06.)	‣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운영 ‣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담양군	담양군문화재단 (2014.05.)	‣ 문화도시사업 •담빛사업 추진 ‣ 담빛예술창고 및 해동문화예술촌운영
강진군	강진군문화관광재단 (2014.12.)	‣ 관광객유치 마케팅 사업 •지역관광진흥사업 ‣ 관광체험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 교육 진흥사업
순천시	순천문화재단 (2019.06.)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수립 ‣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문화자원 콘텐츠 발굴
해남군	해남문화관광재단 (2021.09.)	‣ 관광마케팅 등 해남관광활성화 사업 ‣ 관광산업 개발 및 육성(생활관광활성화 사업) ‣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함평군	함평축제관광재단 (2020.09.)	‣ 지역축제 브랜드화 및 활성화

그러나 지역관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 부족한 전문인력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의 문화관광 전담조직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배분, 기획과 경영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 창조적인 조직문화와 혁신적인 근무 여건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조직 확대는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 있고, 자본금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암군에서는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책사업을 요구하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⑥ 지역축제 구조조정

축제를 통한 지역 문화 발굴 및 지역 경제 기여는 공감하나 주민동원, 재정 출연, 축제 차별화 등 관점에서 축제 구조조정에 대한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 홍보하며 지역 특수성(특산품 등)을 살릴 수 있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영암에서도 왕인문화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마한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다. 축제를 즐기는 주 수요층이 MZ세대로 이동하면서 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축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의 경우,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사회와 문화공동체를 연결해주는 화합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음은 물론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과 함께 지역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질적인 성장 없이 양적인 팽창으로는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특성화 및 차별화를 이뤄내지 못한 축제의 경우 지역경제에 부담을 줌은 물론 지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축제 통폐합에 대한 지역민들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축제가 축소되거나 통폐합 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인근 지역과 유사한 축제이거나(마한축제), 특화된 지역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축제의 경우 구조조정을 시행하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 확보를 통한 축제예산 추가 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축제 구조조정 시 전문기관에서 지역축제에 관한 결과를 다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암 축제의 선택과 집중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영암문화재단이 영암문화관광재단(가칭) 또는 영암문화관광축제재단(가칭)으로 조직이 확대된다면, 영암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바탕으로 동

기간 내 개최되는 타지역 축제와의 차별성, 킬러 콘텐츠 확보 여부, 축제 주 참여층 비교를 시행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분석 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타 제안사항

주말에 운행하는 군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영암투어버스 운행이 필요하다. 나주역에서 영암읍 버스터미널, 기찬랜드, 왕인박사유적지, 목포를 순회하는 구간으로 편성하면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출산 스테이션F 사업 중 수익사업에 대해 민자유치 공모가 검토되어야 한다. 축제를 통폐합하여 민간주도의 축제가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찬랜드 지하수 연구개발을 통해 화장품 세안수로 개발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도공, 야공, 목공, 자수공예, 필묵장 등 전통공예촌 조성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찬랜드 내 김창조 사당에서 춘추계 대제를 봉행하고 조훈현기념관과 가야금테마파크를 주말 바둑학교 및 가야금 학교로 운영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영암트로트 아카데미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기금, 운영주체 등 명기하고 설계전 아카데미 운영 세부내용을 확정한 후, 기능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기타 제안으로 도시재생과 연계점을 찾아 문화적 지역재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노후 관광시설 등에 문화예술, 디자인, IT기술 등 문화콘텐츠를 접목시켜 새롭게 재 생시켜야 한다. 폐교, 빈집, 창고, 폐산업시설 등에 스토리를 부여해 매력이 넘치게 만들어야 한다. 영암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발굴 및 개발도 필요하다. 새정부의 관광정책 기조 '여행으로 행복하고 관광으로 발전한다.'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는데 영암의 매력을 찾아서 잘 엮어야 한다. 관광트렌드 중 '치유관광' 벌써부터 뜨겁다.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웰니스 관광을 준비해야 한다. 웰니스 관광산업을 대비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세심한 계획과 고민이 필요하다. 관광홍보는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진화되어야 한다. 유튜브 구독자와 게시된 동영상 갯수가 최하위 수준인 영암군 반성해야 한다.

3. 기획재정복지분과

Ⅰ. 영암의 혁신

① 영암의 가치

영암에서 靈은 24획, 巖은 23획으로 합쳐서 47획이나 되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획수를 가진 곳이 영암이다. 한자에 입구자가 많아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준비위원에 기간 동안 저는 24가지 이상의 보물을 발견했다. 나머지 보물을 찾아서 영암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영암군민의 몫일 것이다.

“남도에 제일가는 그림같은 산이 있으니, 달은 청천에서 뜨지 않고 이 산간에 오르더라.” 김시습(金時習)이 영암을 노래한 시로 월출산과 영암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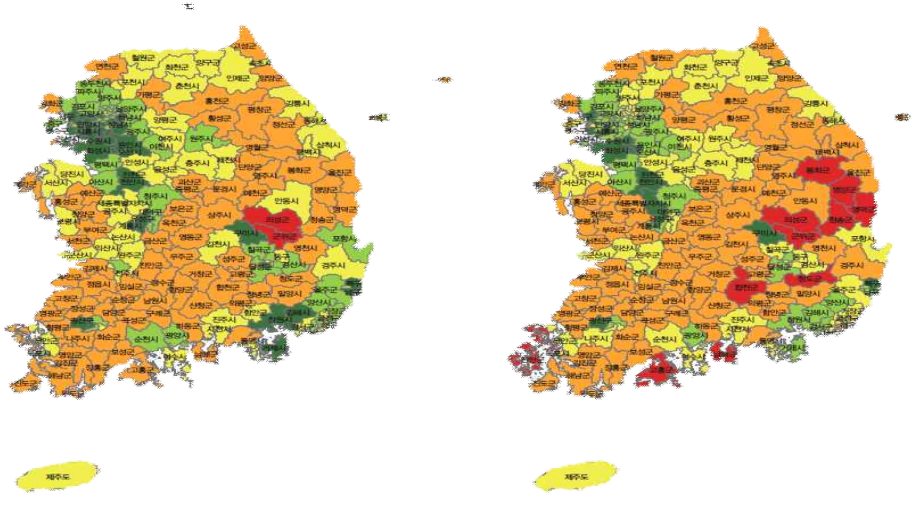
이렇듯 영암의 자랑 아름다운 월출산의 탐방객은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육상국립공원 중 최하위다.

(전국 17개 중 해양국립공원 제외)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북한산	5,955,251	5,518,508	5,574,539	6,561,211	7,362,704
2	지리산	3,067,190	3,308,833	3,005,498	2,669,076	2,864,374
3	무등산	3,513,576	3,143,779	3,155,903	2,452,942	2,399,255
4	계룡산	1,721,735	1,817,602	1,949,660	2,239,068	2,149,164
5	설악산	3,693,991	3,241,484	2,868,098	1,947,361	1,918,390
6	내장산	2,102,467	1,948,616	1,907,905	1,518,415	1,525,174
		⋮	⋮	⋮	⋮	⋮
14	주왕산	1,312,445	1,155,063	1,064,590	600,672	566,556
15	가야산	860,181	672,901	654,682	505,459	495,099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6	태백산	596,676	680,068	676,429	554,403	425,994
17	월출산	508,118	408,930	493,538	328,155	316,813

② 대한민국의 현실 – 지역소멸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 ~ 1.5 미만
주의단계		0.5 ~ 1.0 미만
소멸위험 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 0.5 미만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그림 2.2.9> 주요 지자체 짚라인 운영현황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 높은 지역 20곳 중 영암이 다행히 벗어났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전북 임실군 0.225, 전남 진도군 0.223, 충남 청양군 0.221, 충북 괴산군

0.219, 충남 서천군 0.210, 경남 의령군 0.209, 경남 산청군 0.205, 전남 보성군 0.200, 전남 신안군 0.198, 경북 영덕군 0.198, 경북 봉화군 0.197, 경북 청도군 0.194, 경북 영양군 0.187, 경북 청송군 0.184, 경남 남해군 0.179, 경남 합천군 0.171, 경북 군위군 0.169, 전남 고흥군 0.161, 경북 의성군 0.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226개 지역 중 89개의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지역의 소멸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암군 또한 혁신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③ 영암이 참고할 만한 창조력 있는 혁신도시

영암과 인구가 비슷한 작은 도시 중에 세계적인 도시가 많이 있다. 인구 2만의 도시 브베(Vevey)는 네슬레(Nestle)라는 글로벌기업의 본사로 네슬레는 시가총액이 약 350조 원에 달하는 기업이다. 또 인구 3만 6천명의 네델란드 도시 바헤닝언의 Food Valley는 연간 매출이 66조 원이나 되는 대기업으로 네덜란드 GDP의 10%나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인구 7만의 칸느(Cannes)는 매해 5월에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이는 칸느 영화제로 알려져 있다. 인구 14만 명의 나파(Napa)는 와인 수출액 1조 6천억 원, 관광수익 약 6천억 원의 도시이며 스웨덴 말뫼는 조선소 폐업과 기록적 실업률을 극복하고 청년과 벤처기업이 찾는 도시로 변모했다. 스페인 빌바오는 실업률이 25%에 달했지만 이런 쇠락의 도시를 미술관과 문화산업으로 재건하였다.

네슬레(Nestle) 글로벌 시가총액 약 350조 원의 기업으로 2021년 현재시가총액 기준 22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코카콜라는 37위 수준이다. 브베 규모는 면적이 2.38km², 네슬레 근무 인력은 5천 명으로 브베시 인구의 25%에 달한다. 브베에는 본사, 연구LAB, 식품 박물관 알리망타리움, 방문 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155년 동안 고향을 지킨 네슬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은 도시에서 본사를 운영하는 일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네슬레가 스위스 시장에서 얻는 이익은 전 세계 매출의 1.5%에 불과하다”

인구 3만 6천의 도시, 네덜란드 바헤닝언의 “Food Valley”의 종사자는 2만 명으로서 그 중 R&D에 1만 5천여 명, 박사가 1,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매출액은 66조 원으로 네덜란드의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개의 연구소, 70

개의 과학기업, 1,440의 식품 관련 기업이 있다. 관련 기업들로 인하여 채소생산량은 28% 증대하였고, 에너지사용량은 6% 감소, 살충제 사용량은 9% 감소, 비료 사용량은 29% 감소하였다.

"친환경도시"로 비전 설정하고 혁신에 성공한 스웨덴 말뫼, 조선소가 문을 닫고 실업률이 22%까지 치솟았던 도시가 청년과 벤처기업이 찾는 젊음과 혁신의 도시로 전환되었다. 시민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시민과 함께 도시 비전을 구상하여 'Malmo2000'이라는 계획에 담았다. "전환의 과정에서 시민 중 누구도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는 배제되었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참여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시민의 생각이 전환의 가장 큰 동력이다"라는 일마 리팔루 전 시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 결정으로 '친환경도시'로 도시 비전을 채택하였으며, 지역 대학을 설립하고 지식기반 산업을 유치하였다.

폐기물로 뒤덮인 폐공장과 오염된 강이 흐르는 실업률 25%의 쇠락 도시 빌바오는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전환되면서 도시재생의 신화를 썼다. '빌바오의 기적' 구겐하임 미술관은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 합동연구소 '빌바오 메트로폴리-30'가 도시 비전을 제시하였고, 사업타당성을 판단하는 재생사업 초기에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표출하였으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는 '빌바오 메트로폴리-30'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모두의 이익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관광객 유치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 도시재생의 목표"라는 설명에서 성공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사례는 있는데 거창군 승강기밸리다. 1단지 24개 업체가 가동 중이고, 600명 고용에 매출이 2,000여 억 원에 달한다. 완성체 업체 4개사가 연간 1,300여 대 완제품을 제작 생산하고 2단지는 9개 기업을 유치, 입주계약 되었고 2019년에 산업 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승강기밸리는 상징적인 산학연관 집적단지라 할 수 있다. 군의 주도적 역할로 폐교 위기의 테크노대학을 승강기대학으로 변모시켰고 관련 기업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고 승강기 R&D 센터 설립, 공동브랜드(G-엘리베이터) 개발 및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중심에는 한 사람 공무원의 역할이 있었다. 거창군 기업지원과 임영수 과장이다. "세계 승강기산업의 허브"를 목표로 전국 최초이자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다.

④ 혁신 영암의 3대 가치 – 3R

Renaissance(르네상스)는 고대의 그리스·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부흥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 내려는 운동으로 중국과 일본 교류의 중심이었던 국제교역항 영암의 역사를 부흥시켜야 한다.

Rebuilding(리빌딩)은 스포츠에서 전력 보강을 위해 기존 선수를 방출하거나 새 선수를 기용하는 일로 조직과 구성원을 일신하는 구조조정, 사업개편이 그 것이다. 중앙 주도의 정치와 행정에 순응하지 않고 혁신할 수 있는 영암군만의 특색있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Resilience(리질리언스)는 회복력으로 최근 정부의 미래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학계, 기업 등에서 활발하게 쓰이는 용어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모색하는 노력 또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감염병, 기후위기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고 변화되는 새로운 미래에 대응하는 전략과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⑤ 브랜드 “혁신 영암”, " 젊은 우승희”

브랜드(brand)는 소를 구별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불에 달군 인두로 찍었던 낙인에서 유래됐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징짓고 경쟁 상황에서 차별화하기 위해 만든 ‘네임, 로고, 상표, 패키지’가 브랜드다. 청량음료 하면 코카콜라, 김치냉장고는 딤채, 와인은 프랑스, 시계는 스위스, 동학은 정읍 또는 남원, 국악은 전주인지 남원인지, 트로트는 목포 또는 영암, 마한은 나주인지 영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브랜드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브랜딩(branding) 법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브랜딩은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의 가치를 인지하게 한다. 브랜드의 충성도와 신뢰를 유지하는 과정인 것이다. 1단계로 브랜딩을 위한 관계 구축은 소비자와 브랜드의 첫 만남부터 시작(취임사, 취임식)된다. 2단계로 브랜드의 경험을 통해 소비자와 관계를 형성(브랜드 식별 가능)된다. 3단계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갖는 과정이다. 4단

계로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의 욕구가 하나가 되는 관계이다.

⑥ 혁신의 시작 – 브랜드 론칭 "달맞이꽃 " & "남생이"

영암의 군화는 매화, 군조는 산비둘기인데 다른 지역에도 흔한 동식물로 우리 지역의 특색을 표현하는데 대표성이 부족하다. 월출산과 꽃을 접목하여 달맞이꽃 축제를 기획해볼 필요가 있다. 월출산 하면 떠오르는 달을, 달을 상징하는 꽃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월출산에 서식하는 남생이를 활용하자. 이를 활용하여 월출산이 에코뮤지엄임을 알리고 생명생태도시를 선언하여 월출산 어드밴티지를 획득하고 생태도시의 주도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⑦ 혁신의 시작 첫 번째, 브랜드 론칭 "청년 "

민정 8기 군정 목표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이다. 도약을 위한 필수요소는 사람이고 청년이다. 약무청년 시무영암(若無靑年 是無靈巖), "청년이 없다면 영암도 없다"라는 각오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 2022년 1월 기준, 총인구 53,022명 중 청년 인구는 17,034명으로 32%를 차지한다. 8년간 감소한 전체 6,269명 중 청년이 5,773명으로 92%에 해당한다.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와 일자리 안심공제 시행, 청년주택 및 마을 조성 등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청년정책으로 지역소멸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10년 전 인구 6만명이 무너졌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5만명도 장담하기 어렵다.

<표 2.2.13> 최근 5년간 전국 군지역 청년인구 감소 현황(2015년 대비 2019년)

구분	2014	2016	2018	2020	2022	증감
합 계	59,215	57,045	54,731	53,699	52,946	- 6,269
영암읍	9,024	8,831	8,624	8,251	7,966	-1,058
삼호읍	13,441	13,519	13,592	14,965	15,154	1,713

<표 2.2.14> 청년인구 감소지역 현황

구분	합계	청년인구 증가지역	청년인구 감소지역		
			10% 이하	10~20%	20% 이상
전남	17	-	담양, 무안, 영광, 장성	곡성, 구례, 고흥, 화순, 해남, 영암, 함평, 진도, 신안	보성, 장흥, 강진
전북	8	-	-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고창

감소하는 청년인구에 대해 영암군은 인구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처했는가? 영암군 홈페이지(2022년 6월 25일 현재)의 역사와 연혁(갱신일자 2019년 11월 14일)에는 1965년 141,489명이 거주하였으나 이농 현상과 학군 등으로 1995년에는 62,400명까지 줄어들었으며, 현재 인구는 65,699명으로 증가추세로 관리 되고 있다. 일반현황(갱신 일자 2021년 01월 13일) 중 세대 수(2020. 12 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현황)는 27,827세대이고 인구는 53,966명(남 27,595명, 여 26,104명)이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를 느낄 수 없는 관리체계이다.

청년을 위한 정책 중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청년문화 활성화에 2,30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준비위원회 업무보고서에는 8,027백만원으로 보고 되었는데 재검토가 필요하다.

⑧ 중앙정부 사업 중 효율, 효능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재설계 또는 보완

지자체에서 “신규 또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과 유사중복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3년 예산에 신규 또는 유사중복 사업을 반영하는 경우, “신설사업 협의 완료 후 사업비 집행 조건부”로 사전 예산 편성 추

진하는 것은 무방하다. 사업 초기 중앙정부와 충분히 논의, 설득하고 가급적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하여 동시 추진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전국 지자체 최초 매월 40만 원(22년부터 50만 원) 지급 육아 기본수당을 도입·시행하였다.

⑨ 전국 최초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평가지표에 청년참여율 포함> 주창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1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지역이 지닌 인적·물적·사회적 자본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한 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는 17개 세부 지표에 의한 생산성 지수 측정을 생산성과 우수사례 선정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측정 기준을 7개 분야, 17개 지표로 구성되었는데 7개 분야(① 지역 경제 역량, ② 재정 역량, ③ 행정 역량, ④ 보건 의료, ⑤ 돌봄 복지, ⑥ 사회적 책임, ⑦ 교육 문화) 중 ⑥ 사회적 책임 분야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체 수 대비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 참여율, 지역안전지수 등 세 가지 지표를 측정한다.

⑩ 혁신의 시작 (2) 전국 최초 <풀뿌리 시민주권도시 영암> 천명

노무현정부 시절 주민 참여와 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2004. 7. 30. 시행에 들어간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10여 건에 불과하다. 지난 17년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는 2건에 불과했고, 전남과 전남 22개 시군은 단 1건도 없다. 특히, 풀뿌리 지방자치는 시민참여 없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승희 당선인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전국 최초 <풀뿌리 시민주권도시> 추진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전국단위 총선・지선 등과 연계한 영암군 주

요 현안 주민투표를 정례화해야 한다. 특히 주민투표는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주민투표법』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⑪ 혁신의 시작 (3) <생명생태 지속가능도시 영암> 천명

기후위기시대 농생명에 기반한 전남 서부권 생태전환 교육거점도시로 구축해야 한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유치(예산규모 총 200억원, 국비 100% 사업)하고 멸종위기종 남생이 서식지 복원해야한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관내지역의 국제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국내외에 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 ‘월출산국립공원-유역권 저수지-주변 논습지’를 람사르습지(Ramsar Site),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UNESCO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 받고 생태생명도시 영암 지속가능한 관광전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까운 전남 순천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동천 하구의 소규모 갈대밭 보전 활동이 계기가 되어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해 6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제적인 ‘생태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였다. 영암의 환경적 조건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II. 지방정부 혁신의 출발인 재정혁신 선도도시 영암

① 포스트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인한 적극재정의 필요성 대두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고유가,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 불안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요구되면서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의 가능성 있으므로 민선 8기 영암군 주요 정책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해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② (중장기 사업계획) 인구·산업 구조, 인프라 현황 등 향후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수립

유효한 투자가 향후 여건 변화에 의해 낭비적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연구용역, 타 자치단체·해외 사례 연구, 주민의견수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③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여유재원 확보

편성 예산의 집행 부진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축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면밀한 재정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재원배분 전략이 필요하다. 재정 운용지표의 개선 및 효율적인 예산구조개편을 위한 예산 및 기금체계의 정비 및 지출구조 조정하여야 한다. 특히, 세목 구성 권한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여유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출구조조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한 여유 재원확보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 순세계잉여금, 시책일몰, 기금, 지방보조금, 교부세 등 다양한 재정 이슈들을 분석하여 재정 여력 증대·여유 재원확보 통해 신규사업 현실화하여야 한다.

④ 순세계잉여금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차년도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 재원이다. 당해 연도에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었던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며, 순세계잉여금 만큼 지역주민은 받을 수 있었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예산상으로는 균형재정을 편성했으나, 세입측면에서 예산대비 초과 세수가 발생하거나 세출 측면에서 집행되지 못한 예산불용액 등이 순세계잉여금의 원인이므로 관례적인 예산 편성 지양하여 잉여금을 축소해야 한다.

영암군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영암군 결산상 세입은 739,229백만원으로 전년보다 30,703백만원이 늘어나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였고 결산상 세출은 640,02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62,302백만원이 늘어나 전년대비 10.8%가 증가하였다.

<표 2.2.14> 영암군 최근 4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감률	FY 2017대비
세입		568,514	619,824	708,526	739,229	9.1%	30.0%
전년대비		-	9.0%	14.3%	4.3%	-	-
세출		453,545	503,077	577,726	640,028	12.2%	41.1%
전년대비		-	10.9%	14.8%	10.8%	-	-
잉여금	소계	114,970	116,747	130,800	99,200	-4.8%	-13.7%
	이월금	81,552	67,630	75,631	53,469	-13.1%	-34.4%
	보조금집행잔액	4,385	5,518	6,448	4,545	1.2%	3.6%
	순세계잉여금	29,033	43,599	48,720	41,072	12.3%	41.5%

출처 : 영암군 각 년도 결산서

세입의 증가에 비해 세출의 증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더욱 높았다. 영암군의 FY2020 결산상 잉여금은 99,200백만원이며 이 가운데 이월금은 53,469백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은 4,54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1,072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연평균 증감률은 12.3%, FY2017 대비 41.5%가 증가하였다.

<표 2.2.15> 영암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백만원, %)

년도	과목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소계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2019	합계	48,720	13,387	35,332	7,378	1,020	2,819	115	10,969	13,030
	비율	100.0	27.5	72.5	15.1	2.1	5.8	0.2	22.5	26.7
2020	합계	41,072	6,595	34,476	5,696	290	1,991	227	9,075	17,194
	비율	100.0	16.1	83.9	13.9	0.7	4.8	0.6	22.1	41.9
증감	금액	▼7,648	▼6,792	▼856	▼1,682	▼730	▼828	△112	▼1,894	△4,164
	비율	-15.7	-50.7	-2.4	-22.8	-71.6	-29.4	97.4	-17.3	32.0

출처 : 영암군 결산서

현실 정합성이 높은 예산 수립으로 집행잔액을 감소시켜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이 이듬해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영암군의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차년도 본예산에 100% 반영되어 편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은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으로 영암군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보다 집행잔액에서 발생되는 비율이 높으며, 집행잔액 중에서도 지출잔액이 많다는 것은 현실 정합성이 높은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본예산은 새로운 금액 편성을 하지 않고 전년도 이월금만 집행해야 한다. 이월금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례적 이월사업인지 또는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집행 불가능 판단 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원칙으로 순세계잉여금 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 순세계잉여금 예측치 제출 제도 도입, 해당 결과 인센티브 지급 등 검토가 필요하다.

이월사유에 대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영암군의 최근 3년간 이월액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11.1%가 감소했고 이월 사유별로는 사고이월이 16.9%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액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이월사유는 향후 이월조서 등 구체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⑤ 순세계잉여금 관리방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여유 재원 통합관리해야 한다.

집행 불가능 판단 시 예산편성에서 사전 제외하여야 한다. 이월금을 통해 지출되는 사업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례적 이월사업인지 또는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확인하여 집행 불가능 판단 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영암군의 인근 자치단체 및 유사단체(군-2)와 비교해보면 영암군은 강진군을 제외하고 재정규모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편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세입 결산 및 세출 결산 대비 일정 비율 목표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가)영암군잉여금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가칭 영암군잉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잉여금 발생·집행 등 계획적 관리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잉여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검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잉여금 관리 연간계획, 이월금 관리지침 등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집행하여 가용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의 원활 등을 실현하는 재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단계에 맞는 예산편성을 통한 이월금을 축소해야 한다. 세입추계과정에서 경기변동, 중앙정부 정책 등 외부 상황과 잉여금(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 추계 정확성 제고하여 적극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사업예산 불용액 감축해야 한다.

계속비 제도 폐지해야 한다. 예산 편성시 계속비 사업을 편성하지 않고 매년 필요예산을 새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 예산을 이유로 계속비 제도 폐지가 어렵다는 의견인데 계속비 이월을 줄이기 위해 규모가 큰 국도비 매칭 사업은 중앙·도 예산편성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해연도 시 사업비 편성액에 맞춰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

⑥ 재정사업 일몰(시책 일몰의 추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형식적 운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성과평가제도가 형식

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투입의 타당성이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큰 변화없이 연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성과부진 및 중복사업의 일몰을 위한 타당한 기준 설정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영암군 자체 수행 사업 중심으로 심의대상 설정· 범위 지정하고 '일반보상금' 중심으로 일몰심의 대상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일몰심의위원회 보완할 시민심의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경남 창원시는 부서별 주요시책 등급 분류 방식의 자가진단을 실시했다. 2019년 11월 부서별 주요시책 등급 분류의 자가진단을 통해 22건의 시책을 폐지, 총 36억 3112만원 사업예산을 절감했다. 경남 사천시의 경우 부서가 자체적으로 검토 및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심의일몰을 통해서 5건의 시책을 일몰하여 2억 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충남 서산시는 2020년 부서별 일몰대상 부서별 일몰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2차례 검토보고회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2차례 검토보고회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일몰사업 28개를 확정하여 7억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신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경기도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된 시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부작용이 크지 않았던 사업들을 일몰대상으로 분류하고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던 계속 사업의 예산편성 필요성을 전수 재검토하고 결산검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일몰대상을 최종결정하여 38개 시책을 일몰하여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⑦ 그 외 재정혁신을 위한 방안(1) – 군 금고, 수의계약, 지방보조금, 기금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실적과 지원 계획 포함하여 정하고 변동금리 적용으로 금리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약정금리의 조건도 검토하고 탈석탄 금융 여부 기준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수의계약 투명도 제고하고 효율화해야 한다. 2021년 전체 영암군 수의계약 총 건수는 2,144건이고 공사가 1,236건(57.6%), 물품이 488건(22.8%), 용역이 420건(19.6%)으로 나타났다.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정책반영 검토도 필요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학술연구용역은 34건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정

책사업에 있어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얼마만큼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관리 및 지역기업, 영암군민 의무고용기업 등과의 계약 확대해야 한다.

선심성, 1회성 보조금 편성 지양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및 성과평가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영암군 자체재원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 및 성과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외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⑧ 업무보고 개선에 대한 제언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결산 정보, 비목 정보 확인 불가능하다. 업무보고 양식은 각 부처별 주요 이슈가 정리되었으나 업무보고에 명시된 사업명은 예산서, 결산서 등 재정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명이 상당수 존재하고, 기존 자료를 군수님 업무보고용으로 새롭게 가공해서 만든 자료의 경우 기존의 예산서, 사업설명자료, 결산서, 기금계획서, 기금결산서, 성과평가서 등 재정 자료를 통해 해당사업의 실체와 문제점을 교차 검증을 할 수 없다. 외부용 공개자료로는 적합하나 군수님이 군정을 파악하는 용도로는 부족하다.

지방정부의 실체는 예산이 아니라 결산에 들어있는데 실제로 2021년 영암군 예산은 5,744억원 이었으나 2021년 영암군 세입결산은 7,392억원이고, 세출결산은 6,400억원으로 영암군 본예산으로는 영암군의 실체의 일부만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상 예산금액은 그 사업의 일부인 본예산으로 모든 사업은 전년도 결산금액도 같이 확인해야 하며, 전년도 집행, 이월, 불용 내역까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예산서상금액, 결산서상 집행내역, 비목, 그리고 사업설명자료를 읽으면 해당 사업의 본질까지 파악이 가능하나 다수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업무보고 양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해결방안으로는 사업개요에서 사업의 성격, 예산 규모와 재원 구성, 사업시행주체,

수혜대상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여 사업개요를 통해 보다 신속히 세부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당해년과 전년도 간의 프로그램 편성내용 및 사업물량 비교를 위해 예산의 산출근거를 작성하는데 있어 증감사유를 기입해야 한다.

사업의 추진경위(사업제안 배경 및 사업 추진과정)와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목적, 수혜대상, 지원내용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기존 사업의 경우 이전연도에서의 사업목표 및 목표 달성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 기입하고, 최근 3년간의 결산내역 작성 및 결산내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술하고, 향후 추진계획 및 사업에 투입되는 총예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중기투자계획 및 추진경과를 작성하면 업무보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III. 행정조직의 재정비

① 추진 배경

군민들의 행정만족도 향상과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과 개편이 필요하다. 민선 8기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특성과 내외부의 행정환경을 감안한 조직체제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최근 조직진단과 변화

영암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0년 10월 30일 제출되었는데 조직진단 결과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하여 설치되었고 팀 조직은 기획실에 홍보팀 이관(2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투자경제과에 기업도시팀이 이관되었고 신설된 건설교통과에 교통행정팀이 이관되었다. 복지관운영팀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소로 분리, 환경보전과는 대기관리팀이 신설되어 결과적으로 기존 1실 14과 71팀이 1실 15과 74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③ 검토 의견 및 제안

벤치마킹 대상 지자체가 고흥, 화순, 해남, 무안, 영광, 완도 등으로 단순히 인구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하였고, 검토과정에서 영암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무량 측정의 경우 단순 근무시간 지표에만 의존하였고 정성적 측면에서 활동기준 업무만 기술하여 직원의 업무 난이도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다. 직원의 숙련도가 고려되지 않고 근속년수만 반영하였고 직원 설문 결과 조직개편 유지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부서별 요구사항은 20개 실과소가 29개 의견(팀 신설, 업무 이관, 증원, 기타)을 제출하여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부서의 중요성 및 위상이 부서장의 직급으로 결정된 듯 보였고 조기 조직진단 후 영암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고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업무를 재조정하고 유사 성격의 과를 국으로 편제하여 1실 2국 또는 3국 체제로 재편하여 지휘체계의 일원화 및 업무 효율증진에 기해야 한다.

<표 2.2.16> 타 지자체 사례(전라남도 17개 군 중 6개 지자체 운영 중)

구분	2021년 인구 (명)	실 (관)	국	과	팀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비 고
완도군	48,197	2	3	15	82	2	1	3	9	농업. 수산업
담양군	46,180	1	2	16	77	2	2	1	11	도농 복합
신안군	38,217	1	2	17	102	2	10	2	12	농업, 수산업
장성군	43,365	2	2	11	62	2	3	1	10	도농 복합
보성군	39,375	1	2	12	64	2	1	2	10	농업, 수산업
진도군	30,066	0	2	18	88	2	3	1	6	농업, 수산업
영암군	52,937	1	0	15	74	2	4	2	9	※ 2022년 기준

4. 행복도시분과

Ⅰ. 개요

① 비전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혁신, 주민의 일상이 행복한 영암’ 구현을 위해 군민생활공간 향상, 탄소중립도시 조성, 산업경쟁력 확보, 생애주기형 복지시스템 확충, 스마트 첨단 농업기반 구축,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창발한다.

②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공공행정 혁신과 도시·건축 통합설계로 군민 생활공간을 향상시킨다. 공공행정 혁신으로 군민의 일상 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입체적·통합적 계획으로 균형있는 도시공간을 관리하여 자산 보전과 인식 향상으로 문화를 진흥한다.

지역 건축 안전 및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 보급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 환경 및 시스템을 관리한다.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한 지역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산업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영암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향상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용자 포용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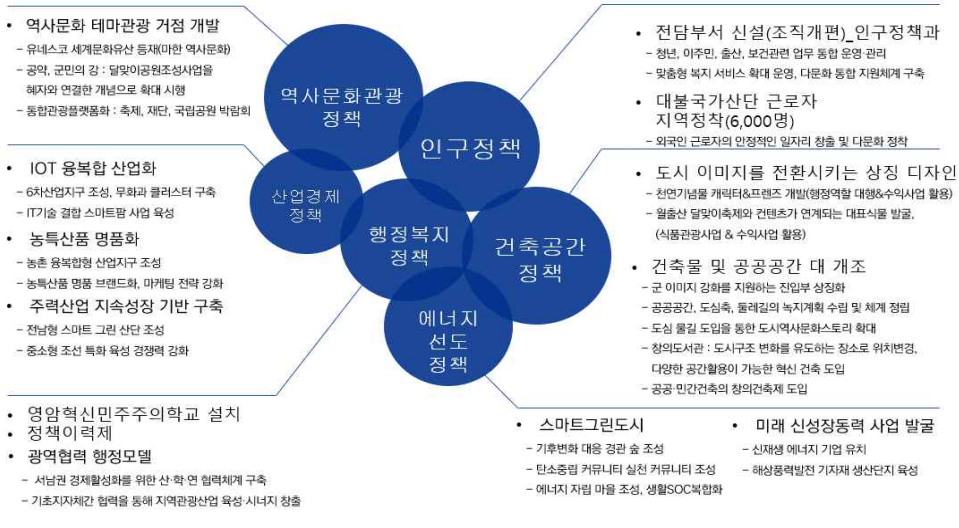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암 생애주기형 복지시스템을 확충한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명품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도시공간구조 변화와 미래 교육 문화 혁신을 선도하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영암형 복지를 실천한다.

미래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 첨단 농업기반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첨단기술 도입으로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융·복합 농업을 육성한다. 차세대 미래 농축산업을 위한 첨단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등의 생명농업 시설의 문화와 힐링공간으로 활용한다.

마한에서 백제까지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창발한다. 산재한 시간적, 장소적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 및 연합한다. 광역적이고, 통합적인 전남문화관광을 견인하는 혁신영암을 구현하고 자원 간 시너지효과, 장소성 부각으로 고품격 문화를 창발한다.

II. 우승희 '혁신영암' 핵심사업

① 모델



<그림 2.2.10> 우승희 '혁신영암' 핵심사업 도식화

② 분야별 사업

2.1. 역사·문화·관광

도시 물길 조성을 위해 복원과정에서 발견된 성벽은 최대한 보전하고 당초 계획된 시설은 고즈넉한 성곽 정취와 도심속 쉼을 제공하는 대표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반영하고 '군민의 강'에 공약 해자 개념을 반영하여 통한 도시역사문화 스토리를 확대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의 남도달밤예술여행지 육성사업(300억)을 전환

하여 추진한다.

아트 프로젝트는 상징물 및 건축물 아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웰니스 관광특구 매개 공간을 구성한다. 기찬랜드와 월출산을 활용하여 웰니스 관광특구 매개 공간을 조성하고 마한역사문화 스토리 기반 수익형 테마관광단지 조성한다.(민간투자사업유치)

2.2. 산업·경제

글로벌 청정·그린 혁신산단을 조성한다. 청정 그린산단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삼호마을 경관디자인과 다문화 축제 운영, 인공지능 스마트팜으로 조성하여 생명농·축산업과 연계한다.

2.3. 생활·복지

창발교육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으뜸서비스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고 미래일자리로 스마트 청년·노인 일터를 제공한다.

2.4. 우승희 '혁신영암' 핵심사업 모델 기타 개발 사례

공간 활용도와 다이나믹하고 특색있는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관광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공·폐가 활용한 촌캉스 숙박시설를 확보하고 6차 산업 먹거리를 개발한다.

③ 전남 서남권 관광개발을 위한 광역협력방안

개별 기초지자체별 사업추진으로 중복투자 및 연계 부족, 집행력 약화 등으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전남 서남권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관광산업 육성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한다. 다각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비수도권 초광역 협력 모델을 적극 추진한다.

전남 서남권 기초지자체인 영암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진도군 등이 참가하여 공동연구, 기획, 협의체 구성, 사업 추진, 상위계획 반영, 예산 확보 등을 진행한다. 공감대 형성, 확산, 연구용역, 포럼 운영, 협의체 운영, 특별자치단체 구성 등 중장기 발전방안 정책 협의 등을 추진한다.

<그림 2.2.10> 서남권 광광개발 도식화

④ 핵심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혁신운영

일하는 행정조직으로 전면 개편 및 준비위원회 후 심화단계의 '전문TF단'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추출된 핵심사업 시행 전 행정소통 및 합리적 실행을 위한 사전진단과 세부사업 방향 등 종합적인 군정계획을 수립해야한다.

협업과 협치의 일상화를 위해 거버넌스(행정:행정, 행정:전문가, 행정:민간) 조직사업의 중요도를 인식해야 한다. 행정의 창발적사업 실행을 위한 주요사업별 서비스 디자인(리빙랩)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연계하는 실과의 담당자, 전문가, 기타인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며 실질적인 대안 및 방향 수립을 통한 소통행정이 필요하다. 단위사업별로 시행하기 전 군민 소통과 참여 증진을 위한 서비스디자인(리빙랩)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해관계 군민, 행정, 전문가로 구성하여 진행하여 소통행정을 해야 한다. 피드백 과정을 통한 차기 사업 오류 축소 및 향후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세분화가 필요하다.

⑤ 공약사항 행복도시분과 의견분석 및 방향

환경보전과의 경우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에 있어 향후 환경부에서 성과평가 후 추진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 청소차량 교체 도입은 기 시행 중이며 및 인력 충원은 업무 과중 여부를 검토 한 후 추진한다. 영농폐기물 처리 확대는 군비를 확보하여 환경공단 보상까지 시행하여 수거를 재개토록 검토를 추진하고 삼호읍 쓰레기 수거 방안 개선은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하여 책임감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을 유도한다. 서남권 산단 대개조를 통한 전남형 스마트 그린 산단을 구축하고 노후산단 ICT 융합을 기반으로 혁신산업단지로 바꾸는 구조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 및 자원 선순환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계획에 반영한다.

안전총괄과의 경우 영산강 해수 통수 및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문제는 국방부 협의 및 군부대 이전 검토 용역과 군민공청회 등 군민 의견을 수렴해 군부대 이전 방향을 검토한다. 사업공약의 담당 부서 협업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총무, 도시개발, 문화관광과 협업)하고 영산강 해수 통수 및 수변공원 조성은 두 개의 사업으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교통과의 군내버스 완전공영제는 학생들의 경우 전남도교육감 공약 중 100원 택시공약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도로 야간 안전시설 확충계획은 하반기 용역 추진 후 결과에 따라 연차별 추진한다. 저상버스는 차량의 년식 등을 고려하여 도입 권고 및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설치는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처 사업을 활용하고 서창저수지는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통해 생태를 개발한다. 공영주차장은 투자경제과 산단 개조사업 중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도시경관 등 단위시설 외 공간 전반을 고려하여 부서간 협업하여 진행하고 스마트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을 확충한다.

도시개발과의 경우 상가 리모델링 지원은 투자경제과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유사하므로 과별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영암군 자전거길 조성은 홍보체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 추진, 청년주택 및 마을 조성,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지원, 빈집 정비(청년정착, 관광분야 활용), 읍면 소재지권 주거복지모델 추진,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명실상부한 군청소재지로 확장형도시계획 수립(영암

읍), 청년주택 타운하우스 조성(영암읍),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삼호읍), 솔대목산 둘레길 조성(삼호읍), 3함대 주거단지 조성, 은퇴자 마을 조성(미암면),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학산면) 등은 영암군 이미지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 사업에 역사문화, 보전 상생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부감경관)해야 한다. 지역특화자원을 연계한 거점 상권 조성 및 주변 상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지역의 생활안전을 위한 정주환경 및 경관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은퇴자, 청년 등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주택 및 마을조성, 청년주택 타운하우스 조성 등은 공약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청년주택의 경우 삼호행복주택 250세대 중 잔여세대 80여 세대가 활용이 가능하다.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수립(삼호읍)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내년부터 농촌생활권계획+공간계획 등을 통한 농촌협약으로 추진)하고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은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한다. 현재 용역수립 중인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에 민선 8기 군정방향 및 공약으로 언급된 사항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도사업소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삼호읍)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더욱 내실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III. 실과 현행 세부사업별 종합분석

① 청년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

청년정책에 대한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업무가 산재 되어있다.(청년창업농업인 지원육성, 청년종합소통센터, 대학생 전입장려금 등) 청년정책 및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영암군 청년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한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 청년종합소통센터의 경우 청년 관련 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다.

②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설부지의 문제점 및 대안

교육지원청에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현재 계획된 부지는 접근을 위한 추가 부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군민 행복과 군 발전을 위해 군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학생과 군민의 접근성을 도시계획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문화와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공간혁신디자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다수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해외 전지 훈련을 지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동계훈련 장소의 국내 지역 선호에 따른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 현재 영암은 숙박 및 부대시설의 미흡이 유치에 장애로 작용한다. 기존 시설 보완·관내 숙박시설 협업·음식문화 개선·관내 대학(세한대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부와 연계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민간위탁운영의 개선

현재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용역 개요에 나와 있는 수탁기관과의 수탁협약서에 나와 있는 업체가 상이하다. ㈜공감피앤디와 ㈜국토정보기술단이 인수합병되었으므로 위탁기관인 영암군은 이에 대해 재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의 발생이 없도록 민간 위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⑤ 축사 관련 인허가 조례개정 필요

현재 영암군 관내에서 축사 시설 조례를 토대로 부지 선정 및 인허가를 득하려면 관련 부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취득에 오랜 기간 소요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된다. 위 문제점을 완화하고 및 축산업 장려를 위해 현재 제정된 축사 시설 관련 조례를 검

토 후 규제 완화 및 촉진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Ⅳ. 실과 현행 세부사업(현장방문) 분석

①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사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 영암읍성 복원산업은 성터 발굴장소와 복원 장소를 같이 볼 수 도록 현재 발굴된 일부 구간을 발굴상태로 개발하고 복원과정에서 발견된 성벽은 최대한 보전한다. 당초 계획된 시설은 고즈넉한 성곽 정취와 도심 속 쉼을 제공하는 대표 공공공간기능을 반영하고 '군민의 강' 공약의 해자 개념 반영을 통한 도시역사 문화스토리를 확대해야 한다.

교량 및 진입 계단의 재료 변경되어야 한다. 교량바닥이 특수강화유리 소재, 난간은 투시형·진입계단으로 인위적 느낌이 들어 자연형 계단으로 바뀌어야 한다. 교량 하부 공원공간 재조성이 필요하다. 현 달맞이 공원은 문화재 자원과 연계한 쉼과 조망의 공간 개념이며, 교량 하부공원 공간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환영과 만남의 공간이자 '군민의 강' 공약 취지에 부합하는 해자의 시원지로 물을 담수한 정원공간의 기능이 부여되도록 조성해야 한다.

② 신촌저수지

현재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저수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임대 및 매입 후 개발 필요하다. 법원 명령처럼 시설물 철거 후 토지를 매입할 경우 민선 8기 행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대불주거단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삼호읍 원룸촌 밀집지역은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수거 요일을 무시한 채 수시로 무분별하게 배

출하여 쓰레기가 상시 방치되어 악취와 미관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거점 수거와 문전수거가 혼재되어 있고 외국인 불법 배출자 적발이 어려우며, 특히 건물주의 무관심으로 불법투기 폐기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쓰레기 발생량을 근무 직원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버거우며, 폐기물 및 불법 쓰레기 수거를 위한 직원이 필요하다. 또한, 임대사업주와 임차인에 대한 조례 지정을 통해 종량제 봉투 사용 등에 대한 권장 과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군 조례지정, 지역사랑 상품권 등)

④ 현대삼호공영주차장 중단 부지

지역민과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들의 주차 부족으로 인해 주차타워를 건설하려 한다. 민선 7기에 추진되었으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 중단되었다. 산단 대개조사업에 포함되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 변화된 내용이다. 주차환경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을 검토 중이다. 도로면 '도시안전디자인 색채계획'을 통해 주정차통제 및 질서확립과 보행자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설치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책임강화와 사업비 절감, 주민공동이용 등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현대삼호공영주차장 중단부지

⑤ 영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업대상 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기찬랜드부터 암벽등반 구간은 관광지구보다

농식품가공 판매 효과가 높은 곳으로 건물의 사유화가 우려되며 소수자들에게 사업이 배분되는 특혜 발생이 우려된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 사업비 20여억원이 불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장에서 입주하려는 소득사업에 대한 BC 분석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업을 위해 12개 액션그룹의 활동이 예비계획 이후 기본계획을 진행되는 동안 활동사항 없이 추진단들에 의해 사업이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영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전략 및 사업내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실행 시점				
			`22	`23	`24	`25	`26
1. 영암 인구복원 전략							
· 청년 귀향 영암재건사업							
· 청년 눈높이 일자리 조성							
· 2세농 전폭지원							
· 현대삼호중공업 등 은퇴자 마을 조성							
· 3함대 주거단지 조성							
· 신혼부부 지원							
· 청년주택 및 타운하우스 조성							
· 빈집활용임대·거주·관광 사업							
· 출산지원금 상향 및 생애주기 지원							
· 문화예술 테마파크 유치							
· 치매전담형 요양원 유치							

<별첨> 과업 추진체계

[참고문헌]

1. 민선8기 혁신영암준비위원회 업무보고서
2. 2022 행정주요 건설사업 현황
3. 2022 군정현황
4.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5. 영암군 기본계획
6.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7. 영암 청년정책 기본계획
8. 영산호관광지 활성화 방안연구
9. 영암 생활권활성화 계획 2022.05
10. 영암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11. 영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2022.05
12. 영암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2021.05
13.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서
14. 영암군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신청서 -신활력신충전소, 학산누리플랫폼 조성-
15. 영암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예비계획
16. 영암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현황
17. 경남도, 남부권 관광개발에 10년간 3,000억 투자. 경향신문. 김정훈 기자
18. 전라남도 시군 발전구상(전남 영암군 발전구상). 광주전남연구원. 2022
19. 영암군 경관기본계획
20. 2040년 영암군 기본계획(안)
21.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추경·일반회계·특별회계)

3

주요 정책 분석

Ⅰ. 총괄

Ⅱ. 혁신영암 20대공약

Ⅲ. 주요정책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백서

제1장 총괄

혁신영암 준비위원회는 영암군에 자문위원 26명 및 온라인자문위원 29명을 위촉하였다. 위촉의 의미는 각계각층의 여론주도층으로서 혁신영암 군정 구현에 도움을 주고, 개인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오류를 줄여 시급한 영암의 지역 현안 등 난제 해결에 동참한다. 우승희 당선인은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 영암의 미래비전을 군민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계획이다"고 주문했다. 온라인 자문위원은 총 59건 중 문화,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 등 많은 분야의 제안을 해주었다. 자문해준 내용은 혁신영암준비위원에게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1. 10개 분야

10개 분야(개수)	
1.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 (19)	6.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교육 (15)
2. 생명농업 일번지 영암 실현 (16)	7. 친환경 생태도시 영암 (8)
3.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 창출 (5)	8.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 중심 행정 (6)
4. 미래혁신과 청년친화도시 (10)	9. 군민께 힘이 되는 으뜸복지 (17)
5. 청년도 어르신도 행복한 일자리 (17)	10. 행복영암 균형발전전략 (32)
계	145

2. 월출산과 역사문화자원 마케팅 (19)

연번	사 업 명
1	국립공원박람회 개최

연번	사 업 명
2	월출산 달빛축제 개최
3	영암관광문화재단 설립
4	한석봉, 천자문, 왕인, 도선 등 콘텐츠화
5	문화예술회관 건립(문화예술인 창작지원)
6	야생화, 난 동호회 등 각 분야 전국대회 적극 유치
7	영보정 · 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8	평화의 고장 영암(구림, 기독교 성지 등) 마케팅
9	양달사 등 의병 역사 발굴 및 지역자원화
10	월출산 암자 및 석불 관광자원화
11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
12	대동공장 부지 관광자원화 추진
13	현충공원 이전 및 주민공원으로 재조성
14	마한축제 통합
15	전통산업 특산품 포장재 등 지원 확대
16	음식거리 조성
17	상가 리모델링
18	기(氣) 산업화
19	생태관광체험 문화브랜드 육성

3. 생명농업 일번지 영암 실현 (16)

연번	사 업 명
20	농산물 품목별 저장시설 확충
21	쌀 등 농산물 가공 유통기관 유치
22	농가 소득 중심으로 농업정책 혁신

연번	사 업 명
23	소농·고령농을 위한 기찬장터 부활
24	고향사랑기금설치(농산물 답례)
25	축산-경종 농가 상생전략 수립
26	6차산업 단지 조성
27	2세 농 및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28	품목별 연구시설 및 전문가 육성
29	농축산물 (고급)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30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
31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확대
32	농민수당 지급 확대
33	농번기 공동급식 효율화
34	귀농귀촌 확대 및 귀향 정착지원
35	영암특산물 마을 관광자원화(무화과마을, 한우마을 등)

4.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 창출 (5)

연번	사 업 명
36	가칭, 영암에너지센터 설치(에너지 관련 정책 주민참여 공론화)
37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
38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39	스마트그린도시 추진
40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영암군민발전소 설치

5. 미래혁신과 청년친화도시 (10)

연번	사 업 명
41	청년정책지원부서 등 신설
42	청년주택 및 마을 조성
43	청년기금 조성
44	농업유통활동가 육성
45	청년문화거리 조성
46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47	청년 자율예산 운영
48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49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
50	신혼부부 지원 확대

6. 청년도 어르신도 행복한 일자리 (17)

연번	사 업 명
51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시행
52	소상공인 분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확대
53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노인 시니어클럽 설치 병행 추진)
54	마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55	100개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56	일자리 안심공제 시행
57	농촌 인력 수급 대책 수립
58	튜닝산업 활성화 및 규제자유특구 조성
59	영암개발공사 설립

연번	사 업 명
60	군수 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 설치
61	이동노동자 쉼터
62	군내버스 완전공영제
63	청소차량 교체 도입 및 인력 충원
64	노동상담소 예산지원
65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66	조식 식당
67	비정규직 노동자 유급병가(휴가) 지원제도

7. 아이들 키우기 좋은 영암교육 (15)

연번	사 업 명
68	고교학점제 대비 지역대표 고등학교 육성
69	300인 영암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행
70	영암농산물 활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71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
7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73	공공도서관 이전 신축부지 주민의견 수렴 결정
74	에듀팜(농촌 유학마을) 조성
75	군 소유 폐교 공공재로 재활용방안 강구
76	청소년 공공데이터(와이파이) 지원 확대
77	학생교육문화수당 지급
78	영암학숙 운영(수도권 / 광주)
79	청소년 군정 참여위원회 설치
80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운영 전환

연번	사 업 명
81	청소년 국내외 체험교육 지원
82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8. 친환경 생태도시 영암 (8)

연번	사 업 명
83	영산강 해수 통수 및 수변공원 조성
84	영농폐기물 처리 확대
85	도로 야간 안전시설 확충
86	영암군 자전거길 조성
87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 추진(농촌 협약)
88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지원
89	마을 사무장(코디네이터)제도 확대
90	빈집 정비: 청년 정착, 관광분야 활용

9.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 중심 행정 (6)

연번	사 업 명
91	영암 공공 어플 보급
92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되는 혁신위원회 설치
93	목요대화클럽 시행
94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95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96	영암 혁신민주주의 학교 설치

10. 군민께 힘이 되는 으뜸 복지 (17)

연번	사 업 명
97	농촌기본수당 도입
98	평생교육센터 신축
99	여성회관 신축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100	군민 주치의제도 도입
101	어르신 건강 마일리지 도입
102	저상버스 도입
103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104	이주민센터 설치
105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
106	육아나눔터 구축 및 자연놀이터 활성화
107	어르신 카드 발급 및 사용 대상범위 확대
108	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확보
109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110	치매전담요양원 유치
111	재능기부센터 설치
112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113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11. 행복영암 균형발전전략 (32)

연번	읍면별	사 업 명
114	영암읍	명실상부한 군청소재지로 확장형 도시계획 수립
115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116		스포츠가치센터 유치
117		영암읍성 복원
118		군민의 강 조성
119		청년주택 · 타운하우스 조성
120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121		온천호텔 활용방안 모색
122	삼호읍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123		공영주차장 설치
124		철탑 지중화
125		솔대목산 둘레길 조성
126		주말장터 개장
127		작은도서관 개관
128		나불도 활성화
129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130		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관 유치
131		문화예술테마파크(영화촬영장) 유치
132		공영주기장 설치
133		노후 상수관로 교체
134		자연부락 도시가스 추가 공급
135		쓰레기 수거방안 개선
136		3함대 주거단지 조성

연번	읍면별	사 업 명
137	군서면	구림관광문화특구 조성
138	금정면	휴양림 및 주택단지 조성
139	덕진면	영보항일농민운동 기념사업 확대
140	도포면	황토연구기반시설 건립
141	미암면	은퇴자 마을 조성
142	서호면	은적산 산악자전거코스 설치
143	시종면	마한역사문화관광 활성화
144	신북면	농산물유통단지 조성
145	학산면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

제2장 혁신영암 20대 공약

연번	사 업 명	연번	사 업 명
1	국립공원박람회 개최	11	300인 영암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행
2	생태관광체험 문화브랜드 육성	12	청소년 국내외 체험교육 지원
3	농산물 품목별 저장시설 확충	13	빈집 정비: 청년 정착, 관광분야 활용
4	쌀 등 농산물 가공 유통기관 유치	14	영암 공공 어플 보급
5	(가칭)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15	목요대화클럽 시행
6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영암군민발전소 설치	16	농촌기본수당 도입
7	청년정책지원부서 등 신설	17	명실상부한 군청소재지로 확장형 도시계획 수립
8	청년문화거리 조성	18	영암읍성 복원
9	100개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19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10	군수 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 설치	20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 추진(농촌 협약)

제3장 주요 정책

1. 국립공원박람회 개최

① 추진 배경

국립공원 월출산과 영암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국립공원대회는 1975년 제1회 국립공원대회 지리산 개최 이후 11회 2002년 태안해안국립공원 대회까지 국립공원지역의 환경생태보전과 새로운 국립공원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으나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제1회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대회가 공단 임직원, 자원활동가 등 208명이 참가한 가운데 속리산 일원에서 개최된 이래 2021년 단양 제17회 국립공원 자원봉사자 대회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국립공원대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미흡하다.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인접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연결하고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 간의 연대,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국립공원과 주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② 주요 내용

국립공원 연접 지자체들간 협의체가 주도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적극 협력하는 (가칭)국립공원박람회를 개최하되, 1회 대회는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영암군 주도로 추진, 이후 대회는 해당 지자체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국립공원 저지대 탐방 인프라 개선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와 국립공원 공단의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므로 적극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람회 개최 시 제기되는 숙소 등 인프라의 문제는 강진, 목포, 나주 등 영암군 인접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국립공원공단 및 환경부와의 협력이 국립공원 탐방문화 개선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국립공원 월출산과 영암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전국의 국립공원 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환경부 사업인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과 유치를 연계하면 시너지 창출 및 국립공원박람회 추진 과정에서 월출산 인접 지자체들과 전남 서남부권 생태문화역사 관광의 거점 확보 및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월출산 달빛축제 개최

① 추진 배경

단순한 등산을 위한 월출산을 넘어 월출산의 유래인 '달이 뜨는 산'을 콘텐츠화하고 형상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개최장소(월출산 국립공원 내)에 따라 관련 법령(자연공원법) 저촉 소지 있어 행정절차 이행 필요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문가를 통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의 축제에 대한 킬러 콘텐츠 발굴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규 축제로 발굴하여 영암군의 대표축제로 성장시킬 것인지 기존 축제와의 통합 혹은 연계를 통해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각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검토 후 추진한다. 신규 축제로 개최 또는 기존 추진되고 있는 유채꽃 축제, 대봉감축제, 무화과축제, 왕인문화축제, 월출산국화축제, 마한축제 등과 연계 시 경쟁력 분석을 통해 개최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도시재생과 결합한 달빛 거리조성을

통한 관광지 육성과 상권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

③ 기대효과

전국 유일 달빛을 소재로 하여 월출산 관광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타 지자체 축제들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축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야간형 축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가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다.

3. 영암문화관광재단 설립

① 추진 배경

영암의 문화관광 콘텐츠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영암 문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광 영암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관광문화 육성을 주도할 전문재단 설립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영암문화재단은 2011년 5월 문화재단 설립 근거가 될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재단 설립 취지문 채택과 재단 정관 및 규정 제정을 의결하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출범하였다.

현재 영암문화재단은 남도문화관광 중심지로서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설립 취지와 다르게 군 문화시설(월출산기찬랜드, 가야금테마공원,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가야금산조기념관, 게스트하우스, 국민여가캠핑장, 조훈현바둑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중심의 기능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영암문화재단은 문화시설 관리 운

영,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보급, 관련 사업 위탁 대행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2022년 기준 540백만원이다.

현재 운영 중인 영암문화재단을 영암문화관광재단으로 재정비하여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등 전문적 기능 수행으로 문화관광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③ 기대효과

영암관광문화재단이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문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영암의 문화와 관광의 콘텐츠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영암 문화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4. 한석봉, 천자문, 왕인, 도선 등 콘텐츠화

① 추진 배경

영암의 다양한 인물과 한자 등을 관광 콘텐츠화하여 영암관광의 주요상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왕인과 도선국사를 추모하고 위상정립을 위해 왕인문화축제, 도선국사문화예술제 등을 매년 군비로 추진되고 있고, 왕인문화축제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한석봉과 한자를 콘텐츠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적과 정확한 역사적 내용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단일화된 사업보다는 축제 및 문화행사와 통합하여 추진이 필

요하다. 또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각적 시각 연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영암의 다양한 인물 연구와 스토리텔링 등 콘텐츠화를 통한 문화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에듀테인먼트형(Edutainment) 축제로 통합하여 교육의 도시로써 이미지도 포지셔닝 해 볼 수 있다.

5. 문화예술회관 건립

① 추진 배경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 공간 및 다양한 공연과 전시의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현재 영암문화원이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할 수 있는 소규로 문화시설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전문 공연이나 전시가 이루어지기 부족한 시설 여건이며 예술 용도보다는 행사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문예회관 건립 시 예상 소요액은 300억원 정도로 균특전환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높으나 대규모 군비가 소요되며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사전 행정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문예회관건립 컨설팅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의견 수렴(공청회),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문예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문예회관 건립공사 계약심사 등을 이행해야 한다.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한 사업연계로 할 수 있다.

③ 기대효과

영암의 문화예술 정책을 실현하는 의미에서 공공성을 바탕으로 정책 대상자인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복지적 측면에서 어느 누구나 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다양한 예술이 창조되고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작가들이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문화 및 예술교육이 제공되는 창작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6. 야생화, 난 동호회 등 각 분야 전국대회 적극 유치

① 추진배경

함평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난 대제전은 전국 각지에서 애란인과 관람객들이 줄을 이어 방문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식물을 활용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을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타 자치단체를 현황을 검토한 결과, 난의 경우 지자체부터 전국대회 규모까지 다양하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야생화의 경우 지자체 규모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암군 내 난, 야생화 관련 단체가 있으나 회원수가 적어 소규모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호회 결성은 전무하여 관련 동호회 저변 확대가 선결 과제이다.

영암군 봄·가을 축제와 연계하여 시군단위 자체 전시회를 우선 추진하여, 동호회 저변 확대를 꾀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게 하여 전국단위 대회를 협업하여 개최한다.

③ 기대효과

야생화, 난 등 취미 동호회의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전국 행사를 유치하여 영암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영보정, 덕진여사 주변 관광자원화

① 추진 배경

덕진여사의 기부정신과 영보항일농민운동의 독립유공 정신 등을 덕진지역 특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영보풍향제”(음력 5월5일)와 “덕진여사추모제”(양력 5월5일)는 현재 주민주도형 행사의 정착단계로 영암군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덕진다리 복원의 경우 하천법 등 재해 관련법 등의 면밀한 관련법 검토가 필요하다. 덕진다리는 2001년 일부 복원하였으나 2009년 영암천 확장공사 사업과 관련해 재해시 제방붕괴 위험으로 철거하였으며 추진할 경우 전액 군비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전 행정절차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보풍향제 및 덕진여사추모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자율적 참여 및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지역의 문화행사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영보형제봉사건 관련과 독립유공자 포상에 따라 기념비 조성, 보물 000호 영보정과 주변 대나무 활용, 옛 영보초등학교의 유리온실을 활용한 실내 수목원, 카페 운영 등으로 관광자원화 하고, 덕진여사가 운영했던 국밥집을 재현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 기대효과

덕진여사 추모제의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주도형 행사로 추진하여 지역민의 관광 자원 활용 능력 향상 및 지역 문화행사로서 자리매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8. 평화의 고장 영암(구림, 기독교 성지 등) 마케팅

① 추진 배경

구림의 상징인 비둘기, 6.25 전쟁 민간인 학살을 평화적으로 승화한 <화해와 용서의탑> 큰바위 얼굴 등의 의미를 살리고 광광자원화 한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순교자가 발생했던 구림교회, 상월교회, 영암읍교회 등 기독교 성지를 확대 발굴하여 순례지로 격상 관리하여 문화관광의 한 형태인 종교관광을 추진한다.

② 주요 내용

순교자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종교자산과 문화유산, 주변 시설을 활용한 관광코스(순례길)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 경관법,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필요하며 대규모 예산(20억) 소요 사업으로 국도비 건의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문체부 남부권광역개발계획(10년) 종교순례루트조성사업 2단계('28~'32) 계획으로 반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③ 기대효과

순례지는 신자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방문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순교자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종교자산과 문화유산 및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성지 순례길 탐방코스를 제안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함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9. 양달사 등 의병 역사 발굴 및 지역 관광 자원화

① 추진 배경

의병장 양달사 장군의 업적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국난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와 청소년에게 생생한 역사교육의 현장을 제공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교훈을 배우고 경험하는 다크투어리즘으로도 활용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양달사 장군 유적은 영암군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2019. 8. 22)되어 지원 근거가 명확하고 고증에 의한 역사적 인물로 현창·선양사업을 통해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양달사 장군을 비롯한 여성의병 양방매 등 영암 의병의 기록을 정리하고 관련 유적을 정비하여 그 정신을 현창하는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인물에 따른 역사관광문화 자원과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성화한다.

다만 지속 가능한 다크 투어리즘을 위해서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의미와 의도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역사교훈적 메세지가 단순한 관광상품으로만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영암 의병 기록 정리 및 관광 자원화를 통하여 영암 관광의 다양화 및 역사적 소재 활용으로 관광의 교육적 가치를 제고한다.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보고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암이 우리사회에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

10. 월출산 암자 및 석불 관광자원화

① 추진 배경

도갑사, 상견성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등 월출산 불교문화 순례코스 개발 및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천년고찰 도갑사를 중심으로 월출산은 단일 산으로 가장 많은 불교유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구정봉과 용암사지 일대에 유적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관법」,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구간에 대해 문화재 현상 변경, 야생동물보호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 협의, 국유림 대부 및 산지 일시점용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대규

모 예산(군비) 수반이 예상된다.

월출산 명사탐방로 개설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월출산의 불교문화 스토리텔링과 월출산 기찬랜드 및 녹암마을 등의 다양한 경관과 연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

③ 기대효과

월출산 및 도갑사 중심의 불교 유적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불교적 종교자산과 문화유산 및 주변 관광시설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객 유치로 종교문화 성지로서의 지역 브랜딩을 확립한다.

11. 월출산 중심의 둘레길 조성

① 추진 배경

월출산은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풍부한 자연적 자원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암의 유무형의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화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월출산 둘레로는 영암군 대표 산책로인 기찬묏길이 천황사 주차장에서부터 학산면 상월리까지 약 30km가 개설되어 있고 강진군과 연계된 둘레길로는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에서 강진군 성전면 하치마을까지 2.6km구간이 개설되어 있다. 연결구간의 미흡하고 홍보의 부족으로 이용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문화 순례코스와 함께 월출산을 분할하고 있는 강진군과 연계된 둘레길을 조성한다. 기 개설된 기찬묏길과 연결하여 학산면 상월리에서 강진군 성전면까지 숲길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다만, 둘레길 예정 노선이 국립공원 구역을 통과할 시 월출산 국립공원공단 및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하고 숲길조성 타당성 평가, 숲길 지정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기찬묏길을 주민주도형 가꾸기 운동으로 전개하여 군민의 산책로로 자리매김 할 필요도 있다.

③ 기대효과

1일 관광지에서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이 기대된다. 지역 명소인 월출산 둘레길 조성 추진 기구를 설립하여 지역주민, 지리, 관광 전문가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도보관광 명소나 트레일코스, 스토리텔링 등으로 연계하여 관광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2. 대동공장 부지 관광자원화 추진

① 추진 배경

영암읍 유휴부지인 대동공장을 전시공간형, 문화상권공간형, 공원형 등으로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주민과 관광객들의 취향과 기호를 충족한다.

② 주요 내용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기찬랜드와 월출산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체험코스를 제공 한다. 문화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될 경우 대규모 군비 소요가 예상되며 사유지(토지,건물)에 따른 매입비용 소요 및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사전 행정절차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유휴공간 문화재생 기본구상방안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의견 수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의 이행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공장 부지에 새로운 이미지와 장소를 조성하여 역사적인 요소는 간직하면서도 지역 경제에 이익을 창출하고 예술 창조를 촉진한다. 흥미로운 전시, 상권, 공원 등의 공간은 군민들의 문화 활동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13. 현충공원 이전 및 주민공원으로 재조성

① 추진 배경

현재 현충공원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시키고, 영암읍 주민의 공원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2022년 영암공원 야간 이용객의 안전 및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150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이다.

현충탑 등 현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방문자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공원 설치에 필요한 위치, 면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상 공원구역으로 용도지정하여야 한다. 보훈가족 및 현충공원 부지 인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제가 건립하는 현충시설은 국고보조금 지원불가로 군비로 추진하여야 한다.

영암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더불어 전반적인 주민공원 재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은 현충시설 이전계획 수립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현충시설 등이 위치한 영암공원은 보훈단체 및 유족의 접근성이 좋으나 이설 장소 선정시 접근성 및 주변환경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보훈단체와 보훈가족들의 의견이 중

요하므로 사전 협의와 충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주민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을 통해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 건강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14. 마한축제 통합

① 추진 배경

마한은 기원전부터 백제국에 병합되기까지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 분포한 소국으로 마지막으로 병합된 지역은 전남이다. 전남의 정신적 뿌리인 마한을 기념하는 축제를 나주와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그 의미를 고양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마한역사문화권 시군 유사축제 통합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2021년 12월에 완료하여 전라남도에서 마한역사문화권 시군 유사축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통합 관련된 협의절차 이행 기간은 3~4년 정도 소요가 예상되며 통합을 위한 나주시와의 이해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축제 통합은 관련 연구용역, 협의체(논의기구) 구성, 축제조직 구성(재단법인 등), 축제 통합 순으로 진행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고대 해상왕국 마한역사문화권을 국정 정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 추진한다.

나주시와 마한축제 통합 개최 시 규모 확대와 홍보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브랜드 동반 상승의 공통목표를 설정하여 상호 이해와 협의를 도출한다. 또

한 영암군과 나주시의 마한문화권 축제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하여 양 시군의 축제예산을 동일 수준으로 맞춰 행사의 통일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③ 기대효과

축제 통합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추진으로 '마한과 영산강 문화권역 브랜드를 강화하고 킬러콘텐츠를 발굴하여 남도 대표축제로서 육성한다.

15. 전통산업 특산품 포장재 등 지원 확대

① 추진 배경

전통산업의 기반이 되는 지역 특산품은 모두 그 지역의 문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지역의 문화원형의 형태적인 특성으로써 경제, 문화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역 경제, 문화관광 등 지역발전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산업을 현재의 영세성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현재 영암의 대표 전통산업 특산품 참빗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2010년 마을기업으로 등록되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중에 있으며 소포장재 지원에 2천만원, 시설·장비 지원에 1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산업 중에서 참빗 이외에도 영암군을 대표할 특산품을 발굴하고 콘텐츠화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영암의 참빗을 이용하여 마을기업(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다품종 소량 제작에 따른 자본금의 영세성,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를 관련 업종의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극복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명망이 끊긴 인간문화재를 복원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과 연계하여 전통산업의 맥을 이을 수 있다. 또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지역의 특산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16. 음식거리 조성

① 추진 배경

상시 음식거리 조성으로 군민의 음식 선택권 확대 및 관광객에게 남도 먹거리 제공 등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공약실현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등의 저촉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음식거리 조성 사업은 음식점의 입점 및 관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프라(거리 상징물, 엠블럼 설치・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가 우선 조성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남도음식거리조성사업이 21년으로 마감되어 군비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화음식 거리로 조성할 경우 특화음식 밀집지역 선정, 음식 거리 인프라 조성, 거리 내 음식점 시설개선 등으로 추진하고 지역음식거리 조성으로 추진할 경우 부지선정 및 매입, 건축물 설치, 음식거리 인프라 조성, 음식점 공모 및 입점 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위생업소시설 개선 지원사업 일부를 연계하여 추진 할 수 있다.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과(관광진흥기금 사업), 도시개발과(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상시 음식거리 조성으로 군민의 음식 선택권 확대 및 관광객에게 남도 먹거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17. 상가 리모델링

① 추진 배경

기존 상가는 낡고 조악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꺼리는 시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영암읍 도시재생 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영암읍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역리, 서남리, 동무리 일원) 11동의 상가를 내·외부 보수공사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총 공사비의 20%는 보조되며 상가당 지원한도는 32,000천 원이다.

도시재생사업과는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요망된다.

상가 번영회 구성, 청년상가입점 등을 통한 주민들의 가치역량을 구축하는 일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효과를 높힐 수 있다.

③ 기대효과

영암 군내에 노후 상가를 단장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18. 기(氣) 산업화

① 추진 배경

오랫동안 영암의 브랜드인 기를 이름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접목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오랫동안 영암의 브랜드로 사용했지만 추상적인 구호 수주에 그쳤다. 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영암을 氣의 고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오감을 만족시키는 콘텐츠와 장소,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한다. 기를 살리는 먹거리, 기를 충만시키는 웰니스 장소, 기를 느낄 지역특색 관광 상품, 풍수지리에 적합한 숙소, 난임부부 여행코스, 기 건강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氣)란 만물 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물질의 근원 및 본질을 뜻한다.

우리 영암은 월출산을 기반으로 기의고장이라 알려왔다. 무속인들이 기를 받으러 올 정도로 영험한 곳이다. 우리 영암은 예전부터 소망이 있을 때 월출산에 빌어 왔다. 아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빌면 태기가 있게 되고 하는 영험이 신통한 바위가 영암이고 월출산인 것이다. 기가 활성화된 영암에 난임센터를 설치하여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

최근 난임, 불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는데도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몸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으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의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정책이 있다. 육체적인 검사 및 과학적인 시술과 더불어 기도함으로써 얻는 불가사의한 효험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③ 기대효과

영암군의 관광객 증가 및 관계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19. 생태관광체험 문화브랜드 육성

① 추진 배경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관 설치 및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미암면 생태숲 운영(생태전시관, 어린이놀이터, 쉼터 등), 영암곤충박물관 운영(월출산기찬랜드 내), 농촌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생태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통한 생태 브랜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생태자원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수익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계획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생태숲, 영암곤충박물관, 농촌체험마을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영암 통합브랜드로 생태관광을 주도할 수 있다. 생태관광 통합 브랜딩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군내 자연 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힐링 관광지로 포지셔닝 한다.

20. 농산물 품목별 저장시설 확충

① 추진 배경

기후위기, 소비패턴 변화등에 따른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에 대해 출하량을 조절하여 적정가격 유지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제값받기와 농가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소규모 재배 품목이 많으므로 품목을 세분화하여 품명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전농가가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저장시설 확충의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 보인다.

③ 기대효과

지역농산물 저장시설 확충으로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정 및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한다.

21. 쌀 등 농산물 가공 유통기관 유치

① 추진 배경

농산물 유통의 단계 축소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과 대농, 소농,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생산자가 생산과 판매에 고민 없는 영암 구현을 위해 농산물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영암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쌀 도정, 유기농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 농산물의 저장, 판매개선과 유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산물 전문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 등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2008년 9월 26일에 설립된 영암군 농협쌀공동사업법인은 정곡 40톤/일, 조장능력 20,300톤의 가공능력을 가진 기관으로 월출산, 삼호, 영암, 서영암 등 4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영암군 통합RPC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 공모사업(국비)으로 시설현대화 추진 및 친환경 가공공장을 설치(별도의 건물 및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혼합 미연 방지) 하여 고품질 영암쌀을 가공,판매한다.

③ 기대효과

농산물유통의 거점 역할 수행으로 타지역 생산 농산물과의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고, 고품질 브랜드 쌀 판매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22. 농가 소득 중심으로 농업정책 혁신

① 추진 배경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가 소득 증대, 농민이 농업정책 수립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농업정책 수립 참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 및 종사 분야별 이해관계의 충돌로 위원회의 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위원 구성 시 전문성 및 분야를 고려한 민간위원 위촉 및 위촉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 정책 선정 심의 시 합리적인 심의기준 적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인 농정혁신위원회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농정계획 수립시 관계자 설문과 평가 등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③ 기대효과

일반 농민과 농민단체의 참여로 농업정책의 수립에 있어 영농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대시킨다.

23. 소농·고령농을 위한 기찬장터 부활

① 추진 배경

소농과 고령농이 농산물을 제값 받고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기찬장터 재개장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현재는 영암농협에 위탁 중으로 위탁운영 종료되는 2023년 12월 이후 재개장이 가능하다.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를 강화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을 확대하고 기존 기찬장터의 위탁이 종료되면 품목과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찬장터를 부활시킨다.

현 위탁 장소와 관계 없이 소농 고령농의 농산물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 추진 될 수 있다.

③ 기대효과

지역 고령농 및 영세소농의 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24. 고향사랑기금 설치

① 추진배경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에 대해 지역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공포(7월 중) 이후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 답례품의 경우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품을 전수조사 한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암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5. 축산-경종 농가 상생전략 수집

① 추진 배경

경종농가, 축산농가, 농·축협,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여 자원순환 영농단체를 구성, 축산농가는 종숙 정도의 퇴비 공급, 조사료를 구매하는 방식 등 상생전략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퇴비 생산자(축산농가)와 소비자(경종농가)간 유기적 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시간과 입장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양질의 가축분 생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농가 기계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경축순환 농업을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 자연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자연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축산-경종농가 상생 모델 발굴로 농업강군 실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6. 6차 산업단지 조성

① 추진 배경

영암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가공하고 유통, 체험,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성이 있고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체험이 결합된 농산물 6차산업을 도모해야 한다.

구례의 아이쿱 자연드림파크와 같은 형태의 6차산업 모델이나 식품농공단지 분양완료에 따른 추가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6차산업 단지 조성”은 폭이 광범위하므로 농업분야 관련 사업으로 한정하여 해당 공약명을 “지역 우수농산물 6차산업 활성화”로 변경하거나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지정 공모사업 또는 농촌융복합 관련사업 국·도비를 확보 방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기대효과

관광객 유치 및 지역활성화, 청년 사업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27. 2세농 및 청년 농업인 지원 강화

① 추진 배경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다.

『영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 등을 세부사업별로 검토하고 관련 수요조사 등을 실시 후 교육, 정착, 소득창출 등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승계 이외의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취농 프로그램 마련하고 특작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업기술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 농업인 정착단계별 정책을 체계화하고 농업계 대학 창업농 인력을 육성한다. 농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 또는 취업 연계,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지 거래 등을 활성화한다.

③ 기대효과

영암의 주산업인 농업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친화도시를 조성해 가고,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시키고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28. 품목별 연구시설 및 전문가 육성

① 추진배경

영암의 대표 특산물인 무화과, 대봉감, 고구마 등의 품종개발과 연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체계를 개편하고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농업기술센터에 품목별로 10개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주로 농업 주산작목 중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활동이 미비하였다. 품목별 연구시설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인력 증원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다.

기존의 10개 연구회의 경우, 그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을 다시 정비하여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품목의 연구회 육성에도 힘쓴다. 품목별 연구시설의 경우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되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진토록 한다.

③ 기대효과

각 품목별 연구시설 및 전문가 육성으로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9. 농축산물 고급 브랜드화 및 마케팅 지원

① 추진 배경

영암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가공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적극 대응 한다. 영암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TV, LED 전광판, SNS, 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집중 홍보하여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시킨다.

② 주요 내용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는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였는데 LED 광고는 논현, 시청역, 센트럴시티에 571백만원(21년)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조명광고는 용산역, 유스퀘어, 지하철 역사 등에 196백만원(21년),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는 226백만원(21년)을 TV, 유튜브, 라이브커머스 등에 226백만원(21년), 기타 홍보책자, 영상 제작, 온라인 마케팅의 방식에는 60백만원(21년)을 예산을 사용하였다.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마케팅은 농특산물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여 총 15회 방송(유튜브 및 네이버쇼핑라이브), 8,626건 275,305천원의 매출을 올렸다. 농산물 직거래는 상춘객 맞이 왕인박사 유적지 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고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였다.

품목별, 농협별, 농축산물 브랜드가 있으나, 경쟁력이 낮고 지역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상품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관내 생산 잡곡류(쥐눈이콩, 서리태, 팥 등)의 농협 수매를 통한 유통과 판매처를 확보하고 기찬들영암몰 마케팅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판매상품 다양화하고 판매 후 SNS 할인안내 등 소비자 사후관리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포장 디자인 개발 및 변경을 통

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판매업체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참여농가에 디자인개발 지원금 지원으로 농가 참여를 활성화시킨다.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 향토특산물 온라인쇼핑몰도 벤치마킹하여 영암다운 쇼핑몰을 구현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영암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0.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

① 추진 배경

지역 농협 중심 로컬푸드 매장의 판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물의 다양화와 판매 매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현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농산물판매센터 포함)은 6개소로 농협이 3개소 민간이 3개소 운영 중이다. 지원 주체별로 보면 aT가 2개소, 지자체가 3개소, 자체 1개소로 평균 월매출액은 독립매장이 4억, 샵인샵이 2억으로 나타났다. 로컬푸드 생산장려금 지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순회 수집차량 유류비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먹거리계획(구 푸드플랜)의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거버넌스 구성 및 농가조직화 등을 추진한다.

③ 기대효과

농가소득 증대 및 연관사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31.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확대

① 추진배경

농가 임대 선호 농기계의 기종을 확대하고, 필요시 현장 임대 및 회수방식을 도입하여 임대사업을 소비자 중심 사업으로 전환 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군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점, 삼호·시종 분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35종 748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기계 기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운송서비스의 경우 운영인력 부족으로 사고,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시만 운영 중이다.

다양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파악하고 각종 공모사업 또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농기계 기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인력, 시설, 장비, 보수 등 제반사항을 갖추고 농기계 운송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③ 기대효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고가 농기계 임대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가 절감되고, 이를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32. 농민수당 지급 확대

① 추진 배경

현재 농가당 연 60만원 지급되는 농민수당으로 불규칙한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12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19년) 이후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도입 목적에 따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교육 미실시로 공익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기존 지급분에서 60만원 추가분(120만원 지급)을 군비로 지급시 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11,000명) 된다. 기존 60만원 지급시 소요예산은 40억(도비 40%, 군비 60%) 정도이다.

농촌수당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33. 농번기 공동급식 효율화

① 추진 배경

농번기 농업인 아동 자녀에 대한 결식예방 및 돌봄부담 경감 및 농번기 공동급식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아동), 금액 등 확대가 필요하다.

일부만 이용하거나 도시락 대체시 쓰레기 문제등이 발생하고있어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사업 추진대상이 아동으로 공급방법을 아동 담당기관으로 한정할 경우 비효율적이고 사업추진이 지체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 대한 돌봄과 급식이 가능하나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92%에 육박하여 정원 증원이 필수사항이고 농번기 한시적인 정원 증원은 이후 인력관리가 곤란하고 읍면별 1~7개소가 운영되어 이용 시 아동의 접근성 문제가 있다.

사업 대상인 아동의 선정 및 관리는 아동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고 제공방법은 급식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 자체조리로 운영할 경우 현재 마을별 농업인에 대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이 365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어 본 사업을 농업인 자녀에 대한 돌봄과 급식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도시락 배달로 운영할 경우에는 반찬 배달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아동 메뉴 판매 음식점에 선계약으로 배달할 수도 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돌봄·급식 지원을 확대하거나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역아동센터 등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농번기철 아이돌봄 급식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③ 기대효과

농번기 농업인 아동 자녀에 대한 결식을 예방하고 돌봄부담을 경감시킨다.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부녀화로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극복한다. 봄·가을 농번기철 중식 해결로 시간 절약 및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작업에 참여토록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34. 귀농·귀촌 확대 및 귀향 정착지원

① 추진배경

귀농귀촌 및 귀향 인구에 대한 일자리, 주거, 교육, 정착지원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 활동을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영암서울농장 운영과 함께 2022년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향 인구정책의 경우, 군 전반적인 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 사업으로 인구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귀농·귀촌 관련 시책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되, 외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은 인구총괄부서에서 홍보책자,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진행토록 한다.

③ 기대효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계별·분야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영암군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5. 영암특산물 마을 관광자원화(무화과마을, 한우마을 등)

① 추진 배경

영암산 특산물을 작목반, 마을 단위로 생산하여 판매토록 지원한다.

② 주요 내용

마을 단위로 생산하는 특산물 판매로 관광자원화 하기에는 자원이 빈약하다. 마을 특산물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틀의 계획이 필요하다.

우리지역 특산물의 격을 높여 생산·판매에 중점이 아닌 생산자와 협의를 통해 가공기술, 청년 창업지원, 홍보마케팅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융복합 상품개발로 농가 소득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를 창출한다. 또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인력 양성사업 공모에 참여한다.

③ 기대효과

지역특산물 생산과 판매의 격을 높여 관광자원화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36. (가칭) 영암에너지센터 설치

① 추진 배경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 환경 훼손 등 기존 발전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여론을 미래의 주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운영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역 주도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한 거점으로서 지역에너지센터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할 수 있다. 현

재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지역에너지 센터를 운영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에너지센터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총 5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한 영암에너지센터의 설립 추진이 용이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에너지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영암에너지센터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37.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

① 추진 배경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등 생산 및 판매 기업, 제조 기업 등을 영암에 유치하여 산업 다변화 및 청년이 찾아오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② 주요 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주요 생산품은 '전기'로 현행 발전사업 허가에 의해 가능하며 판매 또한 한전을 통해서만 공공재로서 판매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생산시스템은 디지털 자동화로 투자 사업규모 대비 고용창출이 현저히 낮은 업종으로 2021년 7월에 대불산단에 입주한 제이씨에너지의 경우 33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고용인원은 22명에 그쳤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는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수용성, 자연환경 훼손 등 민원발생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운 조건이다.

주민민원과 환경훼손, 투자액 대비 낮은 고용창출, 자연환경적 유인요소 부족 등

으로 에너지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유치대상을 한정하기 보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기업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에 대불산단 조선업체의 사업다각화와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발전사업 구조물 제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③ 기대효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등 생산 및 판매 기업, 제조 기업의 영암유치를 통해 영암의 산업을 다양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38.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① 추진 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시대가 도래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직접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마을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한다.

② 주요 내용

2026년까지 에너지자립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원확보가 문제로 제기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자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마을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한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국비 지원사업 위주로 추진

한다. 신규 주거단지 개발시 마을 전체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고 전라남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③ 기대효과

직접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마을 전체가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전환 및 비용 절감으로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

39.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

① 추진 배경

미세먼지, 플라스틱 폐기물 등 기후 및 환경위기 가속화로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삶의 질의 악화가 심각하다. 기후변화 위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기후탄력적 도시 환경 구축 · 전환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환경부의 그린뉴딜정책 일환으로 기후탄력은 기후대응을 위한 센서 기반의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과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및 적응기술(시설) 조성하는 사업이고 물순환은 도시 물관리 통합설계를 통한 시설 설계 및 건설, 물순환 시스템 순환을 위한 물관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물안전은 안전한 물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진단 및 감시를 통한 인프라 관리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인프라가 주요한 고려 요소이다. 미래차는 충전인프라 및 연계 복합시설, 미래차 확대를 위한 정책 및 공간설계, 서비스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자원순환은 저감기술, 수거플랫폼 및 중고물품 공유서비스, 분리수거 자동화 등 단계별 기술 도출이 주요 내용이고 생태복원은 주요 공간별 생태복원 및 스마트 기술의 적용으

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업유형이다. 생태휴식은 유형이 다른 기술이 고려된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사업대상이고 청정대기 오염물질의 각 특성에 따른 관리 및 저감을 목표로 하며 타 정책 및 서비스, 데이터와 연계 및 통합하여 제시한다. 환경교육은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시설 유치와 콘텐츠 발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생활환경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열환경·빛환경,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예방, 저감, 관리를 위한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유형이다. 자유유형은 위의 유형에 관계없이 지자체, 시민단체, 민간업체 등이 환경도시 특화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발굴·제안하는 창의적인 환경도시 사업이고 기후탄력은 기후대응을 위한 센서 기반의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과 저감을 위한 그린인프라 및 적응기술(시설) 조성사업이다.

2021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미선정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2023년 사업 성과 분석 후 차기 공모사업 추진 방향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③ 기대효과

인간 ·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도시”로 영암이 발돋움해야 한다. 그린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역 기반의 도시 녹색전환을 촉진하여 기후변화 대응력, 포용성, 환경질 제고를 지향한다.

40.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영암군민발전소 설치

① 추진 배경

신재생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하여, 민원은 줄이고 발전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우리 군은 한전 선로용량이 초과하여 발전사업에 신규로 진입하기가 어렵다. 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주민여론과 군 도시계획 조례의 이격거리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주민참여 유도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도입으로 발전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도시로 자리매김 한다.

③ 기대효과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주민소득의 증대시키고 지역· 기업의 상생을 견인한다.

41. 청년정책지원부서 등 신설

① 추진 배경

주거, 금융, 결혼, 출산, 교육 등 청장년기 영암군민의 삶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부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조직진단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9~10월 예정)와 전남도(11월 예상)의 조직진단 및 개편에 따른 우리 군 조직개편의 절차를 거치려면 연말까지는 시간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 조직개편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정부 및 전남도 조직개편, 군 조직진단, 조례개정 준비 등)가 10월까지 완료 되어야 한다.

1차(2022년 12월), 2차(2023년) 조직개편 실시한다. 1차 조직개편은 청년정책지원부서 및 법 시행에 따른 조직을 신설하고 2차 조직개편은 용역 결과 검토 및 1차 조직개편 보완하여 추진한다.

③ 기대효과

자체 조직진단 실시로 신속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조직 개편의 조기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시행시기를 단축시켜야 한다. 청년정책지원 전담부서 신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지역인재 이탈 방지 및 타 지역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42. 청년주택 및 마을 조성

① 추진 배경

청년의 정착환경 조성을 통해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부심을 강화한다. 청년층의 고유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② 주요 내용

농식품부에서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2019~2020)을 실시하였는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개소당 40억원 지원하며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소 5년 이상 임대하여 최소한의 임대료로 거주하는 시설이다.

농림부에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의 확대를 계획(~'26년, 5개소)하고 있다. 귀농·귀촌 업무(농업기술센터) 또는 청년 업무(기획감

사실)를 부서별 업무 분담 등을 협의하여 사업공모를 준비한다.

어르신 및 대학생 셰어하우스는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는 주거 공유사업으로 주택의 도배·장판, 거실·주방·화장실 등 공유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을 추진한다. 임대주택의 수요파악, 빈집 등의 활용도가 높은 주택선정, 대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암군, 청년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자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③ 기대효과

청년 임대주택 확산을 통해 전월세 시장안정과 주거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지역청년들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확보를 통한 지역의 역동성 및 활력을 확대하고,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43. 청년기금 조성

① 추진배경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기 시행 중인 전북 정읍시의 경우 지자체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기금성과분석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청년기금의 사용 목적과 추진전략 등에서 지역 청년들의 수요를 반드시 반영하여 기금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③ 기대효과

청년정책의 재원 마련으로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지역의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4. 농업유통활동가 육성

① 추진 배경

영암형 농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하는 농산물 유통의 현장에서 농업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장을 운영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한다.

② 주요 내용

농산물 유통공사가 현재 부재한 상태로 농업유통활동가가 필요한 분야의 소요를 파악하여 교육 및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먹거리계획(구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역 내의 농업 유통활동가를 육성한다.

③ 기대효과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한다.

45. 청년문화거리 조성

① 추진배경

지역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 대책으로 영암읍에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청년문화 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2021년 영암군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불만족 응답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암읍 상가가 주로 도로에 위치해 있어 청년들의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는데 차량통행 불편 등 제한사항이 있다.

청년소통센터와 연계하여 청년협의체 등 청년단체가 주체가 되어 청년몰, 영암읍성, 소공원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관련 시설물을 한 곳에 집중 설치하여 청년거리로 명명할 필요가 있다.

③ 기대효과

지역 청년 중심 문화예술 행사, 축제 개최를 통해 청년문화 활동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영암읍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6.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① 추진배경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의 지역적 불리를 정치력으로 극복하고 아이 출

산과 양육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내 산부인과, 소아과 설치가 선결 과제이다. 산부인과는 분만 취약지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가 가능하나, 소아과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우선 설치하여 기반을 조성한 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도록 한다.

③ 기대효과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통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증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7. 청년 자율예산 운영

① 추진배경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미래혁신적 관점을 정책과제 발굴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세대균형의 군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청년자율예산제는 군수의 권한인 예산편성 권한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양하여 일부예산 편성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자율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와 병행하여 추진이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제 운영조례에 청년 참여예산위원회를 규정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기대효과

청년 당사자가 예산 편성 및 정책기획에 참여하여 함께 숙의하고 공론하는 청년자율예산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영암형 청년자치 모델 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48. 청년문화수당 지급 확대

① 추진배경

현행 문화수당으로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운 소액으로 지역청년들에게 인상된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을 통해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② 주요 내용

영암군 청년발전기본조례에 청년의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49세까지로 정의되어 있다. 현재 전라남도 사업으로 만21세부터 만28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카드 사업(연 20만원 문화복지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위의 사업과 연계로 영암군 청년연령(만19세 ~ 만49세)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사업의 연령조정이 필요하다.

1인당 지원금은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사업과 동일하게 하되, 재원 확보 상황을 감안하여 대상 연령과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토록 한다.

③ 기대효과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로 청년들의 향후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9.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

① 추진배경

출산지원금을 상향 지원하여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현재 영암군에서는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550만원, 넷째아 750만원, 다섯째아 95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타지역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수반사항을 충분한 검토한 후 출산지원금 금액을 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토록 한다.

③ 기대효과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인 영암군에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50. 신혼부부 지원 확대

① 추진배경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현재 영암군에서는 결혼장려금 지원(3년간 총 500만원), 신혼부부 주택 마련 대출이자 지원(3년간 최대 월 15만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등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현금성 사업 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교육·의료 서비스 지원 등 인프라 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및 신혼부부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한다

③ 기대효과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소멸 위기인 영암군의 인구 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1. 영암형 취직사회책임제 시행

① 추진 배경

인건비와 융자를 지원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 기업이 정규직 신규 직원 1명을 채용하면 100만원의 인건비를 1년동안 지원하는 고용창출 방식이다.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3천만원씩 5명까지 융자를 받게 도와주고 2년간 이자와 보증료 지원, 3년 유지하면 융자금 30% 지원 방식이다. 실업과 고용불안, 저임금 등 기업성장과 일자리를 회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군민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영암형 일자리 고용시스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취직사회책임제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고용창출과 유지자금으로 3· 3· 3자금제도가 있다. 신규 채용시 기업 융자 지원 및 고용 유지시 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업과 행정이 일자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년간 근로자 1인에 대해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금액과 방법, 대상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수요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과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고 전라남도 및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고용창출 유지자금을 연계할 수도 있다.

③ 기대효과

지역의 기업과 주민이 주도하는 안정된 고용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52. 소상공인 분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확대

① 추진 배경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청년층의 지속되는 실업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야기하여, 연애, 결혼 및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 청년이 겪고 있고 예상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실행하는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분야에서 활력이 떨어진 어르신 소유 점포를 청년임대 등 방법으로 세대교체를 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일으키는 취지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올해 추진하고 있는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 영암 밀키트 사업과 같은 영암형 창업지원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고 관내 대학과 연계한 대불국가산단 인력 확충, 지역 우수 농· 특산품 활용 청년 창업 확대, 빈점포(유휴공간)를 활용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 귀농· 귀촌 유입 지원, 청년 주도의 문화관광(축제) 산업 육성, 분야별(연령· 거주형태 등) 청년 주거지원 확충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시책사업과 연계한 주거확대· 일자리 창출· 문화 공간 형성 등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영암형 창업지원사업 확대 및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③ 기대효과

다양한 일자리로 찾아오는 영암, 돌아오는 영암으로 만들 수 있다. 청년 정착

으로 활기찬 지역 만들기에 기여한다.

53.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노인 시니어클럽 설치 병행 추진)

① 추진 배경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활동 보장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모델 개발, 노인 참여 증진을 위한 노인시니어 클럽 설치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및 노인 소득증진에 기여한다.(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

② 주요 내용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2년도 5,691백만원 예산편성(국50%, 도15%, 군35%)되었고, 기 시행 중이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시니어클럽 을 설치하고, 운영에 따른 시설(사무실, 상담실, 작업장 등) 확보 및 위탁 운영비,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

시니어클럽 시설(사무실, 상담실, 작업장 등 구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노인시니어클럽 설치 및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영암군 노인회와 협의하여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기회 보장 및 노인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기 시행 중인 노인 일자리사업 중 시장형 일자리를 적극 발굴 및 확대하여야 한다.

③ 기대효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설치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의 소득증대 및 보람있는 여가 선용이 가능하다.

54. 마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① 추진 배경

마을별로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마을별 공동작업장 설치가 필요하다.(도비 지원사업, 노인복지법, 영암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시혜적 복지사업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며 어르신들의 경험을 자원화하고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② 주요 내용

농촌 고령화 추세로 인한 경로당 회원 중 근로가능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사업 수행의 어려움 예상(22년 현재 신청마을'5개소→2개소'로 감소)된다. 추가 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고, 11개 읍면에 신규 공동작업장 발굴 및 운영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젓갈류 등 식료품 제조·판매 시 식품위생법 등의 저촉 가능성이 있고 제품 수확 및 생산 후 판매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비 지원사업(도 30%/군 70%)으로 1개소당 평균 6.5백만원 예산이 필요한 로컬푸드 매장 등 판매처 확보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별 3백만원에서 8백만원이 지원되는 영암군 마을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은 학산과 미암에 추진 중인데 전라남도 31개소 중, 영암군에 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읍면별 특성에 따른 신규 공동작업장 발굴 및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젓갈류 등 식료품 제조·판매 시 식품위생법 등 사전 검토에 보건소 및 위생팀 자문·협조를 통해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제품 수확 및 생산 후 판매처 확보방안으로 로컬푸드 매장 등 판매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마을별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마을별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여 노인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한다.

55. 100개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① 추진 배경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과 이윤을 넘어 나눔의 방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 및 육성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전남도 등 인·지정 기관 주관 공모사업에 매년 참여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저조한 상태이다. 전남도 일자리 평가 및 군 자체평가 항목에 '사회적 경제 기업 증가율'이 연 2%에 그치고 있다. 매년 목표달성 중이나 목표치가 낮게 선정되어 있고 인·지정 심사에 최대 5개월 소요된다.

계속사업 6개 사업 및 '22년 신규사업 3개를 추진하는 등 매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목표를 확대하여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사회적 예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100개를 선정육성한다.

③ 기대효과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양극화를 줄이는 등 불균형

해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56. 일자리 안심공제 시행

① 추진 배경

근로자와 기업주, 군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시행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지역 근로자 임금 격차 해소, 지역인재 역의 유출 방지, 양질의 일자리 제공하자는 취지이다.

② 주요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전남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유형의 사업들과 중복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심공제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재정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개선되고, 기업은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통해 경영환경의 안정을 꾀할 수 있고, 핵심인력의 채용과 양성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57. 농촌 인력 수급 대책 수립

① 추진 배경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매년 인력난이 심화되어, 해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인력수급 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에 대비로 귀국 보증금 예치, 성실 근로자 재입국 추천 등의 방법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농촌 및 제조업에 필요한 인력을 해외 도시 협약, 기숙사(월출산관광호텔, 폐교 등) 지원 등으로 확보하고 농어업 분야 종사 시 5개월간 근무 가능한 계절 근로자 제도(법무부)를 적극 활용하며, 기숙사 건립 사업(공모)을 적극 추진한다. 워킹홀리데이처럼 대학생 등 도시 지역 젊은 층의 농촌활동 지원 등의 방안도 추진 가능하다.

③ 기대효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근로자 이탈방지로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58. 튜닝산업 활성화 및 규제자유특구 조성

① 추진 배경

국제자동차경주장 등 튜닝 인프라 기반으로 미래차 산업육성 및 기업유치를 본격

화하여 한국판 뉴딜 사업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정책 등으로 확대될 전기차 시장에서 개조전기차 미래 친환경 핵심기술을 선제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3차 중기부 분과위원회를 통과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재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산업부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사업」 심사 중으로 선정될 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군비 약 40억원 확보 필요하며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사업 확정 시 군비 약 30.1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통해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 사업과 국비사업을 병행 실시해야 한다. 튜닝 자동차 전시, 경주 대회, 시승, 관련 물품 판매 등 튜닝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59. 영암개발공사 설립

① 추진배경

공익사업 개발 한계를 보완하여 군의 주도적인 사업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영암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공영 개발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안전성 보장으로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할 실버타운, 각종 공공시설,

공공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하다.

② 주요 내용

주민편익과 문화 및 생활공간 창출이 목적인 군 주관 개발사업이 가능한 지방공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우후죽순의 지방공사 설립과 경영부실, 민간영역 침해, 재원조달 방법 불투명 등을 우려하고 있다.

수익과 비용분석, 공공성, 경제성을 동시해 고려한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③ 기대효과

지역개발 여건 성숙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0. 군수 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 설치

① 추진 배경

인구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저출산, 자연감소, 취업 및 교육 등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화된 상가와 고령화된 상인, 코로나19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지역상권 침체되고 있다.

상민,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군수 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시킨다. 상권활성화추진단은 상권활성화계획에 대한 의견 개진, 이해관계자의 합의 형성 역할, 사업의 조정기능 역할을 수행한다.

③ 기대효과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공무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춘 군수 직속 상가활성화 추진단 운영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61.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① 추진 배경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이동노동자 규모, 수요 등 설문조사 실시 및 사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지원금 형태의 사업방향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근무지가 광범위한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위치를 특정하여 한 곳에 쉼터를 제공하는 것과 다수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강검진비 지원, 안전용품 (안전모, 응급키트 등), 지원금 지급 등의 지원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이동노동자의 쉼터 제공으로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환경을 이용한 노동자는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존감 향상이 될 수 있다.

62. 군내버스 완전공영제

① 추진 배경

군민의 취약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조기 도입이 필요하나 재원 마련 방안 등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버스업체의 운영권 회수와 근로자 고용 불안정의 문제가 있으며 군내버스 운영방식을 노선 입찰제, 위탁운영 등 준공영제를 거쳐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중장기적 과제이다.

100원 택시 확대,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교통편리성 확대 등을 검토하고 버스 공영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농어촌버스 운수업계 경영난에 따른 이용객에 대한 교통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불편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으로 수익·비수익 노선의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63. 청소차량 교체 도입 및 인력충원

① 추진 배경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수리유지비 비용도 증가할뿐더러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차량 교체 구매 예산을 세워 교체가 필요하다. 또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 적정부하량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2021년 4대, 2022년 1대를 교체하였고 매년 내구연한 도달한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있다. 인력 충원시 인건비 등 총무과와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탄소 중립 실현과 노동자 건강을 위해 전기차 도입도 적극 추진 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노후 청소 차량의 단계별 교체 도입 및 인력충원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

64. 노동상담소 예산지원

① 추진 배경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와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타 공익단체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노동상담소 예산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2014년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에 위탁하여 노동상담소를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30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 예산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타 공익단체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검토되어야 한다. 특정 단체에서 장기 위탁 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도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노동상담소를 포함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신장과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65.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및 안전보건지킴이 양성

① 추진 배경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센터는 삼호지역에 필수적인 시설로 유치되어야 하며, 전남지역본부에서 선발하는 안전보건지킴이는 퇴직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고요인을 감소시키므로 확대 양성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센터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는 작업환경 컨설팅, 필수노동자건강진단, 직업성 질환관리 등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20. 7개소)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지킴이는 '산업안전' 자격을 갖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신규 사업발굴 및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센터 유치보다는 기존의 전남 서부근로자건강센터의 사업 확대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산업안전보건센터의 기능을 대체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사업인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을 신규사업으로 발굴 신청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가 기대된다.

66. 조식식당 개소

① 추진 배경

대불산단 근로자들의 조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이용자(관내 근로자) 대상 수요조사 및 내·외국인 근로자의 다양한 식생활 패턴 등 세부적인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산단 내 영업 중인 조식식당 사업자의 영업권 영향으로 민원 및 마찰을 피해야 하며 산단 내 기존 식당에 위탁운영 시 기본경비(건물 임대료, 인건비 등) 보전에 따른 실제 급식단가의 책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불산단 입주기업 및 근로자 대상 수요조사 후 지역 노동자 형태에 맞는 조식 식당 운영 필요하다. 새일센터, 영암지역자활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기대효과

조식식당은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 직장인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민관협력 사회적 서비스 상생 모델로 창조될 수 있다.

67. 비정규직 노동자 유급병가 지원제도

① 추진배경

영암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2022년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였지만 미선정 되었다. 지자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재정 부담이 큼으로 조례 제정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반을 마련하고 2~3단계 시범사업 공모시 적극 응모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대효과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아픈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8. 고교학점제 대비 지역대표 고등학교 육성

① 추진 배경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영암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고등학교 육성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2022년 현재 관내 6개 고교(인문계 4개교, 특성화고 2개교) 중 특성화고 2개교(구림공업고등학교, 전남에너지고등학교)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학점제 제도를 도입 중이며 2025년도에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비에는 468,000천원(군비 100%)이고 영암고에 67,440천원, 영암여고에 70,860천원, 낭주고에 52,680천원, 삼호고에 109,020천원, 구림공고에 76,000천원, 전남에너지고에 62,000천원이 배정되었다.

제도가 변경되는 과도기임에 따라, 2025년 전면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통해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계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을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비로 활용 가능하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교육부 및 도교육청 지원 예산과 더불어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구성 등 예산지원 필요 시 검토 후 군비로 추가 지원이 되어야 한다. 지역 교육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변화될 교육제도에 학교 및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대표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69. 300인 영암 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행

① 추진 배경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학생 300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영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왕인아카데미 운영,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 특기적성 개발 활동 등 학생들의 학업 향상 및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인재육성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해지는 관심영역에 대한 확대와 프로그램의 질을 깊이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초등학생이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지역 대학에 진학 후 지역의 기업에 취직하겠다는 약정을 하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학생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영암의 미래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70. 영암농산물 활용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① 추진 배경

영암지역의 모든 학교에서 영암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영암농협, 삼호농협, 서영암농협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해관계 단체와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우리 군 농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재료의 소요를 파악하고 효율성 있게 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학교급식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 내 소농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71.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

① 추진 배경

체계적인 영암의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영암미래교육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기존 영암교육지원청(주무관청) 소관 재단법인인 영암군민장학회를 활용하여 영암 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 추진한다. 영암군민장학재단이 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영암군민장학재단의 기본재산(103억)을 이용하고, 군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현재 군 출연금 12억)

영암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용역을 시행, 주민 의견 수렴 후 장학회 명칭 및 정관 변경 및 등기를 변경하여 영암미래교육재단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군민장학재단을 활용하여 영암미래교육재단으로 확대하고 기존 장학사업과 「미래교육지구 운영 지원 사업」을 융합한다.

③ 기대효과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지역 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 직업교육, 지역방과후 돌봄센터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교육사업 관련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7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① 추진 배경

지역의 각 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2021년 하반기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비은 700백만원으로 교육부 100백만원, 군비 300백만원, 도교육청 300백만원을 교육자치협력센터의 운영 및 마을학교 운영 지원하는 등 마을교육공동체 14개교('22년)에 지원하고 있다.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진행 및 확대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연번	마을학교명	소재지	대표자	강사수	주요 운영 프로그램
1	모정마을작은도서관	군서면	김창오	5	교과연계프로그램, 모내기공동프로젝트 등
2	희문화창작공간	군서면	김미희	8	우리고장나들이, 문화예술교육 등
3	아뜨랑	덕진면	김정숙	18	우리고장지역문화탐방, Project앱제작 등
4	학산가온누리	학산면	설지혜	8	스마트영상제작, 환경동아리
5	다올	영암읍	최훈아	8	농촌융합복합교육, 로컬에듀교육 등
6	소리터	군서면	임상욱	4	구림농악 배우기, 농악 발표회 등
7	도깨비	삼호읍	남은선	5	그림책 만들기, 우리동네 플로깅 등
8	(사)여담은규방문화원	군서면	이혜숙	4	천연염색프로그램, 규방공예 프로그램 등
9	꿈트리협동조합	군서면	안이숙	12	영암역사탐방대, 명량운동회 등
10	한마음	삼호읍	성명제	5	마을체험프로그램, 역사탐방 등
11	허브	도포면	김수희	9	서예, 도자기, 팜파티, 한과, 농가체험 등
12	효동농촌체험휴양마을	시종면	박복용	10	역사문화탐방, 전통문화체험 등
13	(유)영글본힐링교육원	학산면	최경돈	8	두부만들기, 가죽공예, 석고방향제 등
14	위드석봉협동조합	영암읍	이훈	5	환경공예, 목공예, 라탄공예 등

③ 기대효과

학교혁신 전면화를 위한 학교 혁신역량 강화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73. 영암공공도서관 이전 신축부지 주민의견 수렴 결정

① 추진 배경

신축 예정된 공공도서관이 이전부지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장소로 결정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공공도서관 신축 이설 변경 계획 수립 및 사전기획 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이다.

이설 위치	개관 시기	사업비 총액 (천원)	사업 규모(㎡)		열람석
			부지	연면적	
영암읍 회문리 418-1,2 일원 (기찬랜드 내)	2025. 6.	19,133,699 군비(5,000,000)	10,998	3,900	570석

현재 영암공공도서관 신축(이설)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 행정절차 심의 후 실시설계를 공모 할 예정(7월)이었으나, 현재 부지의 타당성 및 대체 토지 논의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설 부지장소를 검토· 결정한다면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있어 공공도서관이설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축 예정된 공공도서관 이전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시 현재 이설 부지에 대한 찬반 논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부지의 타당성 또는 부적절성에 대한 대체 토지 검토하고 최적의 장소를 결정한다.

③ 기대효과

공공도서관 이설 예정부지를 최적의 장소로 결정하여 주민들의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시키고 로컬노믹스(Localnomics) 실현이 가능한 영암군 및 전남교육의 문화인프라 충족과 중심도서관 역할을 제고하다. 문화교육 및 지식정보 충전, 지역 맞

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지적문화와 자산의 집결, 지역의 비전을 담은 미래지향적 공간을 마련한다.

74. 에듀팜 조성 지원

① 추진 배경

도심지역의 청소년이 영암지역에 방문하여 다양한 농촌을 체험하고 도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농촌에 대한 체험을 원하는 학생이 영암의 학교로 전학하여 생활하는 교육공동체 발전 및 관계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영암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 지원사업(도 공모사업),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농촌유학 비품 구입 지원사업 등 농촌유학생을 위해 지원 중이다. 2022년 농산어촌 유학생은 14가구 21명(초등학생 19명, 중학생 2명)이고 농촌유학 체류 마을 조성 지원 사업비는 400백만원(도비 240, 군비 160)이다.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및 비품 지원 사업비는 87백만원(군비 87)이 지원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영암 농촌유학 체류마을 조성 지원사업,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농촌유학 비품 구입 지원사업 등은 농촌유학생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 및 개발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도시지역 유학생 유치를 통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 및 인구의 유입이 기대되며 유학생 유치로 작은 학교 활성화와 유학생의 생태 친화적 교육환경이 제공될 것이다.

75. 군 소유 폐교 공공제로 재활용 방안 강구

① 추진배경

군 소유 폐교 공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영암군 소유 폐교는 2개소로 모두 민간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료로 매년 총 3,50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군 소유 폐교는 2개소로 학산면 은곡리 112에 위치한 학산서초등학교와 삼호읍 삼포리 6외 2에 위치한 삼호장전초등학교이다. 엉클빈힐링교육원과 우리재가복지에 대부 중이다. 아울러, 재난 및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500만원 이상 공유재산 환경정비 예산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관리 중이다.

③ 기대효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6. 청소년 공공데이터(와이파이) 지원 확대

① 추진 배경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공간에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보취약 청소년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② 주요 내용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광지와 공공장소 10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체육시설 5일 시장에 등 구축 완료되었다.

매년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추진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규로 구축하고 있다.

③ 기대효과

청소년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통신비를 절감하여 통신복지 증대시킬 수 있다.

77. 학생교육문화수당 지급

① 추진 배경

학기 초 학생교육문화수당을 모든 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교재 구입,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학생들의 교육·문화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대학생 입학축하금, 무상교복지원금,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카드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학생교육문화수당과 성격이 중복될 수 있는 지원정책들과의 사업 성격 중복 여부 및 예산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의 사업 대상 및 지급액을 조정하여 학생교육문화수당 사업 명목으로 사업 검토 및 재편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학생교육문화수당 지급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및 문화 활동 등의 기회 부여할 수 있다.

78. 영암학숙 운영(수도권 / 광주)

① 추진 배경

수도권과 광주(통학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영암학숙을 운영하여 영암출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② 주요 내용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남도장학회를 통해 1남도학숙과 2남도학숙을 운영 중이며 영암군 단독으로 학사 운영 추진 시 부지검토 및 건축비 등 사업비 및 사업 추진 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추가모집 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학생들에게 주거여건을 개선을 통해 학습권이 신장 될 것이다.

79. 청소년 군정 참여위원회 설치

① 추진 배경

청소년 관련 제도에 대한 청소년층의 군정 참여와 숙의의 모델 구현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청소년기본법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청소년층의 군정 참여는 현재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9명)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최대구성 가능인원 20명)

위원 구성시 청소년으로만 구성하며, 청소년 위원 활동을 자문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 전문가를 멘토로 두어 활동시 적극 활용하여 위원의 역량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 위원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원 모집시 다양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한부모가정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가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청소년의 군정 참여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정책발굴 역량강화와 군민으로서의 주체성 함양에 기여한다.

80.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전환

① 추진 배경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련 전문 민간기관의 위탁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전라남도에서는 수련관 9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직영이 4개소, 위탁이 5개소이다.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010년 11월 4일 개관하여 2012년 12월 31일부터 직영운영 중이다. 청소년 수련관은 공무원 4명과 공무직 9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공무직 6명과 기간제 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위탁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종사자(15명)에 대한 고용승계 및 인건비 지급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 민간위탁시 수탁계약 기준에 맞는 청소년 단체가 소수에 불과하고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제반 프로그램 이용시 이용료의 부담 발생에 따른 청소년의 이용율 감소가 예상된다.

위탁 공모시 공무직에 대한 고용승계 및 인건비 지급기준 이행을 조건으로 수탁단체 선정하여 종사자에 대한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역량있는 수탁 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시설 운영 및 제공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운영능력 및 성과평가에 대한 수탁기관 평가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수련관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군이 직영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일 청소년수련시설인 삼호읍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함께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전환을 통하여 민간의 전문성

과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81. 청소년 국내외 체험교육 지원

① 추진 배경

체험교육 지원을 통해 영암 청소년의 견문을 넓히고 영암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한다.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 이바지를 위한 교류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국내외 체험 사업 추진중이다.

② 주요 내용

기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던 국내외 체험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20년도부터 중단되었다. 한· 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 문화체험, 외국어 현장체험 학습지원 등으로 2019년 해외 체험교육 사업추진 실적은 한· 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2개교)에 40백만원,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 문화체험(중등 12개교, 특수 2개교)에 400백만원, 외국어 현장체험 학습지원(학생 30명, 인솔자 5명)에 40백만원 등이다.

자매도시 영등포구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교류는 매년 7~8월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호방문· 초청을 통해 문화유적· 관광지 견학 및 체험활동 등 도시· 농촌문화 체험활동 사업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도부터 사업이 취소되었다. 자매도시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교류는 매년 5월, 10월 중 영암여자고등학교· 신세기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 간 상호 방문· 초청을 통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활동 사업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2021년부터 사업이 취소되었다.

기존 추진되었던 국내외 체험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의 재개 및 사업 조정 검

토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내외 체험교육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대효과

학생들에게 국내외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견문을 넓히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한다.

82.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① 추진 배경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과 같은 넓은 공간 없어 특히, 우천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② 주요 내용

청소년수련관, 삼호읍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과 문화활동 및 청소년 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들어와 일정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청소년 체육활동 및 문화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련관 내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및 지역내 관련 자원(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실내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수련관 및 삼호읍 청소년문화의 집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주말 또는 우천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아동 청소년 전용 실내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

다. 생태공원 조성 등의 공약과 연계하여 공원조성 시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것도 공원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③ 기대효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한다.

83. 영산강 해수 통수 및 수변공원 조성

① 추진 배경

영산강(영암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 통수 및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영산강 유역을 적극 활용한다.

② 주요 내용

영산강 해수 통수시 영암뿐만 아니라 해남, 무안, 함평 등 여러 시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의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 농업용수 공급 차질, 양식장 어업피해, 하천범람, 농지 침수등의 문제로 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다. 전라남도와 협력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영산강 해수 통수 및 영암호 해수 통수와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수 통수는 국가기관과 관련 업무 협의 및 연계가 필요하다.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 부분은 꽃길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자전거 및 조깅구간을 위한 도로정비와 관리가 용이한 식물(코스모스, 해바라기 등)로 군락지를 조성하면 추진이 용이하다.

③ 기대효과

수변공간 자전거, 트레킹 코스 및 마라톤코스와 연계가 기대되며 각종 동호회 경기 및 꽃길 홍보를 통한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다.

84. 영농폐기물 처리 확대

① 추진 배경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장기간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고 토양오염을 유발하므로 군 자체예산 편성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한국환경공단과 업무 협약하여 예산 조기 소진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수거품목 중 다량으로 발생하는 영양제병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거 및 보상비를 지급토록 검토해야 한다. 수확 후 발생하는 고추대 등과 같은 작물대의 처리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영농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처리를 통하여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소각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85. 도로 야간 안전시설 확충

① 추진 배경

가로등 및 도로 안전표지판, 횡단보도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야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킨다.

② 주요 내용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읍면 소재지 및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야간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교체 한다.

하반기 도로안전 확충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 예산확보하여 착수하고, 용역 추진 후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하여 안전시설을 보완한다.

③ 기대효과

도로이용자의 편리성을 증대시켜 이용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가 기대된다.

86. 영암군 자전거길 조성

① 추진 배경

영암의 접근성과 자연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주변 볼거리와 먹거리를 결합한 안전성 높은 자전거길 조성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현재 자전거도로는 총 28개 노선으로, 길이 48.43㎞(영암 0.7, 삼호 44.52, 군서 ③21)가 개설되어 있다. 영산강 수변길 자전거도로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데 1구간 영암꽃 가람길은 삼호대교에서 망월천, 독천낙지마을, 학파제 구간으로 38.2km, 2구간 월출산 가는 길은 학파제에서 천황사, 영암천, 영산강 구간으로 30.0km, 3구간 마한 가는 길은 영산강에서 마한문화유적지, 나주 동강으로 이어지는 2②1km로 추진 중이다.

친환경 영산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레저스포츠 모델을 만들고 전국 자전거 동회회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레저스포츠의 홍보 및 대중화를 위한 전국 대회의 메카로 육성한다. 영산강 수변공간 꽃길 및 휴게시설 조성과 연계하고 자전거도로 조성에는 많은 사업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성 후에도 유지관리비용 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영암의 자연과 스포츠를 결합하여 군민의 생활여건을 개선, 외부인의 방문을 도모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87.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사업 추진

① 추진 배경

저출산과 인구유입 감소로 소멸위기인 마을의 관리를 위해 소재지권 중심의 주거공간 확충 및 농촌마을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농촌마을의 소멸에 대비한 소재지권과 독립마을의 역할을 분리한 주거모델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각각 개별적으로 공모하던 사업들을 5개년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한다.

영암의 복지주택이라 할 수 있는 달뜨는 집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립주택 형태로 건립되었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독립된 집단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읍·면별 1개소(신북면은 2개소) 복지주택을 건립 운영하여 현재 54가구 87명이 거주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 형태로 개인 텃밭이 제공되는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고 추가 복지주택 건립 시 사업부지 확보(토지매입), 공유재산 심의 등이 필요하다. 영암읍(250호), 학산면(120호)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집 결과와 향후 읍·면 소재지권 복지주택 건립에 대한 주민수요조사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구 감소로 소멸에 직면한 농촌 마을의 인구를 정주여건이 좋은 소재지권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주거가 실종된 마을 중심은 농업생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각각이 역할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주거와 생산등의 공간구조를 재구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마을 소멸에 대비한 주거모델을 제시하여 소재지권의 주거 통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88.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지원

① 추진 배경

영암군의 공동주택은 30년 이상된 낡은 아파트가 많아 불편하고 위험이 상존하는 거주 공간이다. 오래된 아파트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하고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사용검사(승인) 15년 경과한 3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용시설 보수지원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용시설 보수지원을 확대하고자 2022년 4월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다. 2022년 하반기 또는 2023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공모 절차를 통해 보조율 70~80%로 지원하고자 한다.

③ 기대효과

낡은 주거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89. 마을 사무장(코디네이터)제도 확대

① 추진 배경

마을 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활성화 및 마을 현안 파악에 도움이 된다.

② 주요 내용

지식있는 활동가가 마을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취지에 맞는 인력을 모집하려고 하면 인력 모집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각 읍면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있는 활동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③ 기대효과

마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스럽게 마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열정과 지식이 있는 활동가로 육성한다.

90. 빈집 정비(청년 정착, 관광분야 활용)

① 추진 배경

인구 감소로 인해 비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청년 정착용 주거지 및 관광용 숙박시설로 활용한다.

② 주요 내용

빈집의 보수 및 관리비용 지원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빈집 소유자가 불분명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빈집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소유자가 자진철거토록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빈집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군 누리집 공개한다.

빈집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사업과 연계 할 수 있으며 빈집 노후화로 보수 및 관리

비용이 과다로 철거 할 경우 철거 위주의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 청년 정착 주거지(기획감사실) 및 관광용 숙박시설(문화관광과) 활용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협의토록 한다.

임대주택의 수요파악, 빈집 등의 활용도가 높은 주택을 선정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암군, 청년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자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대학생, 사회 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주거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공간 확대 및 농촌체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의 역동성 및 활력을 확보한다.

91. 영암 공공 어플 보급

① 추진 배경

각종 민원 요구 및 처리, 현장 사진 전달, 정책제안 등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도록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 군민의 정보격차 해소, 주민 알권리 및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 어플 구축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모바일 대민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개발 후 1년이 지난 어플은 모두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후 폐기, 개선, 유지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공공앱 사용이 불편하여 군민들 및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행정 및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각종 실내 교육이나 행사 시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홈페이

지 자료 연계 및 자발적 부서 홍보자료 게재도 유도한다.

③ 기대효과

공공어플을 통한 군정정보의 실시간 확인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군민이 직접 자료를 올릴 수 있는 환경 구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다.

92. 영암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① 추진배경

평범한 군민이 군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대표적 기구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군에서는 영암군 정책발전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2013년까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군민이 군의 전반적인 정책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의 조례를 재정비하여 <영암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로 전면 개정하고, 위원구성의 일부는 추첨제 방식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군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군민참여 '영암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의 활동은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피부에 와닿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3. 목요대화클럽 시행

① 추진 배경

지방자치의 본질인 군민의 의견을 행정편의주의로 치부하지 않고 소통창구를 정례화한다.

② 주요 내용

목요대화클럽 시행 시 건의 내용 검토 및 조치를 위해 주기적으로 대상자를 달리하여 시행한다.매주 다양한 군민과 현장에서 만나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을 '목요대화 클럽'의 회원으로 참여케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직군, 직종 등여러 분야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여 군정활동에 반영, 군민들의 군정 참여 만족도를 높인다.

94. 능력과 성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

① 추진 배경

재정 누수, 특혜 제공 등 부패요인을 제거하고 공직문화 쇄신으로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적극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의 손실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면해 줌으로써 주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매년 1월 초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인사의 투명성 제고코자 인사시기 정례화 및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를 위해 1년에 2회(상,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실적가점제, 성과상여금 지급, 전문직위제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영암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에 대한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공직사회 내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군민의 목소리를 인사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 기존 업무손해배상공제(2008년 이후)와 행정종합배상공제(2019년 이후)에 각각 매년 가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업무손해배상공제는 주요민원업무(인감 외 8건) 담당자를 가입 대상자로 하여 업무담당자 과실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보상조치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보상한도는 1청구당 5천만원~4억원(민사), 1청구당 3천만원(형사)으로 연간 총 24억원으로 하고 있다.

③ 기대효과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예측가능한 인사 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인하는 공직사회, 일로 인정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피해대상자(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보상에 기여하고 소속 공무원의 정신적·재정적 부담을 줄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도모 및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95. 정책이력제, 책임행정 구현

① 추진배경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정책이력제를 시행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군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및 대규모 예산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법령 재개정 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정책실명 공개 실적으로는 2018년에 28건, 2019년 37건, 2020년 43건, 2021년 51건이다.

이에, 기 추진 중인 영암군 정책실명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정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에는 작성 취지와 작성자, 검토자가 명기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③ 기대효과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사업추진의 책임성이 더욱 확보될 것이며,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96. 영암 혁신민주주의 학교 설치

① 추진배경

성평등, 복지, 평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 분야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같

이 시민민주주의 역량강화, 숙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 군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영암을 구현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군에서는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지역의 현안정책과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100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누구든 자기 지역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부담없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문턱을 낮춘 토론광장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한다.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등 운영을 위한 교육, 각종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군민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신설, 혁신민주주의학교 교육,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 구축 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주민이 직접 행정을 경험하거나 참여함으로써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97. 농촌기본수당 도입

① 추진 배경

전 군민 농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개인 소득증진 및 농촌 거주의 자부심을 높이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한다.

② 주요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연천군이 청산면 주민 3981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월 1인당 15만원 연 180만원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중이고, 강원도 정선군에서 군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연간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2021. 8월부터 현재까지 협의 중이다. (1차 협의 후 보완요청 후 2차 협의 중)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협의한 지자체가 없으므로, 군비로 추진하여야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신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일부 읍면에 대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거나, 농민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므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③ 기대효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98. 평생교육센터 신축

① 추진배경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가치 향상 및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군민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실시 중인 평생교육 전반과 평생학습센터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에 대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연구용역 결과와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평생학습센터 신축 또는 타 공공시설 증개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③ 기대효과

평생교육의 장 마련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며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99. 여성회관 신축 및 여성행복프로그램 강화

① 추진배경

여성회관 신축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의 욕구 충족 및 자립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전라남도 내 타 지자체의 여성회관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9개 시군에서 도서관 등 기능복합형 시설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의 경우 여성회관을 2005년에 개관하여 운영중이나 장애인회관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혼잡하고 특화되지 못한 측면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5개 과정, 25개 과목의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현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을 확대 운영하

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③ 기대효과

여성들의 여가 및 문화교육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영암을 건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0. 군민 주치의제도 도입

① 추진배경

지역 내 공공 및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전 군민의 건강관리를 관리토록 한다.

② 주요 내용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대상자와 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충남 청양의 보건의료원이 운영하는 우리마을주치의제, 경북 안동의료 의료진의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등 대표적인 마을주치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의료기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마을에 전문 의료인이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1. 어르신 건강 마일리지 도입

① 추진배경

운동량을 마일리지로 환산하여 어르신 카드로 적립, 지급함으로써 운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현재 기찬경로당 운동교실 및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마일리지를 적립게 하고, 생태마일리지 제도와 연계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누적점수에 따라 인센티브(지역상품권)를 제공한다.

③ 기대효과

운동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02. 저상버스 도입

① 추진 배경

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2. 1. 8.)에 따라 농어촌버스 대·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높은 인도 경계석, 과속 방지턱 등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도로구조 개선 및 저상버스 운행노선이 확정되어야 한다.

국비 건의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며 2대에 700백만원 소요가 예상된다.

③ 기대효과

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할 수 있다.

103. 장애인 재활작업장 설치

① 추진 배경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소득증진 및 향후 경쟁 고용시장 진입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해 근로장애인의 80퍼센트 이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유지(보호작업장)하여야 하며, 장애인을 보호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주어야 하나, 작업장의 종류에 따라 제한사항이 많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가능하나 설치 이후 지속적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필요(군비 82%)하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은 24년 기능보강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종류에 따라 관련 법을 검토하여야 한다.(예 : 식음료 사업 HACCP인증 여부 등) 사업종류에 따라 근로 및 훈련장애인 임금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80% 이상 고용되어야 함에 따라 대상자 모집 및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내 운영 중인 직업재활시설 영암자립센터에서는 영암의 특산품인 무화과 음료 등 식음료 사업을 통해 근로장애인 및 훈련장애인 30인 시설로 운영중이다. 코로나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면 추후 인원 충원 계획이 있어 직업재활시설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시설의 규모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재활작업장 확대 운영으로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가족의 경제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104. 이주민센터 설치

① 추진배경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산단 내 노동인력 감소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집중 유입되면서 외국인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경제와 가정의 한 축인 이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권익증진을 위해 이주민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군에서는 2021년 행정안전부 주관 외국인 주민 거주 인프라조성사업 공모에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건립 중에 있다.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 외국인 주민 상담실, 교육공간, 북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등 외국인 주민 관련 인프라 구축을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다.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서별로 추진 중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부서별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분야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한다.

③ 기대효과

외국인 주민센터 건립을 기반으로 다양한 다국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5.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

① 추진 배경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 5세 이하 무상보육, 영유아발달센터 설치(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교육운영 지원 등 육아의 부담이 없는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이 필요하다. 영유아발달센터 설치를 통해 영암지역에서 영유아의 언어, 사회성 등 발달상태를 조기에 확인, 언어치료, 전문가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하여 행복한 성장을 지원한다.

② 주요 내용

여성가족과에서는 종일 아이 돌봄 서비스, 5세 이하 무상보육,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 중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영유아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를 지원 중인데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 등 의심되는 아동이 그 대상이다. 주민복지과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에 어려움 부족한 실정이다.

기 시행 중인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영유아발달센터 설치를 영유아발달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 시행사업에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행시 동승자 의무 시행(22. 11월)에 따른 인력 확충 지원을 검토하고 영유아발달서비스 바우처사업은 관내 3개소에서 66명의 아동에게 서비스 시행 중으로 매월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의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영유아발달센터 설치를 통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육아의 부담이 없는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한다.

106. 공동 육아나눔터 구축

① 추진 배경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육아나눔터 구축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가족복합센터 건립사업이 추진 중으로 준공('23. 12) 후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으로 조성 및 운영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복합센터와 연계하여 돌봄, 놀이 등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여성일자리 창출과 연계도 가능하다.

자연의 재료, 특징, 토종 식물과 창조적인 지형을 혼합하여 의도적으로 자연, 환경적인 대상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주의를 끌어 자연의 경이와 복잡함을 그 안에서 놀면서 배울 수 있게 하는 자연놀이터를 만들어 체험을 통한 창의력을 증진 시킨다. 환경부의 생태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조성 추진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다문화·출산·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류와 소통에 기여하고자 한다.

107. 어르신 카드 발급 및 사용대상 범위 확대

① 추진 배경

기존 이미용권과 목욕권 발급을 지류에서 카드로 전환하여 발급 비용 절감과 행정 절차상 불편을 해소하고, 관내 의료기관, 대중 교통 등 사용범위 확대로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노인복지법, 영암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② 주요 내용

사용대상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경남 산청군의 카드 발급의 경우 120백만원 소요되었다.(카드제작비, 수수료 등) 어르신 카드 제작 및 사용범위 확대와 관련 중앙부처 협의 및 조례 개정 필요하다.

사업추진시 상당액의 초기비용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과 행정절차의 편의성 증대 및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용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기존 이미용권과 목욕권 발급을 지류에서 카드로 전환하여 발급 비용 절감과 행정간소화 및 사용범위 확대로 이용자 권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108. 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 확보

① 추진배경

지역의 육아와 의료선택권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료지원, 생협,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익적 수단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산부인과의 경우 분만취약지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장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를 운영할 의료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생

활협동조합 등을 통한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은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전라남도와 협의 후 의료법인 설립과 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으로 추진에 시간이 소요되는 방안이다.

③ 기대효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의료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9.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① 추진배경

복지관 평가에서 나타난 낮은 운영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직영 운영에서 전문기관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및 여성회관에서 시설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 여성, 장애인, 평생학습 등 다양한 수혜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민간 위탁 운영을 검토할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을 함께 이용 중인 노인, 여성,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공간 구축과 운영인력이 재배치 되어야 하기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전문기관위탁 운영으로 장애인의 시설이용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0. 치매전담요양원 유치

① 추진 배경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영암군의 전체 노인 인구 및 치매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전문요양시설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노인복지법,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② 주요 내용

관내 요양원의 시설 수용인원이 정원 347명 대비 현원 248명으로(74%) 치매전담요양원으로만 추가 설치 시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치매전담형요양원 유치의 경우(50인 정원기준), 국비 80%, 지방비 20% 지원 가능(최대2,334백만원)하고 치매전담형요양원 전환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가능(최대 885백만원)하나 군시설 민간위탁시 기존 시설들의 민원 발생도 예상된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건립과 연계할 수도 있으며 치매 노인 증가로 인한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나, 신규시설 설치시 정원충족률이 낮은 기존 노인요양시설들의 불만이나 민원발생이 우려됨으로 기존시설을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치매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111. 재능기부센터 설치

① 추진 배경

다양한 재능을 가진 영암군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눔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및 공동체 정신함양과 소득연계를 위해 재능기부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전남 22개 시군에 재능기부센터가 설치된 곳이 없어서 재능기부센터 역할이 군단위 실효성에 대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련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다.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능기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재능기부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기대효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영암군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눔 및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재능을 기부하고 포인트를 적립,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112.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① 추진배경

이동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현재 영암군 관내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총 24개소(읍·면사무소 10개소, 사업소 4개소, 복지회관 10개소)이다. 또한 2층 이상의 공공시설물 중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은 24개소로 예상되며 노인 및 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시설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

③ 기대효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3.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① 추진 배경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와 매출감소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휴업 및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② 주요 내용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융자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중이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수수료를 1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사업 수요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한다.

③ 기대효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 및 지속 경영을 지원한다.

114. 명실상부한 군청 소재지로 확장형 도시계획 수립

① 추진 배경

군청 소재지로서 위상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영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확장형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 공공청사 이전 및 주거지역 개발, 공공주택 주변 주차장 계획수립 등 도시지역 확장으로 영암읍 발전에 기여한다.

터미널 건너편 단지계획을 통해 전략적 확장하고 농촌생활권계획, 농촌공간계획 등 농촌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한다.

③ 기대효과

영암군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확장을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수립하여 영암읍 발전에 기여한다.

115. 군부대 이전 및 유스호스텔 유치

① 추진 배경

월출산과 영암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찬랜드 내부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하고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증가하는 여가수요와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② 주요 내용

무기 탄약고가 위치하고 있어 국방부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선 7기에서도 이를 검토했으나, 군부대 이전은 국가 군사작전상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다.

월출산 인근에 유스호스텔 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공공도서관 부지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부지 등을 유스호스텔까지 포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기찬랜드 및 전통문화와 연계 가능한 부지)

③ 기대효과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대규모 여행객 유치 및 각종 대회의 인프라로 활용한다.

116. 스포츠가치센터 유치(스포츠텔 조성)

① 추진배경

스포츠와 IT를 융합한 스포츠가치센터를 유치하여 유·청소년,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② 주요 내용

스 포츠가치센터는 2015년에 경남 진주로 유치 확정, 2022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가 건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비 약 500억 정도가 수반되는 대규모 시설로 국고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기에는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남 진주시에 조성 중이며, 추가 건립계획이 없다는 점, 사업 경제성 및 타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공약인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대효과

다른 공약과 통합 추진을 통해 숙박시설 조성(하드웨어 구축), 스포츠가치의 사회적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와 체육강군으로 도약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117. 영암읍성 복원

① 추진 배경

읍성은 조선시대 지방의 수령이 지역을 관할하던 곳으로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였다. 영암읍성 및 남문을 복원하여 영암의 지역랜드마크로 조성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내용

영암읍성은 왜구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 말에 짓기 시작하여 1433년 겨울에 규모를 확장했으며 1452년에 옹성(甕城)과 해자(垓字)까지 완공되어 전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영암읍성 지표조사 실시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발생에 따른 부지 매입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장기적· 단계적· 종합적인 조사·발굴·복원 계획 수립 후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암읍성 지표조사 및 발굴·복원에 장기간 소요되며 조사와 발굴·복원 및 사유지 매입에 따른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성벽 잔존구간 781m, 발굴조사 비용 320억원 추정)

대규모 예산 투입과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단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영암읍성 주변의 해자를 이용한 군민의 강 조성사업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 기대효과

읍성과 남문 복원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기대한다. 읍성복원은 군민 편의시설과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전통문화, 축제와도 연계할 수 있어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다.

118. 군민의 강 조성

① 추진 배경

영암읍성 주변에 물길을 조성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읍성 주변 해자를 이용한 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발굴조사와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약사업인 영암읍성 복원사업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 발굴허가 승인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이다.

영암읍성 주변 해자를 이용한 군민의 강 조성사업은 발굴조사를 통한 정확한 읍성의 선형과 해자의 원형을 파악하여 복원하여야 하므로 영암읍성 복원과 함께 주진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영암읍 친수 수변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분수대, 쉼터, 징검다리, 자전거길, 생태관찰데크 등을 구성하면 관광휴양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119. 청년주택·타운하우스 조성(영암읍)

① 추진 배경

청년의 정착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부담 완화 및 지역 랜드마크로 자부심 강화하고, 청년층의 고유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

② 주요 내용

농식품부에서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시범사업(2019~2020)을 시행하고 있다. 30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과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이 포함된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의 경우 개소당 4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고 임대조건 최소 5년 이상의 임대기간에 최소한의 임대료를 책정하는 사업이다.

농림부에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을 확대 계획(~'26년, 5개소)하고 있으므로, 귀농·귀촌 업무(농업기술센터) 또는 청년 업무(기획감사실)와 부서별 업무 분담 등을 협의하여 사업공모를 준비해야 한다. 청년 임대 주택 확산을 통해 전월세 시장안정,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어르신-대학생 셰어하우스는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는 주거 공유사업으로 주택의 도배·장판, 거실·주방·화장실 등 공유 공간 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임대주택의 수요파악, 빈집 등의 활용도가 높은 주택을 선정하여 대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암군, 청년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사업자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③ 기대효과

주거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지역청년들의 안정적 주거공간 확보을 통한 지역의 역동성 및 활력을 담보할 수 있다.

120.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① 추진배경

사계절 경기와 훈련이 가능하도록 체육인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의 경우,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코자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미채택 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암군에서는 매년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등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를 계획 중에 있다.

관내 민간 숙박시설과의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시설 건립보다는 온천호텔을 활용하거나 민간 숙박시설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체육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숙박시설 조성과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엘리트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1. 온천호텔 활용 방안 모색

① 추진 배경

지역의 유일한 온천호텔로서 관광객 지역 방문 시 관광코스로 활용되었던 곳이었으나 시설의 노후 및 운영자의 재정적 여건 등으로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

태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자원의 일환으로 치유관광 등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군서면 마한로 331에 위치한 월출산온천관광호텔은 1997년 12월에 10,264㎡(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개관하였으나 영업부진을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휴업 중이다. 현재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상태로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되었으며 2016년 상반기 관광호텔 개보수 용도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일부만 상환하고 경영난으로 인하여 잔금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출산온천관광호텔은 시설노후화 및 장기적 휴업상태로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운영 의지 및 시설투자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며, 군 차원에서는 사업주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웰니스 치유관광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협의가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온천테마에 머무르지 않고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 명사탐방로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리조트, 호텔과 같은 휴양시설 확충으로 웰니스 치유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122.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삼호읍)

① 추진 배경

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삼호읍은 기업도시(삼호, 삼포지구) 및 산업단지(대불국가산업단지, 삼호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도시지역으로 주차,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목포시와 무안군은 옥암과 남악, 오룡 신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했다. 반면, 영암군은 인구유입을 위한 영산강변 주택단지 개발 등이 미흡하였고 지금도 영암에 직장을 둔 산단 직원 6천여명이 목포, 남악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신안 풍력 배후단지조성, 해경정비창, 제3 함대 등 다양한 인구유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암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중인데 농촌생활권계획, 농촌공간계획 등 농촌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한다.

③ 기대효과

삼호읍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인구유출 방지에 효과가 예상된다.

123. 공영주차장 설치

① 추진 배경

아파트,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유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의 경우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이 필

요하다. 반상회보, 신문보도, 이장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 군민 홍보활동 강화해야 한다.

지상 3층의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15,000백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공모로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기업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 외 읍면의 아파트나 빌라 등 거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기대효과

현대삼호중공업과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해 불법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제거한다.

124. 철탑 지중화(삼호읍)

① 추진 배경

대불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154kV) 송전탑 6기(①6km)가 주거단지를 관통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존한다.

② 주요 내용

삼호 대불주거단지에서 현대삼호중공업 간 고압송전선로(154kV) 114기 중 고압철탑 6기(①6km)가 주거단지 내 위치하여 있으며 이를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비용 1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자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는 사안이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6기 중 주거단지 중앙에 위치해 있는 3기를 우선적으로 지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③ 기대효과

대불산단 주거단지의 철탑지중화로 도시미관 정비 및 주거환경을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삼호읍이 대불산단의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125. 솔대목산 둘레길 조성

① 추진 배경

주거지와 연결된 둘레길 조성으로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솔대목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군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의 어메니티를 향상하고 환경자원의 보전과 함께 주민·방문객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 주민 휴식공간 조성으로 지역자원에 대한 대외 인지도 제고 및 공동체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

③ 기대효과

둘레길 조성으로 주민여가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솔대목산 둘레길 조성은 지역주민과 외부방문객들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 수의 증가가 기대된다.

126. 주말장터 개장(삼호읍)

① 추진 배경

5일 시장이 없는 삼호읍은 인근 도시(목포, 무안)의 시장을 이용하여 지역자금이 유출되고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삼호읍 주민들의 불편함 해소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주말장터 개장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시장은 과거부터 전통문화와 지역민들의 정서가 담긴 곳으로, 영세상인들의 상업활동과 서민들의 저가 구매 기회 제공 등 지역경제의 큰 역할 담당하고 있다. 영암군은 5개소의 전통시장(영암, 신북, 시종, 군서, 독천)을 운영 중이며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대형마트, 할인점 등을 이용하는 소비문화의 변화로 기존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영암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삼호읍에 5일 시장이 없어, 하나로마트, 무안, 남악의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농부, 다문화가정, 삼호읍 주민 등이 함께하는 주말장터를 개장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는 “생활형시장”, 지역 특산물 및 시장을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특성을 활용하는 “특성화시장”,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추진한다. 삼호 5일 시장의 고유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 컨텐츠를 개발한다.

③ 기대효과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 지역 일

자리 증가,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증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이 기대된다.

127. 삼호읍 작은도서관 개관

① 추진 배경

삼호읍 내 군립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삼호읍 서부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어 영유아 및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진흥 공간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서부출장소 관리 인구수는 22년 5월말 기준 6,464명이고 학교는 5개교 65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유치원 2개소/77명, 초등학교 2개교/364명, 중학교 1개교/210명). 주변 축성사 지역문화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서부출장소 인근 구 어린이집(축성사 내)을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 활용한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에 작은 도서고나을 확장하여 구축할 수 있다.

③ 기대효과

독서문화 진흥공간이 없는 삼호읍 서부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군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독서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의 창조공간의 기능을 제공한다.

128. 나불도 활성화

① 추진 배경

1980년대까지 전남 서부권 제일의 휴식공간 나불도가 재개발을 통해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고 영암뿐만 아니라 인근 목포, 남악의 휴식처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② 주요 내용

1981년 전라남도에 의해 지정된 영산호 관광지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67③392㎡(국 40,894, 도 457,850, 사유지 174,648)의 면적으로 농업박물관, 쌀박물관, 쌀문화테마공원, 한옥호텔 영산재, 나불도 승마랜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호 관광지 미로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50업원이 소요된다. 조성면적은 14,322㎡이며 사업내용은 공원(조경, 미로시설, 야외조형물, 화장실, 야간경관), 건축(소매점 및 카페테리아 1동/2층, 연면적 660㎡) 등이다. 영산호 관광지 활성화는 도지정 관광지로 전라남도의 개발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한옥호텔 영산재의 민간매각으로 민간기업의 노하우와 추가 투자를 통한 호텔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라남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산호 관광지 미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영산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미로공원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나불도 인근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도 검토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영산호 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서부권 제일의 휴식공간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군민은 물론 목포시, 남악 등 인근 시군의 휴식처로서 활용가치를 높여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129. 서창저수지 생태개발

① 추진 배경

삼호읍 최대 저수지인 서창저수지를 생태개발하여 삼호읍 인근 주민의 교육과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② 주요 내용

서창저수지의 시설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생태개발하고자 할 경우 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 필요한 상황이다. 수변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보호와 보완이 필요하며,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코자 한다.

보행자 데크와 그늘막 제공을 통해 쉼터를 조성하고 농촌생활권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③ 기대효과

방문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의 경관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이미지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다. 서창저수지의 풍부한 담수량을 활용하여 수변경관과 친수환경 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한다. 수변테마공원 설치로 영암 및 광주 근교의 탐방 명소로 추진한다.

130. 도교육청 창의융합교육관 유치(삼호읍)

① 추진 배경

도교육청 산하기관인 창의융합교육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한 교육과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미래 마을 문화 창달 공동체의 장을 마련하고 인구 유입 및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삼호읍에 유치되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위치는 삼호읍 용앙리 1667-5로 예정하고 있으며 21년 9월에 '전남 개발공사'와 매입을 협의하였다.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군에서 무상제공한 10,000㎡ 부지에 3층 구조, 23실로 건축면적은 2,500㎡이다. 총사업비는 10,000백만원이고 이중 군비는 5,000백만원, 도교육청예산이 5,000백만원이다.

인구정책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군비 50억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8월초 예산이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주체는 전라남도교육청이고 SW·AI체험관 및 발명센터(AR·VR, 드론, 메이킹, 영상콘텐츠 제작, 3D, 로봇코딩) 및 AI학습 카페 및 창의융합교실 등의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현재 사업부지는 전남개발공사의 명도 소송 중으로 대체 부지(삼호읍 용앙리 1638-1, 체육공원 옆)로 재검토 및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업부지로 사업을 진행했을 시 명도소송 문제로 사업 완료 예상 시기보다 1년 정도 늦춰질 수 있으므로 삼호읍 용앙리 1638-1로 부지 변경 재검토 및 교육청 협의 후 최종 부지 확정이 필요하다. 사업부지가 변경될 경우 부지 매입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영암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미래사회의 첨단 과학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창의융합 역량의 증가할 것이다. 일시적 단절적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에서 지속적 발전적 교육활동으로의 질적 전환을 위한 지능정보 및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융합교육 구축을 통한 지역 교육기반이 확충될 수 있다.

131. 삼호읍 문화예술테마파크(영화촬영장) 유치

① 추진 배경

영화촬영장을 지역에 유치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② 주요 내용

기업도시 삼호지구에 투자유치를 통한 테마파크 조성이 검토 되어야 한다. 영화촬영장 건립 시 대규모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된다.

경관법,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검토가 필요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

2000년대 영화 세트장 붐으로 현재 전국에 32개소가 넘는 야외촬영장이 있으나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제작사 및 관광객 유치가 불투명하고 시설 과 유지비용만 늘어나는 등 경제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정책상 폐관도 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촬영장의 형태, 관리 주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문화예술테마파크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교육할 수 있는 꿈의 학교로 연계 활용하고, 나아가 연관된 젊은 일자리 창출로 영화 촬영 기간 동안 대규모 제작진들이 영암에 머무르며 숙박시설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지역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직접지출(인건비·음식값·숙박비) 효과 이외 에도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노출 효과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관광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32. 공영주기장 설치

① 추진 배경

건설기계를 도로에 무단으로 세워 두어 주야간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공영주기장 설치되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사업 성격상 대규모 사업부지가 필요하며 주거단지 주변 국유지, 도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기장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대중교통 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③ 기대효과

군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화물차 차주의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133. 노후 상수관로 교체(삼호읍)

① 추진 배경

노후 상수관으로 유입되는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관의 교체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삼호읍 상수관로는 매설 년도가 30년이 경과한 강관으로 학산 상월정수장에서 학산면, 미암면, 삼호읍 일원에 대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삼호읍으로 공급되는 관로에 대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노후관로 교체 및 시설확충, 관로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삼호읍 시가지 내 노후관로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황도 배수지, 삼호 2배수지 등 상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24년부터 국고(환경부)를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관 세척, 자동 드레인, 정밀여과장치, 노후관망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기대효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삼호권역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을 제고한다.

134. 자연부락 도시가스 추가공급(삼호읍)

① 추진 배경

대불국가 산업단지가 위치한 삼호읍 일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자연마을 등 미공급 지역과의 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자연부락 주민들의 소외감을 유발하고 있다.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연료비용의 절감시키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은 2008년 삼호 대불산단에 최초로 공급되었다. 대불산단과 현대사원아파트, 공동주택 위주로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전무한 자연마을은 투자가치가 낮고, 정압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 문제로 사실상 공급이 되지 않았다. 정압기는 최소 150~200세대 이상 수요가 확보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자연부락은 이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연마을은 정압기 운영 문제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하므로, 대체 에너지원인 LPG 배관망 공급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복지 실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지역주민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주민의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135. 삼호읍 쓰레기 수거방안 개선

① 추진 배경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지역은 원룸이 밀집된 지역으로 외국인과 주민들에 의하여 생활쓰레기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삼호읍 원룸촌은 앙감 · 구례 · 산촌마을에 공동주택 530동으로 추정인구 약 5,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지역이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불법배출자 적발이 어려우며, 건축주의 무관심으로 불법투기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수거장비 및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수거대상 폐기물	차량	공무원	환경미화원
계	9/(21)	7/(15)	15/(35)
생활쓰레기	2	2	4
음식물쓰레기	2	2	4
재활용쓰레기	2	2	4
대형 폐기물	3	1	4
청소인력	10명, 원룸촌(4), 시가지(2), 용당(2), 국도변(2)		

인구밀접지역(원룸촌)을 대상으로 문전 수거로 전면 전환하여 각 원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정해진 수거일에만 원룸 출입구에 배출토록하여 쓰레기의 무분별한 배출 억제한다. 지정된 장소 외 배출쓰레기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한다.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거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미 건축 나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한다. 현재 관련 용역이 추진중이며,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이 적극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쓰레기 수거 방법의 변화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시킨다.

136. 3함대 주거단지 조성

① 추진 배경

해군 3함대 인구 현황과 장래 부대 이전계획에 따른 직업 군인과 가족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현 군인인구 3,000명이 2040년까지 이전시 군인인구 1,000명을 더해 4,000명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수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해군 3함대 군인인구의 유입 및 삼호지역 정주여건 개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137. 구림관광문화특구 조성

① 추진 배경

구림지역을 관광문화특구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의 구심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현재는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이상(통계전문기관 통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 충족지역,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10% 미만 등의 지정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지정된 사업으로 대규모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국도비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구림마을은 왕인박사유적지, 하정웅미술관, 도기박물관, 한옥체험관, 구림한옥마을 등 문화적 기반은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10만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음식점 등 장기적인 기반시설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이나 강진 사의재 처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말난장, 야단법석, 트롯버스킹, 퓨전국악 등 지속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③ 기대효과

구림지역이 관광문화의 특구로 지정되면 관광객의 지속적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138. 휴양림 및 주택단지 조성(금정면)

① 추진 배경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자연 친화적이고 특성화된 고품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② 주요 내용

공유림의 경우 30ha 이상의 토지 확보와 사업 대상지 타당성 평가 시 일정 점

수 이상의 적합지로 판정되어야 한다. 2023년부터는 도비 건의사업으로 가능하나 미암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어 전라남도를 통한 추가적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인 미암면 기찬자연휴양림을 내년 3월까지 준공 후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대상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국비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한다. 국·공유림이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지로 검토하고 사유림 매입 등에 필요한 군비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적합 지역을 조사 발굴한다.

③ 기대효과

비교우위의 휴양림과 주택단지의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등에 기여한다. 귀농·귀촌 등의 인구유입을 위한 주민 자체 홍보활동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139. 영보항일농민운동 기념사업 확대(덕진면)

① 추진 배경

영암의 대표적 향약 집회소인 영보정은 형제봉 사건을 통해 항일운동의 거점역할을 하였으나 사회주의자 주도 운동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해 홍보 및 교육 연계가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영보항일농민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자료가 부족했으나 최근 독립유공과 포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보마을에 설치할 항일농민운동 기념탑 설치의

위치가 영보정 주변으로 선정시 영보정 일원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건립시 문화재청 허가가 필요하다.

민초들의 자발적인 항일농민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료 수집과 홍보물 제작을 통해 군민들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계한다.

③ 기대효과

형제봉 사건을 통해 항일운동의 거점임이 알려진 영보정을 역사적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40. 황토연구시설 건립(도포면)

① 추진배경

지역 밭농업의 기반이 되는 황토에 대한 연구시설 확충으로 밭작물의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황토에 관한 기능성에 대해 해남, 무안, 고창 등 여러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있어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계획단계부터 타당성을 분석하여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별도의 연구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의 범위와 기간 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단계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기대효과

황토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선점하여 황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물론 관련 생산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141. 은퇴자 마을 조성(미암면)

① 추진 배경

목포, 삼호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미암에 은퇴자 마을조성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활성화 유도한다.

② 주요 내용

공공기관 주도 신규 마을조성의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사전절차 이행과 기반조성, 택지분양까지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다.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50세대 이상 은퇴자 주택과 편의시설 조성·분양하는 경우 기반시설비 18~30억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경우 지원이 없다.

* 단지조성 개발 유형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③ 기대효과

인구 유입 및 정착의 효과가 기대된다.

142. 은적산 산악자전거코스 설치(서호면)

① 추진배경

서호의 자랑 은적산에 산악자전거 코스를 설치하여 동호인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② 주요 내용

영암군 내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50여 명에 불과하여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로부터 산림레포츠 조성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승인이 까다롭다.

경제성 및 이용률 등을 고려할 때 임도구간을 활용하여 산악자전거 코스에 필요한 시설물을 구간별로 설치하여 산악자전거 동호회와 군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한다. 임도구간에 간이 쉼터, 화장실, 자전거 거치대, 로프 등 안전시설, 표지판 등을 설치해 동호회 뿐아니라 일반 등반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한다.

산악자전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크로스컨트리 코스, 다운힐 코스 등을 개발하고 전국대회 또는 클럽대회를 유치한다. 다만, 군민들의 호응도나 이용율이 낮을 경우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영산강 조망과 월출산 경관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무장애숲길’을 개발해 보행약자를 위한 코스를 마련해 볼 수도 있다.

③ 기대효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청정하고 수려한 영암의 자연경관을 자랑할 수 있는 코스를 통해 웰니스 관광 영암의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43. 마한역사문화관광 활성화(시종면)

① 추진 배경

마한역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한문화전시관을 설치하고 마한축제를 통합하는 등 마한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관심을 증대 시켜야한다. 마한사의 복원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주요 내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역사문화권이 8대 문화권으로 정의되었다. 8대 역사문화권 가운데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의 전남일대 지역” 위주에서 광주, 전북, 충청 등지로 대폭 확장되었다.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이 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연구, 복원 및 활용사업이 활발해질 계획이다. 마한 유적발굴, 마한역사문화 테마 관광지 조성 등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활용사업에 2,5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한문화전시관 건립은 영암 마한사 연구 및 복원의 역사적 가치와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정과제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보조를 맞춘 추진이 필요

하다. 마한축제와 마한역사문화 연구 복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③ 기대효과

체계적인 마한역사복원 사업 추진과 마한역사문화벨트 조성, 역사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마한시대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영암군의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144.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신북면)

① 추진 배경

교통의 요지인 신북면에 농산물유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산물 유통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

② 주요 내용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의 반복된 산지 폐기와 수급 불안정으로 농가소득이 불안한 상황이다. 대규모 사업추진시 부지확보 및 사업자 선정 어려움 등이 있다.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5개소가 운영 중(신북농협, 푸름채영농조합, 버들영농조합법인, 영암낭주농협, 누우리 영농조합법인 APC)이다.

교통의 요지인 신북면에 농산물유통의 거점 역할 수행의 적지로 보이나 임기내 실현을 위해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기대효과

농산물 유통과 관련한 유통단지의 조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 절약된 비용을 농민의 소득으로 전환시켜 농가소득을 증진시킨다.

145. 망월천 및 소재지권 정비사업(학산면)

① 추진 배경

학산을 관통하는 망월천 및 소재지권의 정비사업을 마무리한다.

② 현황 및 쟁점

신활력 氣충전소 학산누리 플랫폼 조성이라는 사업이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68-1번지 일원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누리센터 1,600㎡(문화센터 700, 실내체육관 900), 수변공원 10,097㎡, 주차장 정비 100면, 도로확포장 L=340m, 망월교 경관조명 및 홍보 간판 설치 등의 내용으로 7,837백만원(국비 3,800, 군비 4,037)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데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지역개발사업 공모하여 실시 중이다. 낙지마을 도로정비, 주차장 설치, 망월교 경관조명 사업 등 학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을 최종 마무리한다.

③ 기대효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하천 공간의 생태공원화, 학습공간화에 따른 교양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

4

영암군수 취임행사

Ⅰ. 개요

Ⅱ. 추진과정

Ⅲ. 취임행사

Ⅳ. 취임사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백서

제1장 개요

1.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민선 8기 제43대 영암군수 취임식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으로 나아가는 영암의 첫걸음을 군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였다.

군민들의 영암군을 변화시키겠다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2022년 7월 1일 오후 2시 영암군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검소한 취임식을 준비하였고, 라이브송출을 통해 '영암군민들 모두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당선인의 뜻과, 정치도, 행정도, 군민의 생활도 완전히 새로운 '혁신 영암의 길'을 이루고, 군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통해 영암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킨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취임식이 시작되었다.

제2장 추진과정

1. 장소 선정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여는 제43대 영암군수 취임식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선정하여 논의하였으나 코로나19, 기후환경, 주차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장소를 선택 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였다.

2. 취임식 초청자 선정

취임식의 초청자는 이번 민선 8기 '군민의 주인인 영암'을 만드는 혁신의 목표에 따라 군민 누구나 입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단상무대

단상무대는 당선인이 군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PPT 발표 단상을 채택하였다.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PPT를 통해 시각과 청각을 통해 군민들을 배려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꾸며내었다.

4. 라이브방송

이번에 진행된 취임식은 코로나19의 중대한 상황으로 집에서도 전체적인 부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청에 있어서 청각장애인들을 배려하여 수어통역사를 왼쪽 밑에 배치하였다.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여 군민들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취임식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당선인의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영암을 생각하는 당선인이 영암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부분이다.

제3장 취임행사

1. 취임행사 식순

항목	시간	행사내용	비고
식전공연	13:32~13:43	색소폰 연주	영암색소폰앙상블
	13:45~13:52	난타 공연	삼호아리랑난타
	13:54~13:58	난타+율동 공연	삼호아리랑난타 / 율동패
본행사	14:03~14:07	개식 및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맹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4:07~14:10	군수 약력 소개	기획감사실장
	14;10~14:12	취임선서	영암군수 취임선서
	14:12~14:28	취임사	영암군수 취임사
	14;28~14:31	축사	영암군의회 의장

항목	시간	행사내용	비고
	14;35~14:39	축하영상	영암군민 외 축하영상
	14:39~14:45	꽃목걸이 전달식	공무원, 화동(남/여)
	14:45~14:55	축가	오월어머니의 노래
	14:55~15:00	군민의노래 제창	군민의노래 제창
폐회	15:01~15:02	폐식	폐회멘트 및 군수님과 포토타임

제4장 취임사

존경하는 영암군민과 향우 여러분,
저는 오늘 제43대 영암군수로서 새로운 영암을 위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차이로 압도적인 당선을 만들어주신 군민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군수의 권한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젊은 군수를 통해 지체되고 쇠락하는 영암을 변화시키겠다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1월 출마선언에서 저는 '오직 비전과 정책으로 군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모아내고, 영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켰습니다.

제가 경선에서 정치교체를 이루고, 본선에서 군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군민을 위해 뛰어온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여 선거혁명과 완전히 새로운 영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영암군수로서 부여해 주신 임무와 4년간의 권한으로 영암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영암군 대표일꾼 우승희"의 책임과 소명으로 군민이 행복한 민선 8기 새로운 영암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과 향우 여러분, 우리는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인구소멸이라는 대전환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영암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혁신해야 합니다.

낡은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길, 혁신의 길로 나아갑시다.

정치도, 행정도, 군민의 생활도 완전히 새로운 '혁신 영암의 길'을 만들어 갑시다.

우승희의 혁신은 행정의 혁신이고, 지역의 혁신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지방자치의 목적인 "군민이 주인인 영암"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영암을 대한민국 지방정부를 선도하는 혁신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젊은 군수를 만들어 주신만큼 젊은 생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영암을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혁신입니다.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행정이 주민을 이끌며 권위주의 시대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군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행정 중심, 관 주도의 시대에서 시민에 기반한 민관협력의 시대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민선 8기를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 영암”, “풀뿌리 시민주권도시 영암”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째 날이 될 것입니다.

읍면별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총회를 활성화하고, 영암군의 중요한 사안은 주민투표로 군민의 뜻을 묻겠습니다.

행정의 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둬서, 군민 주권 행정시대를 열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추첨제 위원 선출로 각계각층의 군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존중받는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열겠습니다.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게 하겠습니다.

군수인 제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가슴에는 “영암군 대표일꾼 우승희”라는 명찰을 차겠습니다.

목요대화를 통해 군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군민과 공직자와 마주 앉아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제왕적 단체장의 문제를 극복하고 혁신군정을 이끌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인사를 실현하겠습니다.

부정청탁과 같은 공직인사의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게 하겠습니다.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군민의 일을 도와주는 공직자가 인정받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혁신입니다.

정치행정 뿐만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군민의 삶도 변해야 합니다.

개인과 특정집단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과 모두를 위한 일에 우선하겠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실하고 평범한 군민들이 인정받는 영암군을 만들겠습니다.

목소리 큰 소수 특권층보다 평범한 다수 군민의 편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열정이 값지게 사용되고, 어른 세대의 경륜이 존중받는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는 수직경제에서 수평경제로 바꿔가겠습니다.

큰 기업과 주요기관 중심에서 주민들의 삶이 있는 골목상권, 서민중심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사회적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지역 농특

산물을 사용하고, 군민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방식도 혁신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고, 안되는가?'가 아니라 '우리 영암은 이것을 잘해', '이것이 좋아'라고 우리가 먼저 영암을 사랑합시다.

우리 영암의 품격, 군민의 자존심을 스스로 높입시다.

관행적으로 해온 행사가 아닌 변화된 생각과 혁신의 내용을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민선 8기 영암군은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1. 지방소멸 극복과 인구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뛰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예산과 정책을 청년과 미래혁신에 투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영암을 위해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공공주택과 청년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청년기금과 청년정책지원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영암형 완전고용시스템 구축과 10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 프로젝트 실현, 농업·제조업·서비스업·사회복지 등 분야별 청년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 자립마을과 발전이익을 공

유하는 군민발전소 설치 등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대전환 선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 때문에 영암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역대표 고등학교 육성과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 300인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 청소년 국내외 체험활동 지원 등 영암교육을 살리겠습니다.

2.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영암을 남도 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립공원 박람회와 달빛 축제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월출산이 애물단지가 아닌 보물이 되게 하겠습니다.

월출산의 깃대종인 남생이와 곤충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영암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브랜드도 만들겠습니다.

영암읍성을 복원하고, 한석봉, 왕인, 천자문, 도선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콘텐츠화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할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더불어 삼호읍을 지역경제의 심장부로, 영암읍을 명실상부한 군청소재지로, 구림을 문화관광특구로 조성하고, 도포에 황토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등 11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스포츠텔, 유스호스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음식거리 조성, 상가리모델링과 상권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머물고 가는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3.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 일번지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전군민 농촌기본소득 도입과 농민수당 확대로 농촌에 살고 농업에 종사하는 일이 존중받게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설치와 농특산물 답례, 축산농가와 경종 농가의 상생전략으로 잘사는 영암을 만들겠습니다.

영암의 다양한 농특산물이 제값을 받고, 농민과 군민의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품목별 저장시설 확충과 농산물 전문유통공사 설립, 기찬장터 부활 등 생산 중심의 1차 산업 농업 군에서, 가공과 유통, 마케팅까지 연결되는 농생명산업 일번지 영암군을 만들겠습니다.

4. 군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한 촘촘한 돌봄체계와 생산적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군민께 힘이 되는 생활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군민 주치의제 도입, 여성회관과 평생교육센터 건립,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이주민센터 설치, 영암형 아동복지 실현과 어르신 건강마일리지 도입, 보건의료 체계 보완 등 아이들,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버스노선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과 향우 여러분,

올해 초 월출산 천황봉에 올라 군민께 말씀드린 출마선언의 약속을 다시 다짐합니다.

천황봉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우리 고장 영암을 기억합니다.

젊은 생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영암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영암군 곳곳에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이 넘치고 군민의 행복 꽃이 만발하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젊은 군수를 만든 영암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시·도민이 위대한 선택을 한 영암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젊은 군수와 함께 활기 넘치는 영암을 바라고 있습니다.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영암을 위해 뛰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 혁신의 길, 영암의 길을 만들어 군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協力)의 협(協)은 세 개의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군민과 군수와 공무원이 힘을 합치면 영암이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영암을 만듭시다.

정치교체와 선거혁명을 이룬 위대한 군민 여러분께서 영암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편가르지 않고 청렴한 영암군을 만들어 4년 후 군민의 선택이 현명했음을 증명하겠습니다.

군수의 권한을 주신 군민의 열정과 지지를 새로운 영암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큰 영암

취임사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큰영암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

우승희 영암군수 취임
2022. 7. 1(금) 14:00 / 영암실내체육관

취임사
제43대
우승희 영암군수 취임식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7.]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602호, 2022. 4. 7., 제정]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영암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병암

혁신영암

준비위원회 백서